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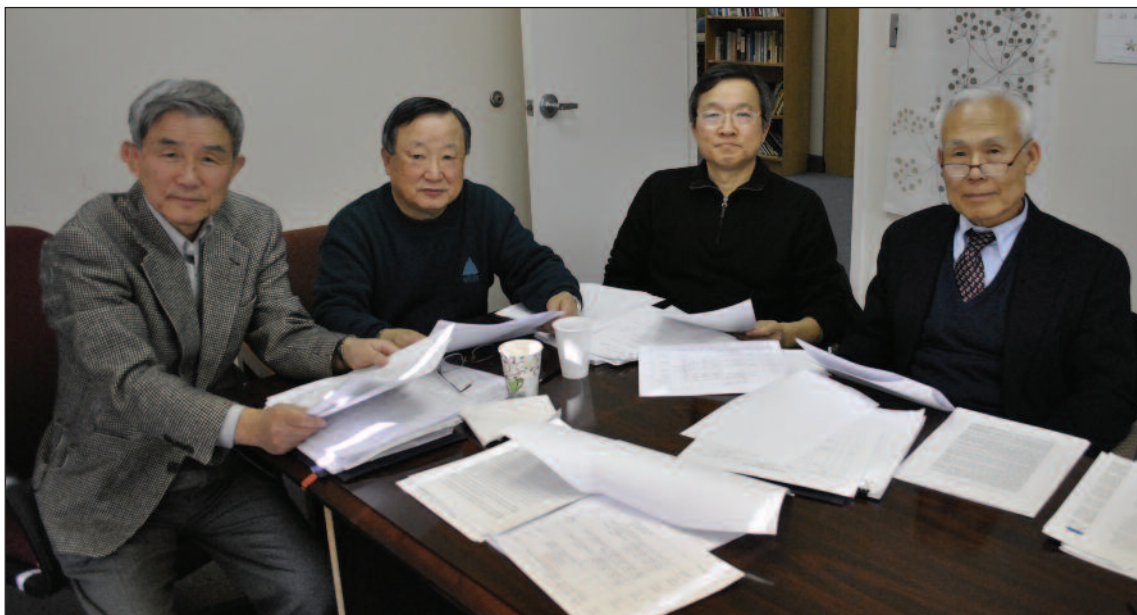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51호 2015년 3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미주 동창회 우수 작품상 응모 심사위원들이 응모작품에 대해 최종 심사 중이다. 왼쪽부터 서윤석(의대 62)편집위원, 오인환(문리대 63)회장, 장경태(사대 75)편집위원장, 백순(법대 58)주필.

‘미주 동창회 우수 작품상’ 심사결과 발표 시 부문 2명, 수필 부문 5명 우수상·장려상 입상

제12대 미주 동창회는 지난 해 처음으로 우수 작품상 모집 제도를 만들어 동문들의 우수 문학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총 14명의 동문들이 작품을 응모해왔는데 심사위원들의 최종 심사 결과 시 부문에 2명, 수필 부문에 5명의 동문 작품들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에 입상했다. <오른쪽의 우수 작품상 부문별 수상자 및 작품 참조>

작품 응모는 작년 말로 마감했는데, 시 부문에 5명, 수필수기 부문에 9명이 응모했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 2월 18일 오후, 그간 응모한 작품 심사회를 가졌다. 4명의 심사위원 중 이영

목 고문만 서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심사평을 주고 받았다.

우선 응모자 중 응모자격을 먼저 심사했는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응모기준은 모든 작품은 이미 발표되지 않은 것, 시의 경우 5편 이상, 수필은 2편 이상을 응모해야 한다, 추가로 심사기준을 삼은 것은 응모 동문들의 평소 동창회비 납부 기여도를 고려했다. 응모자의 성명을 완전히 비공개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은 작품을 심사했다. 심사기준으로 작품의 서울대 동창회와 관련성, 예술성, 완성도 등을 보았다.

대부분의 작품에 동문들의 열정이 배어 있어 이민생활 속에서 지내온 과거를 돌아보아 힘들고 어렵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그 속에 삶이 있고, 청춘과 낭만이 있었으며, 그 속에 꿈이 이뤄져 온 과정을 볼 수 있어 좋았다.

<3면에 계속>

모교 공대 건축학과 석사과정 이주동 연구원

‘ICENS 2015’ 최우수 논문상



모교 공대는 건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주동(사진) 연구원(지도교수 강현구)이 ICENS 2015(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2015)에서 공저자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월 10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ICENS는 융합과학 학문

을 다루는 국제학회로 매년 논문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총 86편의 논문을 심사한 결과 이 연구원의 논문이 가장 우수한 공학 논문으로 뽑혔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이 수상한 논문의 주제는 ‘지하주차장 구조물의 콘크리트 바닥 시스템 공법에 관한 산학연구(Viable Options as Possible Concrete Floor Systems for Basement Parking Structures)’다.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공법은 콘크리트 판을 사용해 거푸집과 지지대를 제거할 수 있어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주동 연구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실용성 있는 새로운 공법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주차장 구조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구조물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주 동창회 우수작품상 부문별 수상자 및 작품

- <시 부문> ▶우수상 = 먼지(김택수·의대 57·네바다)
▶장려상 = 봄 창가의 기적(조봉완·법대 53·시카고)
<수필 부문>
▶우수상 = 신들린 듯 했던 어느 날(김규호·의대 58·시카고)
▶우수상 = 뿌리 내리기(이원택·의대 65·캘리포니아)
▶장려상 = 외씨버선(김옥영·문리 52·워싱턴주)
▶장려상 = 천송이의 백합(김석민·사대 55·워싱턴주)
▶장려상 = 미국병원에서의 첫 날(서안희·간호 63·앨라배마)

화학생물공학부 김대형 교수팀

로봇 의수용 인공피부 개발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김대형 교수팀이 신축성 있는 실리콘나노리본(SiNR)을 이용해 로봇 의수(義手)용 스마트 인공피부를 최근 개발했다. 저명한 과학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서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스마트 인공피부에는 늘어나는 압력·온도·습도센서가 들어 있다. 신경 자극용 전극과 체온을 모사하는 전기저항 히터도 있다. 이 인공피부를 로봇 의수에 씌우고 신경과 연결하면 사람 피부처럼 차고 뜨거운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통해 이

를 확인했다. 또 인공피부로 아기 기저귀를 만지면 보송보송한지 젖었는지 알 수 있다. 아기를 쓰다듬을 때 체온과 같이 따뜻한 느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 교수는 “의수를 mechanical 하게 연구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 피부를 연구한 사례는 없다. 의수를 진짜 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보철(補綴)기술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베르톨트 마이어 독일 쾰른 공대 심리학 교수 대표적 연구자다. 그는 다섯 손가락이 제각각 움직이는 최첨단 생체공



↑김대형 교수가 컴퓨터로 인공피부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 의수를 사용한다. 영국의 TV 다큐멘터리 ‘인조인간을 만드는 방법(How to build a Bionic Man)’의 모델이 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로봇 팔에 신경을 연결해 6개월 정도만 연습하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첨단

로봇 의수로도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의수는 손의 기계적 움직임만 모사한다. 실제 사람 손처럼 압력·온도·습도를 느끼진 못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질 때 따뜻한 체온을 전할 수도 없다. 이유는 피부가 없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를 비롯한 각종 후원금이 원동력입니다. 1차 연도에는 회비17%를 달성, 이번 2차 연도 목표는 30%를 달성하려고 하오니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동창회비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24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시 : 6월 19일(금)~21일(일) ▶행사 내용: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제24차 전국평의원회의(제14대 미주 동창회장 선출 포함), 친선 골프대회(Spouse 위한 별도 관광 프로그램 계획) ▶장소 : Dou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Philadelphia West. 640 Fountain Rd, Plymouth Meeting, PA 19462. 610-834-8300.http://doubletree3.hilton.com/philadelphia-west-PHLGHDT/index.html Single bed : \$ 114+tax (+1 sofa bed) Double Beds : \$ 124+tax (+1 sofa bed). Reservation 마감 6월 1일(3면 게시판 참조). ***

주필 칼럼

Deflation의 위험



백 순(법대 58) DC
미 노동성 전 선임경제학자
미주 동창회보 주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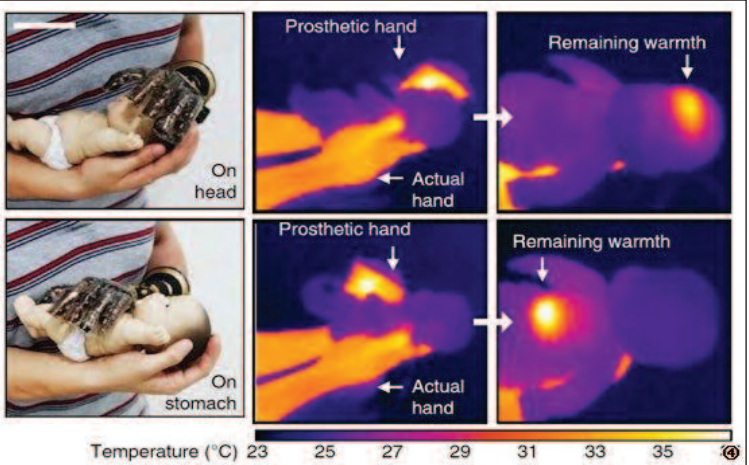
2015년에 들어서서 미국경제를 위시해서 세계경제가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경제성장이 각각 겨우 2.5%, 2.7%, 0.9%, -0.5%이고 지금까지 두 자리 성장률로 세계 경제성장의 뒷받침을 해 왔던 중국경제도 7.3%로 주춤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성장의 둔화에 못지 않게 세계 경제계에 커다란 우려로 등장하고 있는 경제상황은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Deflation)의 편만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보면 미국과 영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이 0.8%, 0.3%, 0.6%, 2.4%, 0.8%로 매우 낮은 통계를 들어 내고 있는 형편이다. 항목별로 살펴 보면 브렌트 원유가 배럴당 작년 110달러에서 최근 60달러로 45% 이상 하락한 것을 위시해서 에너지 소비자물가 변동이 2011년 +0.1%이었던 것

이 2014년 -0.08%로 떨어졌고, 식품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일반상품의 물가도 서비스를 제외하고 2011년 +0.03에서 2014년 -0.01%로 하락한 현상을 보여 준다. 디플레이션의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비자의 주머니를 열게 하여 경제규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를 촉진 시키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현상을 결과할 수 있기는 하지만, 디플레이션 현상이 어느 정도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국민경제에 적지 아니한 위험(risks)을 결과하기에 이른다. 세계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은 무엇인가? 첫째 위험은 소비자자들이 물가하락의 장기화 기대로 실질소비를 연기하게 돼 국민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축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둘째 위험은 생산자들이 물가하락으로 인하여 이득이 줄어 들어 생산을 축소하게 되고 고용도 늘리지 않게 되어 오히려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다. 더 두려운 현상은 기업가들이 물가하락으로 인하여 재정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회사에 보유하게 되어 재정투자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성장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가하락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은 회사들의 현금보유가 2조 달러와 2.1조 달러에 다다르고 있는 현상이다. 더 나아가 장기화된 디플레이션

은 부채의 디플레이션을 낳게 된다. 즉, 부채가 물가하락으로 싸게 되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연기하게 되고 재정시장은 비활성화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과 유럽연합의 은행들이 정채된 용자로 재정시장의 정채를 놓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셋째 위험은 경제침체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4% 정도였을 때 미국의 연방 준비은행이나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제진작을 위한 화폐정책을 시행하여 어느 정도 그 효력을 보아 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이미 0.0%에 이르러 금리하락을 통한 경제회복의 화폐정책이 별로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소비연기, 생산축소, 현금보유, 부채 디플레이션, 비효력의 화폐정책 등 디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인한 이러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없는 것인가? 근래 경제 전문가들이 두가지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장하여 국민경제의 수효를 증진하는 재정 정책이다. 둘째는 중앙은행들이 이자율 하락이 아니고 증권구입을 통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 중앙은행은 이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이 얼마나 디플레이션의 장기 위험을 잠재울 수 있는지는 그 효력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두 정책이 가져올지 모르는 비용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1면에서 계속>
피부는 차고 뜨거운 감각, 습하고 건조한 느낌을 신경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 팽팽히 당겨졌다 느슨해지는 정도로 손의 움직임도 알려준다. 김 교수는 앞서 피부에 붙여 파



←김대형 교수팀이 개발한 인공 피부를 로봇의수에 장착한 모습.
킨슨병 등의 운동장애를 실시간 관찰하고 치료제 투입까지 조절할 수 있는 ‘파스형’ 나노전자 소자도 개발해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소개됐다.
2011년에는 미국 MIT대가 발간하는 잡지 ‘MIT 테크놀로지리

차 례

- 3.<편집위원 영시감상>No Man Is An Island/ 모교 재학생들 LA의 KYCC에서 인턴십/ 게시판/ 미주 동창회 임원회의
- 4.<3.1절과 민족정신>인준근 의사와 민족정신/ 이민 선조는 말한다/ 스코필드 박사과 평생 AS대학
- 5.<미 시사역사 칼럼>Appromattox
- 6.<건강칼럼>재미 한인동포에 유독 많은

- 암 별도의 해결방법을 찾자
- 7.<시사칼럼>미NBC-TV거짓 보도한 스타 앵커의 하차/<삶의 단상>미국 속의 제갈길
- 8.<모교소식>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 물리천문학부 김대식 교수/ 올해 등록금 0.3% 인하/ 공대-동반성장연구소 협력 MOU
- 9.<모교소식>창업지원 프로그램 Be the Rocket/ 2014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시상/ K리그 활성화 프로젝트 진행/ 자사고 서울대 합격자 외고 압도/ 사범대 시흥시에 공교육 혁신 지원센터

- 10.<역사칼럼>인물화상경/<생활의 단상>울타리/<세무칼럼>저소득 중산층 위한 새 은퇴연금 계좌 MyRA
- 11~13.미주 동문 동정
- 14~19.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
- 20~21<관악새대 아크로 광장>치매 예방과 뇌색남/ 인문학 전공자가 사는 법/ 감정 바이러스의 전염성/ 부자증세라는 함정/ 고구려인 수명 30세, 현대인은 85세, 그 차이는 왜/ 일상의 봄, 정치의 봄
- 22.<영화이야기>아바타/ A Fish called

- Wanda
- 23.<My Journey to>아메리칸드림 50년<20>
- 24.<문학기행-1>Air and Space Museum
- 25.<작가수상>서신 11월/ 설날 새벽에
- 26.<여행기>산티아고 순례길 낙수<3>
- 27~32.회비 후원금, 동문업소록,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동문 시 감상

화해와 평화

박윤수(문리대 48) CA
미주 동창회 초대 회장
현 상임고문



오랜만에
맨해튼 소음 속을 걷는다
몸과 몸이 부대끼고
귀병이 날 정도로 시끄러운 맨해튼

그 속에서 삶의 활기를 감촉한다
가지 각색의 인종이 뒤섞인 거리
요란스런운 소방차 앰블런스 소리 가운데
생에 대한 투쟁과 애착을 경청한다

멀리 남쪽 하늘에
9.11을 투영한 100층의 세계무역 센터
슬픈 태양의 광채를 반사하고 있다
이제는 이것이 평화의 상징이 될까

수많은 인종이 땀 흘리며 비벼대고
삶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 양보하는 화해의 세계
맨해튼의 소음이 화해와 평화의 소리이기를 ***

FIT 변경희 교수

한국 국제교류재단 필드 리서치 펠로 선정



뉴욕주립대 FIT 미술사학과 변경희(사진)교수가 한국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필드 리서치 부문 2015년 펠로로 지난 1월 선정됐다. FIT가 지난 1월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변 교수는 올해 여름학기 동안 모교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초빙으로 초상화에 나타난 풍경 배경의 의미를 동서양 미술작품의 비교연구를 통해 역사적, 문화적인 개별성과 상징적인 보편성을 검토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변 교수는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국립박물관 및 서울대 규장각 소장 귀중본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며 펠로십 덕분에 프로젝트에 많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장진성 학과장은 “북미, 유럽, 호주 및 범아시아를 망라한 전 세계 유수한 연구기관 소속 한국학 전문가들을 선발하는 유서 깊은 필드 리서치 부문 펠로로 변 교수가 선정돼 뜻 깊다”며 “서양 중세미술을 전공한 변 교수의 비교 문화적 방법론을 통해 한국전통회화의 독창성과 명민함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FIT의 스캇 스토다트 인문대학장은 “바쁜 학사일정 중에도 연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변 교수의 성실성이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FIT 커뮤니티에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책으로 출간되는 날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국 국제교류재단은 지난 1991년 설립돼 한국학 및 한국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세계화를 장려하고자 연구지원지원, 해외 한국학 센터 설립, 한국문화의 해외 전시 및 학술 교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국제교류재단은 선정 펠로에게 왕복항공권과 체재비, 여행보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판 지원을 위해 별도 소정의 후원금도 책정하고 있다. ***

편집위원 영시 번역 감상

No Man Is An Island

by JohnDonne(1576~1631)

서윤석(의대 62)VA
한국 현대시인협회 회원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Every man is a piece of the con-
tinent,
A part of main.
If a clod be washed away by the
sea,
Europe is the less.
As well as if a promontory were,
As well as if a manor of thy
friend's
Or of thine own were;
Any man's death diminishes me,

Because I am involved in
mankind,
And therefore never send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우리는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 한 몸이다/ 모든 사람은 대륙
의 한 부분이다/ 서로 연결된/
파도에 한 덩이의 모래가 씻겨지
면/ 유럽 대륙이 그만큼 줄어든
다/ 커다란 반도의 땅이 줄어들
때처럼/ 친구의 것도, 당신의 것
도/ 우리 모두의 것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웃의 죽음은 나의 부
분을 잃는 것과 같으니/ 우리는
서로 아파하는 한 몸이어라/ 그
러므로 저 슬픈 종소리가/ 누구
를 위하여 울리는가를 묻지 말아
다오/ 당신을,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울리는 것이리라 ***

월남전 당시 자원해서 해병대 군
의관, 정신과 의사, 송나라 시대
의 도자기 연구가, 조각가이자 정
원사, 원예가로서 불어, 영어, 중
국어룰 자유롭게 구사하던 민경
탁(의대 59년 입학)선배님의 Napa
Valley 자신의 농장에서 나무를
자르다 당한 안타까운 부음을 듣
고 지난 해 12월 번역. 삼가 고인
의 명복을 빌면서...

모교 재학생들

LA의 KYCC에서 인턴십 거쳐

LA의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관장 송정호)에서 초청하는 인턴
십 프로그램에 선발된 모교 자유
전공학부 학생들이 지난 1월 30
일 LA총영사관을 방문했다.
이들 재학생들은 영사관의 업무
및 역할, 한인사회내 활동 등에
대해서도 배웠다.
KYCC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와 함께 인턴십 프



로그랩에 진행해 왔다. 인턴, 박신환 영사, 이서호·정진
사진 왼쪽부터 최다미·박민주 옥 인턴 동문. ***



미주 동창회 임원회의

↑미주 동창회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2월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미주 동창
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정식 사업국장, 장경태 편집위원장, 한정민
총무국장, 오인환 회장, 권기현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정평희 사무총장.

<1면 미주 동창회 우수 작품상
심사결과 발표 기사 계속>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
다. 응모해 온 작품의 대부분이
자신의 자서전적인 내용이었고,
모교인 서울대와 직접 관련된 내
용은 적은 편이었다.
글의 솜씨는 개인별로 많은 격
차가 있었는데, 평소에 문예활동
을 하거나 책을 출판한 경력이
있는 동문과 취미생활로 글을 쓰
는 동문과는 소재, 표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시 부문은 응모자와 응모 편수

가 너무 적은 편이었지만, 그래
도 이민생활의 경험에서 오는 자
신의 감정이 잘 녹아져 있는 작
품들이었다.
또, 응모 동문들 중에는 의사와
간호사인 동문들이 많은 것은 특
별했다.
시 부문에서는 인생의 감회가
철학적인 듯, 종교적인 듯이 잘
표현한 ‘먼지’가 우수작으로 선
정되었다.
수필부문에서는 병원에서 자칫
죽을 뻔한 생명을 살린 경험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신들린 듯
했던 어느 날’과 이민생활에서

도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체험을 그린 ‘뿌리내리
기’가 선정되었다.
추가로 바라는 것은 심사위원들
이 한결같이 이같은 행사는 매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동문들이 평소의 경험을 톡톡이
글로 정리해 두었다가, 응모 시
에 잘 다듬어 옥편을 만들어 응
모해 주었으면 한다.
응모해 주신 동문여러분께 심심
한 감사를 드린다.***

<글 = 장경태 편집위원장>

게시판

제24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시 = 2015년 6월 19 - 21일
▶6월 18일(목) = Brain Network
Symposium 연사와 참가자 도착
& 저녁식사 ▶6월 19일(금) =
오전 8:30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시작 + 서재필 박사
기념관 Tour + 전야제 겸 지역
동창회 장기대회 ▶6월 20일
(토) = 오전 9:00 제24차 평의
원회의 + 제14대 미주동창회장
선거 + 저녁만찬 ▶6월 21일
(일) = 오전 11:00 전국 평의
원 친선 골프대회(서정화 총동
창회장 순회배) ▶장소 = Dou-
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Philadelphia West 640 Fountain

Road, Plymouth Meeting, PA
19462 (T)610-834-8300 (F)610-
879-4242(F) http://double-
tree3.hilton.com/en/hotels/pen-
sylvania/doubletree-suites-
by-hilton-hotel-philadelphia-
west-PHLGHD/index.html Single
bed: \$114 before tax (+1 sofa
bed) Double Beds:\$124 before
tax (+1 sofa bed) ▶예약마감 =
6월 1일. but first come first
served at the above rate ▶연
락처 = 오인환 회장(전화 301-
775-3919), 손재욱 차기회장(전
화267-736-2992) Janice Haahs
(JHaahs @ timhaahs.com)***

미주 동창회 한국학 연구지원 후원기금 모금

미주동창회가 제23차 평의원
회의(2014년 6월 28일)에서 결
의한 바와 같이 ‘서울대 미주
동창회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
에 이어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소(SNUAA Korean
Studies Institute)’라는 이름
의 Think Tank를 건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연구
하며 미국 유수의 Think Tank들
과 교류하면서 그 결과를 활용
해 한국에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
니다. 이 Think Tank의 포럼, 브
리핑,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미
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
사하도록 하며 나아가 서구 학
계의 편향된 학문적 시각을 극
복해 한국과 한민족의 시각에

서 보는 정체성 있는 새로운 학
문적 토대를 쌓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서구 학계에
서는 21세기인 현재까지도 한
국하면 일본의 식민지 혹은 중
국의 변방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모금운
동은 서울-총동창회에서도 총
동창회 회보에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10million 을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
▶한국학 연구프로젝트 팀 리
더 = 하용출 교수(외교 67),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이채진 교수(정치 55) ▶회장 =
오인환(천문 63) ▶후원금 보낼
곳 = 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

IRS감사대비 내부감사 일정과 담당 감사위원

▶감사기간 = 2015년 6월 말
100% 마칠 때까지 요청한 세금
보고자료 보내주기 바랍니다.
▶박숙 위원(Chicago,847-707-
9693 jhcspe@naver.com,) = 달라
스·록키마운틴·시카고·중부텍
사스·휴스턴 동창회 ▶김창수
위원(NY, 212-760-1768.chang-
sookimcpa@hotmail.com) = 뉴욕
·뉴잉글랜드·조지아·오하이오·
필라델피아 동창회 ▶김지영
위원(남 가 주 ,213-308-0009

jkym@yahoo.com) = 남가주·북가
주·샌디에고·아리조나·하와이
동창회 ▶노상문 위원(DC, 703-
749-1110 cpa_noh@yahoo.com) =
미네소타·워싱턴 DC·플로리다·
캐롤라이나·테네시 동창회
▶배규영 위원장(Heartland,
kybae8533@gmail.com, 913-709-
2335) = 알래스카·오레곤·워싱
턴주·유타·하틀랜드 동창회.
내부감사에 대한 문의는 배규
영 위원장께 연락바람.***

지역 동창회 소식

▶남가주 = 4월 19일 춘계 골프
대회(장소 추후 알림).
▶워싱턴 DC = 4월 4일 이사회
(오후 5시 우래옥). 4월 26일
오후 1시 골프대회(장소 미정)
▶워싱턴주 = 2월 14일 박찬형

(의대 56) 박사의 ‘뇌졸중과 심
장질환 예방’ 세미나.
▶휴스턴 = 4월 18일 김태훈 동
문 주선으로 Crawfish Boil-
ing(장소 laiborne West Park,
Vidor TX)***

지역 동창회장님들께 드리는 부탁사항

▶지역동창회 주소록을 표준
화된 Template Spread Sheet를
써서 유지해 주시고 본부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동창회를 대표하는 평
의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연
회비(\$100)를 납부해주시시오.
▶지역동창회 분담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대 김귀현 학장께서 미주
지역 음대 동문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합니다.
아직 보내지 못한 지역 동창회
는 속히 본부로 보내주시시오.
지금까지 연락처를 보내주신
지역 동창회는 DC, S. Califor-
nia, N. California, NY,
Philadelphia, Washington
State, Oregon, Dallas Texas,
Central Texas, Minnesota,Ten-
nessee,Florida, Vancouver 등
13개 지역 동창회.***

안중근 의사와 민족정신



함성택(문리대 55) CH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고문

105년 전 10월 26일 한국과 중국 인들은 안중근 의사의 일본 이토 히로부미(이등방문)살해 사건으로 그들의 민족 정신을 깨워주는 거사가 하르빈 역에서 생겼다. 중국 국민들의 대표 손문 선생은 안중근 의사를 “동양에서 제일 가는 ‘의로운 사람’ ” 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또한 안 의사의 재판에 관계했던 많은 일본 법조계 인사와 경찰, 군인, 형무소 사람들도 안 의사의 동양 평화와 사상, 그리고 그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에 감동하였다. 그의 해박한 정치적 사상과 국제관계에 깊은 이해를 가진 것에 감명했다. 또한 조선 사람에 대한 외국인들의 좋지 않은 선입감과 인상이 안 의사의 거사로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첫번째 민족의 정신을 깨우치게 한 큰 거사가 되었다. 안중근은 이어서 동양의 공동 영웅이 되었고 침략주의의 일본은 동양 평화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 당시 서양인과 일본인은 “조선 사람은 게으르고 더럽고 활력이 없는 집쟁이이며 야만인” 이라 칭했다. 또 개혁의지가 없어 한국인은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애초에 독립국 의지력도 없으며 항상 모여서 당파 싸움이나 하는 게으른 사람들이다” 라고 놀렸다.

미국의 태드 루즈벨트 대통령도 1905년 1월 ‘조선족의 무력함’ 을 지적했다. 미국은 “조선인들을 위해서 일본을 간섭할 수 없다” 라고 을사늑약 조약의 체결을 주도한 일본 공사 하야시와 같이 조선을 비웃었다. 영국의 언론인 프래드릭 메킨지도 여기에 동의했고 조선의 민족정신을 무시했다.

‘태후드 - 카추라(Taft- Katura) 비밀 조약’ 으로 이미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 외상 카추라는 어느 중국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이 멸망한 것은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한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도 조선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한국인과 중국인은 잠만 자고 있지는 않았다. 다행히 항일투쟁의 조선 의병은 계속 일어났고, 1907년부터 1910년까지 19만 1천 602인이 참여했다, 1만 7천 600여명의 의병 희생자가 생겼고 이것이 또 두번째의 민족정신을 깨우치게 한 것이다.

일본과 이토 역시 기대하지 못했던 일로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됨을 생각 못했다. 그의 만주

점령에 대한 욕망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일파인 미국인 스티븐슨(D. W. Stevens)은 재미동포 장인환과 전명은에 의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태도를 옹호했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에 대한 세번째의 조선 민족정신을 깨우치게 한 우리의 대상자였다.

다시 말하면, 1909년 10월 26일 31세의 안중근은 을사늑약의 원흉인 초대 조선통감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이것이 네번째의 민족정신을 깨우치게 한 중요한 사건이며 그 뒤 수 많은 국내와 국외 애국지사들이 한국민족의 민족정신을 깨우치게 하였다.

105년이 지난 오늘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과 여러 외교문제로 아시아의 안전과 동양 평화 문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은 한민족의 분단과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 과거의 무력함과 쓰라린 처지를 기억하게 하고 있고 장래를 우려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도 만주사변, 난징 학살사건 등 수 많은 역사적 사건으로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깨우쳤다. 1895년 10월, 일본 군대는 대만, 타이완을 함락하자 11월 타이완인들이 무장봉기해 7년 동안의 무장투쟁을 하였다. 그 유명한 항일투사 3인, 쟈다스, 커터후와, 헌사 오마사들의 거사는 중국인의 민족정신을 깨우쳤다. 10차례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1919년에는 한국에서도 민족의 거사 3.1운동이 일어났다.

한국과 타이완 민족은 일본 경찰의 공포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 일본 지도자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아직도 강력한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1910년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합병한 처사는 옳은 일이 아니다. 안중근 의사는 의병부대의 지도자로서 하얼빈에서 거사했으므로, 하얼빈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의 치외법권으로 재판권이 한국에 있음을 주장했다. 즉 안의사는 군인으로서 포로로서 재판받기를 주장한 것이다. 그는 형사범이 아닌 군인으로서 포로였음을 주장했다으나 1945년 조약에 따라 일본은 ‘외국에 있는 조선인은 일본관헌이 보호한다’ 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만주 통치기관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은 안중근 의사가 요청한 외국인 변호사도 허용치 않고, 통역인도 제대로 채용하지 않은 채 여순 감옥에서 처형하였다. 그 때가 이토가 죽은지 5개월이 되는 때였다.

후일 이 을사조약은 ‘강제로 체결된 효력이 없는 조약’ 이라 조선은 주장했다으나 양국 정부간 해석 차이로 1965년 국교 정상화에서도 그 조약 유효와 해석도 해결되지 않았다. 슬픈 것은 현재도 안 의사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토가 쓰러진 하얼빈 역에 박물관을 건축하고 그의 ‘의로운 거사’ 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래 일본은 우파들의 정책과 정부 지도자들의 망언으로 한국

“이민 선조는 말한다!”



이내원(사대 58) VA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전국 이사장 역임

얼마 전 이 지역 여러 곳에서는 우리 한인 동포 최초의 미주 이민을 기리는 ‘한인의 날’ 행사가 있었다. 나도 2003년의 이민 100주년 기념식을 비롯하여 해마다 이 기념식전에 참가하고 있다.

기념의 요지는 지난 1903년 1월 13일 한인 최초의 집단 노동이민 103명(실제 기록은 121명 중 24명이 신검 탈락으로 97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비참한 노예 노동을 견디며 자녀 교육에 힘써 지위 향상과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해피 스토리가 요지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하와이 초기 우리 이민 선조들의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산 교훈이 깡그리 빠져 있다. 기록을 보면 1910년 한일합방 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8천여 명의 하와이 한인 사회는 누계 250만 달러의 독립

과 중국인들의 민족정신과 애국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 또 다른 우월주의 침략주의의 군비증강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안중근 의사가 원

성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했다고 한다. 이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천만 달러에 해당한다니 놀라운 모금 실적이다. 오늘날 미주 동포 인구 250만 명이 1년에 1천만 달러씩 통일성금을 모으기로 한다면 5년 동안에 과연 5천만 달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민 선조들의 모금운동이 얼마나 결사적이었을까 짐작이 간다. 그래서 당시의 성금 명목을 보면 목숨 걸고 바치는 ‘혈성금’ 매달 한번씩 내는 ‘월연금’ 식구 수 대로 내는 ‘인두세’ 등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어차피 한국에 있었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니 목숨값으로 기꺼이 성금을 낸다는 마음으로 심지어 ‘일주일에 이들은 고기 안 먹기’ 를 해 가며 모두 기꺼이 모금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하와이 부인회원 41명이 모여 ‘대한애국부인회’ 를 결성하고 일차 1천500달러를 모금하여 독립지사 33인의 가족 뒷바라지를 지원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들 성금을 바탕으로 만주 독립군이 결성돼 그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헤치며 봉오동, 청산리 대첩을 이룩한 피의 독립항쟁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늠할 통일 논의라는 막중한 과업을 앞에 놓고 워싱턴 동포사회에는 동해병기 이후 일부

했던 동양평화의 근본정신이다. 즉 한국·중국·일본은 자주 독립국가로서 동등하게 서로 존중하며 그들이, 그들을 위한, 그들의 정책으로 동양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원했던 것이다.

스코필드 박사와 평생 AS 대학

김능진(경대원 72)
독립기념관장

스코필드박사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독립유공자다. 3.1운동을 주도한 33인과 함께 외국인으로 3.1운동을 적극 돕고 세계에 알린 공로로 34번째 33인으로 존경받고 있다.

그는 개신교 선교사로 일체의 압제로 고생하는 한국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의사양성에 기여했다. 세브란스 의전에서 기초의학 교수로 마침 3.1운동가들의 요청을 받아 적극 3.1운동을 세계에 알렸다. 가장 추악한 일제 만행인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은 그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세계에 알릴 수 없었다.

그는 이러한 활동 때문에 후에 일제에 의해 추방, 고향 캐나다로 돌아가 연구활동하다가 노년에도 한국이 해방을 맞자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서울대 수의대에서 제자 양성에 헌신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우리 국민 모두가 애도, 그의 삶을 칭송했고 무덤은 서울 국립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에 모셔졌다.

스코필드 박사의 기일에는 서울대에서 매년 그를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스코필드 박사의 제사를 서울대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 연세대와 국립대 서울대 모두 관계있는 분인데 국립대인 서울대가 추모행사를 정성들여 하고 있는 것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정말 보람있고 고마운 일이다.

필자는 서울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모두 같은 지도교수 지도로 학위를 받았다. 재학 중 지도교수님은 물론 관련 여러 교수님들의 따뜻한 지도에 감사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다. 거주하던 전세 아파트 주인이 전셋값을 올려 막막했을 때 은행대출 주선해주셨다든지, 지방대학 근무 중 상경하면 반드시 맥주 한 잔이라도 사주시어 돌려보내곤 했다. 어떤 피짜(?) 교수님은 처음 인사드리는 날, 고급 일식집에 데려갔고 술자리가 길어져서 너무 늦어지자 마침내 자택에 데리고 가서 재워 보낸 일도 있었다.

어찌어찌 하다가 필자가 독립기념관의 책임을 맡게 되니 지

가 개인 이기주의 성향에 기울면서 상호불신과 분열의 징조가 보여 뜻있는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민 선조들의 그 숭고한 나라사랑을 바로 우리가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동해병기로 일본을 이겼다는 자만과 과신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착각이다.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을 삼킨 후 그 침략병탄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여 억지로 일본의 아류로 편입한 영문 홍보 책자를 세계 유수의 박물관, 대학도서관에 보내어 대대적인 선전을 행한 바 있다.

일본의 침략근성은 그 역사적 뿌리가 깊고 잔인하리만치 철저하여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 위에 막강한 자본력을 기울여 미 주류 정치인을 매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이미 일부가 친일의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큰일은 극동방위에 일본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정책으로 미국이 은연 중 일본편을 들고 이를 이용하여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은밀하게 방해하려는 막후의 장벽이다.

동해병기보다 몇백배 중요한 남북통일에 또다시 일미공조라는 거대한 장벽이 잠복해 있다는 뜻이다. 이 장벽을 해소하는 데는 또다시 동해병기 때와 마찬가지로 재미 250만 한인의 결집된 정치력으로 미국의 일본공조를 차단하는 길 뿐이다.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로 단결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 해야 한다.***

안 의사는 일본이 동양평화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경제적 발전을 창조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 사실을 105년 전에 가르쳐주었다.***

도교수께서 자주 독립기념관에 찾아오신다. 독립기념관의 경치가 좋아 오신다지만 제자가 걱정돼 경치 핑계를 대고 오시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나라 최고의 경영학 구루(Guru)께서 직접 오셔서 고충을 들어주시니 경영자로서 그보다 더 든든한 일이 없다. 최고의 컨설팅을 무료로 받는 기회가 아닌가.

얼마 전에는 필자 임기가 거의 다 돼 대학의 본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평생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칭찬성 말씀을 하셨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괜찮게 해 왔잖아? 강의를 대신 맡을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해 줄 수 있어! 김 박사가 맡는 과목은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을 테니까.”

스승님은 요즘 ‘어느 특별한 재수강’ 이란 책으로 메스컴에서 크게 소개된 경영대학의 괄일수 교수님이다. 필자에게 해주신 것은 재수강 정도가 아니라 평생 애프터 서비스(AS)다.

스코필드 박사를 잘 모시는 서울대. 제자를 평생 AS하는 서울대. 이것은 세계의 대학 랭킹을 정할 때에는 점수가 되지 않는 서울대의 강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랄할 점이 많은 대학이다.***

Appomattox



이회백(의대 55)Seattle

▶1865년 3월 4일 =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날 그의 두번째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영문 그대로 옮긴다.

“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

▶1865년 3월 28일 = General Grant의 Floating Commanding Post 인 Union Steamer, River Queen에서 링컨 대통령은 Lt. General Ulysses S. Grant, Maj. General William Tecumseh Sherman, 그리고 Rear Admiral David D. Porter와 만난 자리에서 “반군이 무기를 놓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 미국시민으로 환영해야 된다” 고 말했다.

1861년 링컨을 처음 만나본 Sherman은 그를 연약하고 당파적이고 대통령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정치인 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두번째 그를 만난 후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 훌륭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와 인간성을 가장 많이 갖춘 사람이었다” 고 평가가 달라졌다.

미주리주 하원의원을 지낸 James Symington은 “링컨은 양쪽을 다 보는 통찰력을 가졌기에 남북전쟁(미국에서는 Civil War라고 하나 우리에게 익숙한 남북전쟁이라고 하자)중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지내야 함을 명심했던 사람” 이라고 말했다.

▶1865년 4월 9일 = 이틀 전 General Grant로부터 더이상 피흘리지 말고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받은 General Lee는 이를 거부해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길을 찾았으나 길이 없음이 분명해지자 Grant에게 항복조건이 무엇인지 의논하자고 편지를 보냈다.

이때 Grant는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자마자 두통이 사라졌다. 그는 아무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부하에게 크게 읽으라고 했다.

그는 즉시 Lee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를 읽어본 Lee는 예상치 못한 회담에 놀랐다. 회담 장소를 전쟁에서 패한 자기에게 정하라는 것으로 그는 즉시 적당한 회담장소를 물색했다.

그 때 그가 포위당한 장소는 당시 Confederate수도였던 Virginia주 Richmond의 남쪽 Petersburg와 서쪽 Lynchburg 사이의 Appomattox 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스무개 정도의 집이 있었는데 처음에 고려한 집은 너무 허술해 다시 물색한 결과 Wilmer McLean 이란 사람의 집이 선택되었다.

마지막othe 승락한 집 주인 Wilmer McLean은 원래 남북전쟁 첫번째 전투지였던 Manassas근처에 살았

는데 전쟁 한복판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살려고 이곳으로 이사해왔다. 그런데 그의 Manassas집은 남북전쟁의 첫 신호탄이 된 Fort Sumter포격시 그곳 사령관이었던 Brigadier General P.G.T. Beauregard가 Manassas전투(Union측에선 First Bull Run이라 부름)때 본부로 쓴 집이었다. 따라서 Wilmer McLean의 두 집은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끝내는 묘한 운명의 집이 됐고 지금 Appomattox에 있는 집은 Appomattox Court House National Historical Park가 생기면서 2008년 재건한 집이다.

General Lee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쑥한 새 군복에 조각문의가 새겨진 칼을 차고 있었다. 그는 포로가 될 것으로 예상,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적에게 허술하게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장한 것이다.

30분 후 나타난 General Grant는 대조적으로 작전지역에서 입던 옷 그대로 와서 구겨진 옷에 진흙이 얼룩져 있었다. 아무 무기도 소지하지 않은 그는 어깨에 달린 퇴색된 계급장만이 간신히 그가 장군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을 사이가 없어 무례하게 됐노라고 사과했다. 한쪽

“처음엔 90일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남북전쟁은 4년이 걸려 62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후 Appomattox에서 사실상 끝났다. 당시 인구가 총 3천100만이었다”

은 패한 장군, 한쪽은 승전 장군임에도 표정은 똑같이 슬픔에 잠겨 있었다. Grant가 먼저 자기가 Mexico 전쟁 때 그를 본 기억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Lee는 “그랬던가?” 하면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런 사적 이야기가 오고가다 Lee가 먼저 사무적 논제를 끄집어냈다. 항복조건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고 물었다.

첫째, 장병 전원의 명단을 두벌 작성해서 하나는 자기 편,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보관할 것.

둘째, 다시는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선서를 할 것.

셋째, 모든 무기와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옮겨 우리가 임명한 장교에게 바치라고 했다. 그러나 장교의 개인용 무기와 말, 그리고 개인 휴대물은 이에 포함치 않는다고 했다. 이를 이행한 후면 언제 귀가해도 되고 이 요구 조건을 지키고, 지나가는 지방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아무도 연방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General Lee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관대한 것이었다. 아무도 포로로 가두거나 반란죄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또 이제 당신네 사병들은 집에 돌아가면 다가오는 봄 경작에 필요할테니 말도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Grant는 Lee에게 휘하 병사들 수와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Lee는 지금 병사 수는 자세히 모르나 굶주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Grant가 2만 5천명 분의 ration을 보내겠다고 하자 Lee는 “그것은 우리 병사들을 매우 즐겁게 해줄 것이며 앞으로 남북이 화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런 회담내용을 기록하고 내용을 피차 확인했다.

항복문서에 서명을 마친 Lee가 회담장소에서 나와 말에 올라 자기 진지로 향하자 북부군들이 환호성을 올렸다. Grant는 “그들은 이제 우리의 포로로 그들의 패배를 즐길 때가 아니다. 전쟁은 끝났다. 그들은 다시 우리 국민이 되었다” 고 말했다.

다음 날 정식 조인식을 갖고 사열식을 하게 되었다. 북부 Joshua L. Chamberlain장군이 이 역을 맡게 되었다. 그는 Gettysburg, Petersburg 전투에서 여섯군데나 다쳐 살아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장군이다.

남부군 John B. Gordon장군이 그의 앞을 지나가고 뒤 따라 Northern Virginia Army의 유명한 Stonewall Brigade가 지나가자 Chamberlain은 패해서 가는 그들을 향해 경례할 것을 자기 군병에게 명령했다.

이에 답례해 Gordon은 말을 돌려 Chamberlain을 향해 그의 칼끝을 그의 발끝에 갖다대면서 답례했다. 후에 General Gordon은 General Chamberlain을 최고의 기사도를 갖춘 장군이라 극찬했다. Lee는 항복 당시 Grant가 배운

man도 Johnston이 항복하자 Grant에 못지 않은 관용을 베풀었다.

Sherman은 전후 전혀 정치에 관여치 않고 끝까지 군인으로 남아있다가 은퇴했다. 은퇴 후 그는 Johnston과 자주 만나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1891년 2월 14일 71세로 뉴욕에서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날은 비가 내리고 몹시 추웠다. 모자를 벗고 비를 맞으며 서 있던 Johnston의 건강을 염려한 주위 사람들이 “장군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모자를 쓰시지요” 하자 “오늘 나 대신 그가 이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그도 모자를 벗었을 것이요” 하고 듣지 않았다. 그날 든 감기가 폐염이 되면서 17일 후 그도 친구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1865년 4월 14일 = Good Friday, Fort Sumter에선 국기 게양식이 거행, 대통령령으로 전국에서 축포가 터진 기쁜 날이다. 4년 전 이날 내렸던 그 국기가 그때 내렸던 Major Robert Anderson에 의해 지켜보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게양됐다. 그러나 가장 기뻐한 이 날은 그날 저녁 가장 슬픈 날이 됐다. 링컨 대통령이 Ford 극장에서 ‘Our American Cousin’ 이라는 희극을 관람 중 John Wilkes Booth가 뒤에서 쓴 총에 쓰러졌다. 총탄은 목을 뚫고 바른쪽 눈에 박혀 아무 손도 못쓰고 다음 날 아침 56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제2차 취임식 후 43일도 안된 날이었다. 부통령인 Andrew Johnson도 다른

범인이 암살을 계획했으나 범인이 겁을 먹은 덕에 면했고 국무장관이던 William Seward는 그의 아들과 함께 칼에 찔려 중태에 빠졌으나 살아났다.

William Seward는 링컨을 이어 대통령이 된 Andrew Johnson의 국무장관으로 유임하면서 2년 후(1867년 3월 30일) Alaska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acre당 2센트)을 주고 사는데 주역을 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비싸게 산 바보, Seward’s folly, Seward’s Ice-box’ 로 놀림받은 사람이다.

▶1865년 4월 26일 = 암살범 John Wilkes Booth가 수색대원에 의해 사살됐다. 그는 백인우월주의 신봉자로 흑인을 노예제도에서 해방한 링컨을 용서할 수 없었다. Lee의 항복 후에도 그는 자기가 링컨을 제거하면 아직 항복하지 않고 남은 남군이 쫓겨, 승리하리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링컨을 죽인 열흘 후 Johnston의 군대도 항복함으로써 그의 꿈은 사라졌다. 그는 “Useless, Useless” 란 말을 남기고 죽었다.

▶1865년 4월 21 ~ 5월 3일 = Abraham Lincoln의 영구 열차는 그가 4년 전 Springfield를 떠나 워싱턴으로 향했던 길을 더듬어 천천히 움직였다. Philadelphia에서는 Independence Hall에 영구가 안치되었다. 이곳은 4년 전 암살당할 것을 예상이나 한 듯 “... But if this country cannot be

saved without giving up that principle, I was about to say I would rather be assassinated on this spot than surrender it” 라고 말한 바로 그 장소로 1천654마일을 열이틀에 걸쳐 Springfield에서 도착했다.

▶1858년 6월 16일 = “A House divided in itself cannot stand” 라면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때 연설한 바로 그곳에 돌아왔다. 자신은 쓰러졌으나 집은 바로 세우고 돌아왔다. 아홉살 때 죽은 링컨의 어머니를 대신해 링컨을 키운 Sarah는 그가 워싱턴을 향해 떠날 때 가졌던 예감 - 다시는 살아있는 그를 못보리라는 - 이 현실로 나타나 호느꼈다.

▶1865년 11월 10일 = Andersonville 포로수용소장 Henry Wirz가 인류에게 저지른 잔학행위의 죄명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Camp Sumter로 불렸던 이 악명높은 포로수용소에서 죽은 북군포로들의 수는 후에 미 적십자 창시자가 되고 남북전쟁터의 천사로 불린 Clara Barton의 조사결과 1만 2천 912명으로 집계됐다.

Henry Wirz는 교수대에서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 이라 항변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Atlanta에서 Savannah로 진격하던 중 Andersonville 포로수용소를 지나다가 병들어 신음하고, 굶주려 피골이 상접해 산송장이 된 전우들을 본 Sherman군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1913년 6월 1~3일 = 50년 전 1863년 6월 1~3일 벌어졌던, 양쪽 합해 4만 6천명의 사망자를 낸 Gettysburg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Pennsylvania주 Gettysburg에 모여 사흘을 지내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부는 회색, 북부는 푸른 전투복에 군모를 쓰고 나와 싸웠던 진지를 가리키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장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과거는 즐거운 것, 팔을 잃고 다리를 잘린 그들도 남의 일인 듯 웃으며 이야기했다. Cemetery Hill을 향해 남부군이 함성을 지르면서 돌진(?)했다. 위에 있는 돌담에서 이를 지켜보던 북부군은 감정이 솟구쳐 담을 넘어 남군을 향해 구르듯이 내려와 서로 잔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1914년 2월 24일 = Gettysburg의 영웅, Appomattox에서 General Lee의 Northern Virginia Troop의 항복식 사열을 받았던 General Chamberlain이 죽었다. 그는 원래 Maine 주 Bowdoin 대학의 교수였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지원병이었다. 그는 수학과 과학을 빼놓고는 전 과목을 가르쳤으며 영어 외에 9개 국어(히랍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라틴어·이태리어·히브리어·아랍어·Syriac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탁월한 교수였다.

전 후 그는 다시 Maine에 돌아가 4년간 주지사를 지낸 후엔 다시 모교 Bowdoin College에서 1871년부터 1883년까지 총장으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퇴임, 1914년 2월 24일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총장 재직 중 수학 외에는 전 과목을 강의했다고 전한다.

<7면에 계속>

건강 칼럼

재미 한인동포에 유독 많은 암
별도의 해결방법을 찾자



박찬형(의대 56) WA
MD.Ph.D. FACP. Professor of
Emeritus Sungkyunkwan Uni-
versity Medical School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필자를 포함한 우리 재미 한인 동포에게 말입니다. 대부분의 병이 현대의학으로 정복될 수 있는데(한국과 일본에서 그렇듯) 이곳 미국에서는 안 된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에 유별나게 많아** = 더 답답한 것은 우리 동포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한국인에게 희귀병이 아닙니다. 아니 그 반대로 치명적 암 중 1-2등을 다투는 병입니다. 우리처럼 미국에 사는 한국인도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거의 같은 높은 발병 빈도가 확인돼 있습니다.

미국 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 주관으로 7명의 미국 학자(한국학자 불포함)가 California거주 동양 5개 민족(한국·일본·중국·베트남·필리핀)을 미국 백인과 비교 역학조사한 결과 한국인에게 이 암이 유별나게(singularly), 월등히(by far) 발병빈도와 사망률이 미국인에 비해 높고 일본·중국·베트남·필리핀 등 4개 민족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학자가 Chicago 지역 한국인을 미국인과 비교 연구한 결과도 같습니다. 이 암은 미국인에게는 희귀병이기 때문에 미국의 14대 빈발 암에 들지 않을 정도니 사망률이 높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암이 바로 위암입니다. 이외에 또 한 가지 병(간염 및 간암, 간암은 대부분 간염에서 유래)도 비슷하지만, 위암만큼 분통이 터질 정도는 아니니 우선 위암부터 살펴보죠. 먼저 남자 발병률을 봅시다<도표 1 참조>.

미국 거주 한국남자의 발병률(인구 10만명당 매년 54.6 명)이 한국 거주 한국남자의 발병률(69.6)보다 적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통계 오차범위내지요. 여자 쪽은 미국거주 한국여자의 발병률(27.5)은 오히려 한국 거주 한국여자의 발병률 (26.8)보다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 일단 발병했다면 5년간 생존할 확률(%)이 도표 2에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통계연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미국인 경우 2003~2009년인데 한국은 그 후인 2007~2011년이니까요. 반대로 일본은 더 전인 2003~2005년인데도 미국보다(29%) 훨씬 많이(63.3%)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보죠. 사실 일본의 위내시경 technology의 창시개발(30~40년 전 시작)과 일본 의학자의 초창기 pioneering 노력에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암을 근치 가능한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그후 한국 의학자들 역시 피나는 노력으로 일본 의학과 경쟁해 지금은 막상막하입니다. 우리 한국 의학자들에게 또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도표로 돌아와서, 미국의 생존률(29)과 맞먹을 한국의 생존률은 도표에 있는 한국생존률

(69.4)과 일본생존률(63.3)의 중간치(66.4)쯤이겠습니다.

▶**발병률과 생존율** = 결론적으로 위암 뿐 아니라 무슨 병이든 두가지 빈도가 중요하지요. 그 병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하는 발병률과, 발병 후 그 병에서 살아 남을 가능성 즉 생존율이지요.

첫번째 도표는 발병률, 두번째 도표는 생존율입니다. 이 둘을 연계해보면, 한국 거주 한국인은 위암 발병률이 높지만 생존율이 높아 그런대로 수용하겠고, 미국 거주 미국인은 생존률이 낮지만 발병률도 낮아 그런대로 납득한다고 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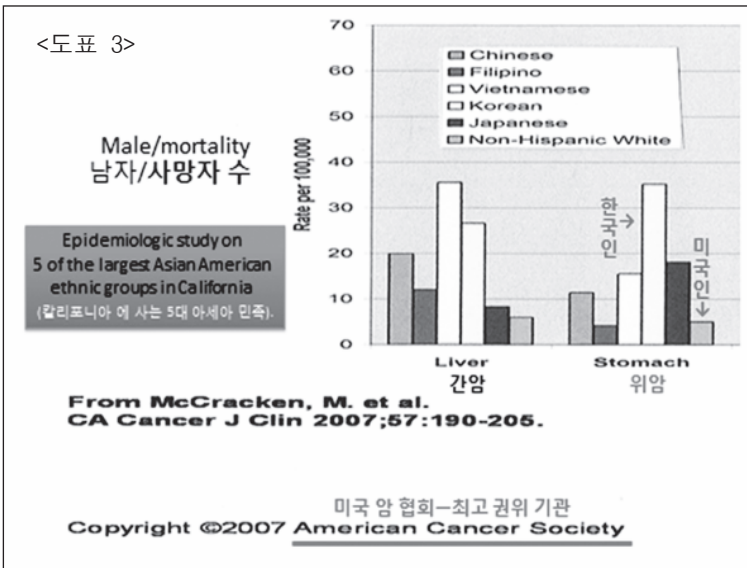
그런데 미국 거주 우리 한국인은 발병률은 높은데 생존률은 낮으니(미국 관용어로 double jeopardy) 결국 사망자 수가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도표 3에 이 사망자 수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미국의 암 치료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도표 2에서 ‘모든 암 생존율이 미국 68%, 한국 66.3%, 일본 58.6%) 특히 전립선암에서는 유례를 볼 수 없는 100%입니다.

‘혹시 한국인은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 미국에 살아도 위암 사망률이 낮지 않을까?’ 는 맞지 않습니다. 도표 3으로도 알 수 있지만 미 정부(per SEER/NCI) 자료를 보면 간접적으로 나와 있고, 특기할 것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30~40년 전에는 현재 미국과 같이 사망률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암만 DNA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국민 전체가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요? 미국처럼 첨단 의학이 발달해 새 치료법이 개발되고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나라에서?

▶**미국인 위암 전문의 밥 벌어 먹기 어려워?** = 두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학 연구개발 활동에서 물론 아시아가 구미보다,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 낙후, 후발이었으나 지난 30~40여년간의 필사적인 경쟁(의사, 의학자간 경쟁, 병원간 경쟁),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모든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면에 위암이 미국에서 희귀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전문으로 치료 연구하려는 의사(의학자)가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서도 아주 잘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로 유방암 조기진단과 근치를 위해 유방 X-선 촬영을 매년 거의 반강제적으로 실시해 많은 여성들의 사망을 막고 있습니다. 위암 사망 예방을 위해 위내시경을 자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지요.

▶**간염에서 간암으로** = 위암 외에 잠깐 전술했듯 또 한가지 문제의 병은 간염 및 간암입니다. 간염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간염(여러 가지가 있으나 동양인에게는 B형 간염)에 걸리면 그 후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20%나 되고, 간암 환자의 70%가 간염에 의해 유발되니 이 비극을 막으려면 간염부터 막아야겠지요. 도표 3에 위암과 대조돼 나와 있습니다. 위암

나 유방 X-선 촬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암들은 암이 진행돼 증세가 나타날 때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 불능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이나 유방 X-선 촬영이(아무 증세가 없더라도) 미 의료계와 정부, 모든 보험회사에서 인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암을 위한 위내시경은 인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미 연방 정부 산하의 보혁관장 기관(CMS)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자가 처음 노력한 것은 필자가 거주하는 Washington주의 상원의원(Patty Murray)에게 탄원한 것이었습니다(2008년도인데 성과가 없었음). 그후,

가) 2012년 2월11일 서울대병원 후원으로 ‘재미 한인동포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라는 주제로 San Francisco 한인회관에서 필자가 presentation.

나) 같은 해 7월 7일 재미 한인의사협회(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KAMA) Los Angeles Annual Convention 에서 이 문제를 필자가 조직한 Symposium ‘Health Disparity Forum’을 통해 7명의 의학과와 토의. 한국에서는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병원과 삼성의료원이 참가.

다)현재 진행되는 3가지 노력,

1)한 위암의 Advocacy Group(Debbie’s Dream Foundation: Curing Stomach Cancer)가 지난 2월 27일, Washington, DC의 Capitol Hill에서 위암치료 연구에 연구비 지원 증액을 보건복지위 소속 Federal Representatives/Senators에게 lobby/presentation. 필자도 초청받았고, 도표 2를 이 group 회장이 개회사 때 보이라고 요청(이 group은 거의 백인 위암 환자로 구성. not necessarily race-based discrimination).

2)미국 임상 암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막강한 영향력)에 필자가 꾸준히 상의. 여기서 여러 소수 민족의 높은 사망률을 낮추려 노력 중(예로 흑인의 유방암, Hispanic의 전립선암 등). 필자의 요청으로 ASCO 회장과 staff들이 이 위암 문제도 다루겠다고 약속한 뒤 3자 conference call discussion(10월 31일 ASCO, Advocacy group과 필자). 이 결과 ASCO 회장이 곧 미국 정부 암 총괄기관(National Cancer Institute)과 협의키로 약속. 이것이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7면에 계속>

“미국거주 미국인은 생존률이 낮지만 발병률도 낮은데 미국거주 한국인은 발병률도 높고 생존률은 낮으니(double jeopardy) 결국 사망자 수가 월등히 높죠”

아주 드물고 열기도 아주 낮습니다. 심지어 미국 의사에게서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위암을 전공하면 밥 벌어 먹기도 어렵다”고 말이지요. 모든 것은 필자가 2개국의 철저한 경험으로 터득한 것입니다(미 의과대학의 혈액종양내과 과장 겸 암 center장 등 30년, 한국 삼성의료원의 창립 혈액종양내과 과장 겸 암 center장 7년).

이상은 큰 틀에서 본 이유이고, 더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높은 숙련도와 첨단장비를 겸한 위내시경 검사를 대다수 국민이 매년(또는 격년) 받고 있으므로 대부분 위암이 근치 가능한 초기에 발견돼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미국에서는 많은 위암이 근치 불가능한 말기에 발견되므로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a)미국정부, per SEER/NCI(published by ACS, Jan. 7.2014) (b)한국 정부, released by Korean Central Cancer Registry/Korean Government, Dec. 26. 2013. (c)일본정부, released by Center for Cancer Control and Information Services, National Cancer Center Monitoring of Cancer Incidence in Japan - Survival 2003-2005, report 2013.

<도표 2> 암 발병 후 5년간 생존율			
	미국(a)	한국(b)	일본(c)
연도	2003~2009	2007~2011	2003~2005
모든 암	68	66.3	58.6
전립선 암	100	92	93.8
위암	29	69.4	63.3
간암	18	28.6	27.9

<도표 1> 위암 발병률 (per 100k population)		
	남자	여자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사람 #	9.5	3.8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사람@	69.6	26.8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사람 # (우리)	54.6	27.5

자료: # American Cancer Society, 2002/2007
@ UN Globocan/WHO, 2002/2004 (2008/2010)

시사 칼럼

미 NBC-TV 거짓 보도한
스타 앵커의 하차



조화유(문리대 61) VA
저술가·전 조선일보 기자

미국 3대 지상파 TV의 저녁 뉴스 가운데 가장 시청률이 높은 NBC 저녁 뉴스(Nightly News)의 앵커 Brian Williams가 지난 2월 9일부터 TV화면에서 사라졌다. 연봉 200만 달러의 스타급 앵커인 그가 12년 전 이라크 전쟁 현지 취재 당시 거짓 보도를 한 사실이 뒤늦게 탄로났기 때문이다. 그는 ‘적의 지상포 공격을 받고 추락한 미군 헬리콥터에 자신이 타고 있었다’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추락한 헬리콥터가 아니라 뒤따라간 헬리콥터에 타고 있었다’고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최근 미군 신문을 통해 폭로했다. 윌리엄즈 자신은 이를 시인하면서 “착각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윌리엄즈는 카트리나 태풍 때도 일부 과장보도를 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쯤 되자 NBC 방송사는 그를 앵커 자리에서 일단 내려오게 하고 자체조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가 다시 주 5일 하루 930만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하는 앵커 자리를 돌아올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신문(언론)의 정확성은 여자의 정조와 같다(Accuracy is to a

newspaper what virtue is to a lady)’라는 영어 격언이 있다. 여자는 정조가 생명이고 언론은 정확성이 생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의도적 오보를 매우 중대한 반칙으로 간주한다. 몇년 전 워싱턴 포스트의 한 여 기자는 8세 어린이 마약 중독자에 관한 장문의 기사를 쓰고 폴리처상까지 받았으나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 폴리처상도 취소되고 쫓겨난 일도 있다. 이 여기자의 이름은 Janet Cooke인데 당시 코미디언들은 ‘Janet cooked her story(자네트가 기사를 조작했다)’고 농담을 했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유명 정치인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우선 생각난다. 그녀는 2008년 오바마와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자신은 ‘외교 경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인 1996년 보스니아 전쟁 중 딸 첼시를 데리고 보스니아에 간 일이 있는데, “공황에서 적의 저격수가 쏜 총알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자동차로 달려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경선 연설에서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언론사가 당시의 현장 비디오를 발굴, 그 때 비행장은 고요했고 힐러리 모녀가 머리를 숙인 것은 저격수의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를 타기 위해 머리를 숙인 것으로 드러났다. 머쓱해진 그녀는 “내 기억이 잘못되었다. 나도 사람이라 실수를 했다”고 변명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녀는 오바마에게 대선 후보

삶의 단상

미국 속의 제 갈길



강신용(사대 73) CA
회계사(CPA) · 수필가

6천미터 하늘에서 땅 위를 내려다 본다. 흑백 사진 같은 땅 위로 선들이 선명하다. 흰 선은 산길이고 검은 선은 물길이다. 겨우 수천미터 위에서 그 잘난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조지아에서 공부하는 아들놈을 보고 왔다. 갈 때는 머릿속에 자나 깨나 그 높 걱정 뿐이었는데 곰곰 생각하니 그 높의 팔자에 역마살이 끼었나보다. 혹시 우리 사주팔자에 바코드가 찍혀 있나 걱정한다. 백화점에 널린 수많은 상품들이 자신의, 자신을 위한 바코드로 자신을 품고 있다. 기계로 찍힌 유별난 암호도 해독기에 들어가면 고스란히 자신을 노출한다. 출생의 비밀과 이름에 걸 맞는 값어치까지 속속들이 밝혀지는 것이 바코드의 팔자소관이다. 구글이라는 컴퓨터 회사의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한다. 혹시라도 창조주께서 만드신 탄생의 비밀이 탄로 날까 걱정된다. 어머니는 매년 초 토정비결을

보았다. 눈으로 보고 읽는 길흉화복 1년 신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음이 갔나보다. 미력한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토정 선생의 비책에 기대는 것이다. 토정비결의 점괘는 매년 비슷하다. 여름에는 물조심, 가을이면 불조심, 사람과는 구설수에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인간은 땅의 자식이고 땅은 하늘 밑에 있으니 토정은 미약한 인간을 미신처럼 가르치고 있다. 너나없이 한 번 쯤은 팔자타령을 한다. ‘모든 사람들은 사주팔자대로 산다’고 한다. 누구나 팔자 한 번 고쳐서 잘 살고 싶어 한다. 흥부같이 팔자 한 번 제대로 고치는 경우는 복권이 최고다. 아니면 시집 장가 잘 가서 신데렐라가 되는 것도 방법이다. 흥부 집 제비한테 선을 배풀어 부자가 되듯이 현대에는 친구를 잘 뒤야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것 같다. 사주에 없는 팔자 덕에 추풍낙엽처럼 질 때 지더라도 별처럼 왕처럼 살고지고 싶어 한다. 피케티의 경제학이 유행이다. 조상 덕에 자손대대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피케티 교수 이야기다. 하버드 대학생의 부모는 미국 최상위 2% 소득층이라고 한다. 똑똑한 자식이 돈 많은 부모까지 두었으니 거칠 것 없는 계층이다. 아들에게 좀 미안하다. 보스턴으로 못 가고 애틀랜타로 간 것은 대물림을 못한 탓이다. 팔자는 조상 따라 간다고 피케티 교수는 단언한다.

도사를 만나러 열 시간을 운전했다. 동부의 프리웨이는 울창한 산림 속에 묻혀 있었다. 뉴저지에 사는 용하다고 소문난 김 도사를 만나러 밤길을 열 시간이나 달렸다. 팔자 한 번 짚어보려고 몸이 비틀리고 다리가 저려도 은근과 끈기로 참고 참으며 길은 외길 숲길을 달렸다. 하마터면 졸다가 황천에 먼저 갈 뻔도 했다.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고 도사 앞에 앉으니 초라한 물골만큼 점괘가 나왔다. 옛날에 어머니가 말하던 토정비결과 비슷한 “하지 말라” “조심해라” 꽤와 너무 닮았다.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멀었다. 장장 열다섯 시간이 걸렸으니. 대낮의 프리웨이는 출구의 연속이다. 한 번 쯤 exit하고 싶은 술하게 많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보지 못한 식당 이름하며, 아름다운 공원과 호수들이 자랑하듯 줄지어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곳에 살고 싶은 충동이 든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생긴다. 모두가 눈요기뿐이지만 머릿속에 요상하게 춤추며 지나간다. 갈 길이 멀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이라 했던가. 땀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계기판의 연료통이 빌 때까지 달린다. 산티아고 순례 길은 800킬로라고 한다. 야고보의 무덤까지 순례자처럼 걸어서 한 달이 걸리는 길을 미니밴으로 다녀왔다. 무뇌자의 심정으로 두리번 두리번 경찰차를 조심하며 용하다는 도사를 만나고 왔다. 손금에 쓰인 인생길을 묻자고 두둑하게 복채를 내고 왔다. 아직도 제 갈 길을 못 찾고 있나 보다. 길은 외길 한 길 뿐인데.... ***

자리를 빼앗겼다.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민주당의 화합을 위해 그녀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이번엔 그녀가 진짜 외교경험을 가지게 해주었다. 그녀는 내년

민주당 대선 후보경선에 다시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00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존 케리(당시 상원의원)는 주 예비군 공군장교 출신 조오지 부시

공화당 후보와 달리 자기는 베트남 전쟁에 해군으로 참전, 쾌속정을 타고 베트남 소탕작전에 참가해 용감히 싸우다 부상당해 무공훈장과 부상병 훈장을 탄 것처럼 말했으나 다른 참전 해군 장병들의 증언으로 케리의 주장은 상당 부분 거짓말로 드러났었다. 그의 상관이었던 한 해군 장교는 케리가 한 번은 수류탄을 던지다 실수해서 손목이 조금 굽힌 걸 적의 공격으로 부상당한 것처럼 과장하여 부상병 훈장을 신청했으나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보수파로부터 ‘가짜 전쟁 영웅’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케리는 부시에게 대선에서 패배하고 상원의원으로 돌아갔다가 재작년 힐러리 클린턴 후임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6면에서 계속>
3)특기할 것은 이곳 Seattle 지역에서 하기 여러 단체들과 여러 의료인들이 단합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곳 우리 한인 동포들이 주동이 되어 활발한 의료 봉사활동을 하는 ‘Cornerstone Medical Services’가 주동이 되고, KAHPA-Korean American Health Professional Associ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niversity, Fred Hutchinson Cancer Center, Private Gastroenterology Practice 등의 한국인 의료인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곳 주정부, 한국 총영사관, 한국과 다른 아시아 민족의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해 8월 22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지요. 이 운동이 New York, LA, Chicago, Atlanta 등으로 확산되고, 여러 한인 사회단체와 주미 한국정부 대표 기관들이 적극 지원 하면서, 또 재미 한인 의사 협회(KAMA, 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주 업무가 되면, 미국 정부를 움직여서, 위내시경도 유방 X-선 촬영처럼 매년 보험에 Cover되게 할 수만 있

다면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라)상기 세가지 노력이 언제 결실이 될지 모르니까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중세가 없을 때도 위내시경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중세가 있어도 해야 하지만 완치가 능력을 이미 놓쳤을 수도 있음. 유방 X-ray 매년 하는 것과 같음). 미국 몇몇 큰 도시(NY, LA, Atlanta, Seattle 등)에는 대부분 위내시경을 많이 하는 한국인 의사가 있고 이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가지고 가서 상의해보세요, 많은 비용(하기 참조)를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인 의사라도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2세 한인 의사는 도움이 안됩니다. 참 웃지 못할 경험은, 미국의 명문 의과대학을 나온 미국 의사에게 의논을 하면 면박만 당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인 사정을 모르니까요.(무조건 안 해줍니다. 강제로 해달라면 보험에서 cover가 안되니까 평균 3천500달러 정도가 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한국 건강검진하는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만 하고 오는 것입니다. 왕복 비행기 값이 더 들지만, 위내시경 비용은 훨씬 덜 듭니다(300 ~ 400달러 정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비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와 한국에 나가면 복부 초음파(주로 간 질환)도 해 볼 것을 권합니다. 건강검진에서 하는 다른 여러 검사들은 여기서도 다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사실려면, 그리고 여기 보험이 있으면 여기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응급 상황이 일어나면, 과거 검사 자료가 즉시 필요 아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 한 모든 검사 결과는 반드시 영문으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마)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한국의 의료계가 이 위암을 중점으로 (또 한 가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월등히 잘 하는 간염·간암·생체간이식 - 하기 첨부 참조 - 도 포함) 미국에 진출하면, 많은 한인 동포를 살리면서 동시에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미국과 전세계에 알릴 수 있고, 그 여파로 많고 좋은 국가적 실리를 거둘 수 있을 터인데. 한국에서 무엇이든지 모두 더 잘 한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

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는 현재 한국의 의료계(대형병원, 학회 등)와 정부(KHIDI 등)가 나서서 여기서 노력하는 여러분과 협조하여, 상기 ‘다) 현재 진행되는 3가지 노력’에 주도적이고 협조적인 역할을 하여, 한인 동포의 많은 생명을 살리면서 동시에 한국 병원과 의료계의 세계적인 홍보와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하나는 한국계 병원의 특화 분원(分院, 위암과 간암만 취급하는)을 미국에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첨부 = Seattle에는 골수(骨髓)이식(혹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개척하여 Nobel상을 받은 암 center가 있고, 이 center가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활발한 암 center들 중 하나인데, 아직도 생체 간 이식을 못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지방에서도 대학병원에서는 생체 간 이식을 하고 있음. 미국의 대형 대학병원에서 이식전문 외과의사들을 한국의 대학병원에 파견하여, 배워오고 있음.***

<5면에서 계속>
그의 죽음은 Civil War때 받은 상처 때문으로 관정되어 미 남북전쟁 때 전사한 최후의 군인으로 기록되었다. 그가 죽은 날이 진짜 남북전쟁이 끝난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 ▶1938년 6월 1-3일 = Gettysburg 전투 75주년 기념식에 당시 싸웠던 남북 군인들이 다시 모였다. 90살이 다 넘었고 100을 바라보는 노인들이 Cemetery Hill 돌담을 사이에 두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는 크게 웃으며 식을 마쳤다. 그리고는 붉게 넘어가는 해를 뒤로 하고 헤어졌다.***

모교 소식



모교 중앙도서관 ‘관정관(冠廷館)’ 준공 국내 최대장서·규모의 대학 도서관, 지성의 산실

이종환 이사장 600억원 기부로
현실화, ‘도서관 친구들’ 모금
캠페인에 700여 명 참여

모교(총장 성낙인)는 지난 2월 5일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로비에서 성낙인 총장,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이종환(AMP 7기)이사장, 삼영화학 이석준(ALP 9기)회장, 이수성(법학 56 - 61)전 국무총리, 보직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상 8층, 연면적 2만7천245㎡(8천241평)규모로 건립된 이 관정관은 열람실을 비롯해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 플라자, 콘퍼런스룸, 패컬티 라운지 등 첨단 시설을 갖춘 이용자 맞춤형 공간이다.

자료 중심 서비스 공간인 본관(기존 중앙도서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신축 관정관과 본관(1975년 건립)을 합한 모교 중앙도서관은 연면적 5만7천747㎡(1만7천468평), 열람실 6천여 석을 갖춰 장서와 면적을 통틀어 국내 대학도서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관정관의 이름은 모교의 숙원이었던 도서관 신축을 위해 국내 대학 사상 개인 최고 기부액인 6백억원을 쾌척한 관정 이종환 이



↑ 지난 2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절단식을 했다. 좌로부터 한반도평화재단 한화갑 총재, 삼영산업 양문희 본부장, 삼영화학 이석준 회장,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이종환 이사장, 성낙인 총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유종필 관악구청장, 임지향 중앙도서관장, 김종서 교육부총장. 모교는 중앙도서관 관정관을 준공함으로써 옛 중앙도서관을 포함해 연면적 5만7천747㎡, 열람실 6천여 석으로 국내 최대 대학도서관을 갖게 됐다.

사장의 호를 따와 명명했다. 삼영화학 그룹을 창립한 이 이사장은 지난 2000년 사재 10억원을 출연해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설립, 총 8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장학재단으로 성장시키며 연간 120억원 규모의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밖에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 일반 시민 등 700여 명이 총 100억 원이 넘는 도서관 신축 기금을 기부했으며, 관정관 내부 공간과 의자, 서가 등 가구에는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이날 준공식에서 성낙인 총장은 이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도서관 로비에 이 이사장의 흉상을 제막해 뜻을 기렸다.

이 이사장은 축사에서 “모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학구열을 불태울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관정의 백절불굴의 집념이 도서관 곳곳에 배어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정관은 내부 단장 후 2월 23일 개관했다.***

<모교 동창회보>

모교 올해 등록금 0.3% 인하

최근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모교 서울대는 지난 1월 6일 제3차 등록금 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2015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0.3% 인하하기로 했다. 국립대학법인으로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심의 결과는 재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화여대는 올해 등록금을 2.4% 올리겠다고 예고했다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화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결정이다.

황 장관은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반값 등록금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황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등심위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을 위한 정부의 취지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등은 지난 2월 현재 결정하지 못했다. 고려대는 2012년 2%, 2013년 1% 인하했으나 지난해에는 동결했고, 성균관대는 최근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62개 대학의 학생 4만2천6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의 교수·학습 질제고 전략 탐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전반적으로 수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4.3%로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동아일보>

물리천문학부 김대식 교수

“위생 위해 포경수술? 틀린 말”



‘바로알기 연구회’ 국내 손꼽히는 물리학자지만 어릴 때부터 포경수술에 관심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보편화”

“초등학교 시절 내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포경수술을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모교 김대식(52)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국내 손꼽히는 물리학자다. 서울대 학술연구상(2012년), 한국과학상(2013년) 등을 수상했다. 2005년 물리학 분야 국가석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물리학 외 다른 분야에서도 국제학술지(SCI)에 논문 4편이 실렸다. 논문 주제는 ‘포경수술’. 영국 비뇨기학회지에 한국의 포경수술의 실태에 대한 논문 4편(1999년, 2001년, 2007년, 2012년)을 실었다.

김 교수는 최근 ‘포경수술 바로알기 연구회(포바연)’와 함께 ‘포경유감’이라는 책을 냈다. 해외의 포경수술 상황과 포경수술 관련 각종 연구 성과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 교수는 포바연의 회장이다. 중앙대 방명길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성교육 강사 구성애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 등이 포바연 회원이다. 김두식 교수는 김 교수의 동생이다. 지난해 4월 함께 한국의 교육 현실 등을 비판한 ‘공부논쟁’이라는 책을 내 화제가 됐다.

김 교수가 포경수술에 관심을 가진 건 초등학교 시절부터다. 또래들이 너도나도 “고래 잡았다”며 포경수술 받은 걸 자랑하던 때였다. 그는 “조상들은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

다는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포경수술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가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85년 미국 유학을 하면서 포경수술이 전세계 공통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많은 국적의 학생들 가운데 포경수술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선진국 남성들이 위생을 위해 포경수술을 한다는 통념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의 포경수술 연구는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본격화 됐다. 1999년 PC통신 게시판에 세계 포경 수술 지도를 올린 게 시작이다. 미국·한국·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만 포경수술이 보편화돼 있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김 교수는 “온라인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학자답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포경수술 관련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한국에선 1945년 해방 이후에야 포경수술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파고다 공원 등에서 1년간 5천명의 남성을 인터뷰하고 이 연구로 해방 이전에는 포경 수술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교수는 이를 정리해 2001년 영국 국제 비뇨기학회지에 ‘현저하게 높은 남한의 포경수술 비율 : 역사와 원인’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2007년에는 포경수술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설문조사로 연구했다. 지금도 본업인 물리학 연구를 하며 틈틈히 포바연 회원들과 함께 한국의 포경수술 현황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포경수술 반대론자다.

“혀를 잘 닦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충치도 생기지만 혀를 자르진 않잖아요.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포경수술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김 교수는 포경수술을 했을까. “개인 사생활이니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중앙일보>

공대-동반성장연구소 협력 MOU

모교 공과대학은 지난 해 12월 29일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전 국무총리)와 대·중소 중견기업의 동반성장협력을 위한 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과대학과 동반성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산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문제 해결 및 실질적 경제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 활성화를 취지로 진행되었다.

양 기관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및 기술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물론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정보 교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대는 지난 3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중점 조직인 SNU 공학 컨설팅 센터를 설립하고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에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모교 홍보부>

모교 창업지원 프로그램 Be the Rocket

161개 팀 중 최종 7개 팀 2월 11일 공학관에서 런칭 데이 개최

지난 2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학교 38동 공학관에서 서울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비더로켓(Be the Rocket)’ 런칭 데이가 열렸다.

비더로켓은 서울대학교가 제공하는 토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시작했다. 총 161개 팀(학생팀 86개, 일반팀 75개)이 지원해 22개의 팀이 1차 선발됐다.

22개의 팀 중 발표와 면접을 통해 7개의 최종 진출팀이 선출됐으며 이들은 지난 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제품 출시를 위한 각종 멘토링과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

각 팀은 3개월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에 서비스 및 제품을 반드시 런칭해야 한다는 미션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모든 팀이 서비스 런칭에 성공해 이날 런칭데이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7개 팀 중 중고차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이딜러’는 서비스 퀄리티를 인정 받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헤이딜러는 타던 차를 판매하고자 할 때 전국 딜러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내차를 제 값에 팔 수 있게 도와주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 벤처캐피탈 '더 벤처스'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아 벤처 캐피탈 '더 벤처스'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날 런칭 데이에서는 자동 결합 검출기를 소개한 수아랩이 ‘해송대상’을 수상했고 웹, 앱

취업 준비 서비스 ‘앵커리어’가 해송 금상을, 모바일 앱 메시징 서비스 체크(CHEKK)가 ‘해송 은상’을 수상했다.***

<모교 홍보실>

2014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시상

2014년 ‘학부생 연구지원 사업’의 우수 연구과제 시상식이 지난 12월 2일 성낙인 총장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 5과제(팀) 9명이 총장상을 수상했으며 시상식은 성낙인 총장 등 보직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학부생 연구지원 사업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과제 수행과 이를 통한 성취 의욕을 고취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총 44개 과제가 올해 사



업의 지원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는 총장상 수상 외에도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되지 않은 과제에 참여

한 학생들은 연구수행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상과제 연구 결과물은 연구처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research.snu.ac.kr.***

<모교 홍보실>

자사고 서울대 합격자 외교 압도

졸업생 첫 배출된 3년간 합격자 분석. 올해 259명 대 189명

최근 3년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서울대 합격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자사고가 졸업생 배출 3년 만에 외국어고(외고)의 서울대 합격자 수를 압도했다. 동아일보가 2013~15년도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전국 자사고의 서울대 합격자는 2013년 485명에서 2014년 579명, 2015년 594명으로 증가했다. 자사고는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자사고가 많은 서울에서는 자사고의 서울대 합격자가 늘면서 외고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2013, 2014년에는 서울지역 자사고와 외고 서울대 합격자가 186명대 189명으로 비슷했지만 올해 자사고 259명, 외고 182명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번 서울대 입시에서 서울지역

자사고의 강세는 정시모집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자사고의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는 지난해 75명에서 올해 135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외고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지난해 62명에서 올해 56명으로 소폭 줄었다.

일반고 가운데에서는 서울 강남지역 학교들이 강세였다. 서울 일반고의 서울대 합격자 수는 2013년 521명에서 2015년 601명으로 늘었다. 특히 숙명여고(13명→21명), 반포고(9명→14명), 압구정고(3명→8명), 서울고(13명→17명)등 소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일반고에서 합격자가 크게 늘었다. 서울대 합격자가 10명 이상인 서울지역 일반고 12곳 중 강남 3구가 아닌 학교는 신목고(양천구) 뿐이었다.

서울의 지역 일반고 가운데서는 경기도의 일반고들이 성과를 냈다. 수지고(경기 용인)는 서울대 합격자가 3년 사이 9명에서 20명

으로 늘었고 진성고(경기 광명)는 9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양서고(경기 양평, 6명→12명), 서현고(경기 성남, 5명→11명) 등도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합격자를 늘리며 ‘지역 명문’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서울대 합격자가 많은 일반고들도 대부분 정시모집에서 강세를 보였다. 합격자가 10명 이상인 일반고 20곳의 수시 합격자는 133명, 정시 합격자는 159명이었다. 서울대의 전체 합격자 비율이 수시 71.1%, 정시 28.9%임을 고려하면 이들 학교의 정시 합격자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서울대 합격자가 크게 늘어난 지역은 서울뿐이었다. 자사고와 강남지역 일반고의 합격자 수 증가에 따른 결과다. 서울지역 학교의 서울대 합격자는 2013학년도 1196명에서 2015학년도 1306명으로 늘어 전체 합격자의 40%를 차지하게 됐다. 반면 다른 시도는 합격자 수가 감소하거나 제자리였다.*** <동아일보>



모교와 한국 프로축구연맹

K리그 활성화 프로젝트 진행

모교 서울대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과 손잡고 K리그 활성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연맹은 지난 1월 29일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가 진행하는 2015년 1학기 ‘디자인과 경영전략’ 수업의 공식 파트너사가 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의 ‘디자인과 경영전략’ 과목은 매 학기 기업을 파트너사로 선정해 학생들이 직접 해당 기업의 전략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실천형 수업이다.

그동안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CJ, 넥슨 등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바 있다. 다수 기업들의 호평과 함께 실제로 기업 전략에 반영되기도 했다.

연맹이 모교 서울대의 수업 파트너사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학기 수강생들은 K리그 구단과 K리그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프로젝트에 도전하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제공하는 축구산업 아카데미 강의 모습.<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게 된다.

모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6일 시작한 이번 수업은 K리그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중간 발표와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학생들과 구단을 매칭해 구단 스토리 개발, 패키지 상품 개발, 이벤트, 프로모션,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기로 했다.

연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이를 통한 K리그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K리그에 새로운 자극을 일으켜줄 것”이라며 이번 제휴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스타 뉴스>



사범대 시흥시에 공교육혁신 지원센터

경기도 시흥시가 지난 2월 9일 ‘배곧신도시 교육도시 청사진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흥시와 모교 사범대학은 공교육혁신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서울대 시흥캠퍼스 인근 초·중·고교를 모교 사범대학 사범혁신학교로 선정해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배곧 신도시 교육도시 청사진 기본계획에는 서울대-시흥시 공교육혁신센터를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 협력혁신학교, 공교육 지원센터의 설립계획, 사이언스 센터, 창의예술 발전소, 스포츠 클럽, 교육연수원, 기타 교육지원 활동 등의 세부계획도 마련됐다.

또한 3월 서울대와 한라가 실험협약을 체결했다. 한라가 짓는 ‘시흥 배곧 한라 비발디 캠퍼스’는 단지 바로 옆에 서울대 사범대 협력 혁신 초중고교가 들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단지다. 초등학교의 경우 근거리로 배치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 입주민은 우선배치가 보장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서남부 지역에 들어서는 서울대 지정 혁신 학교는 젊은 학부모 주택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윗 사진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 신도시. 서울대 사대 시흥캠퍼스로 조성하는 용지다 ***

<동아일보>



역사 칼럼

인물화상경 (人物畫像鏡)



장수영(공대 57) MD
포항공대 전 총장

현재 일본의 동경 국립박물관에 국보로 소장되어 있는 隅田八幡神社 소장 ‘인물화상경(人物畫像鏡)’은 단순히 ‘隅田八幡鏡’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九人の 인물상과 48자의 명문이 양각되어 있다.

이 거울은 1834년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문의 해석에 있어서 한일학자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명문은 ‘癸未年 八月日十 大王年 男弟王 在意紫沙宮時 斯麻 念長壽 遣開中費直 穢人今利州 二人等 取白上同二百桿 作此竟’이다.

일본 학자들 중에는 斯麻念長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고 斯麻가 백제 무령왕임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日十大王을 어떤 왕의 호칭으로 해석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계미년은 503년이고 남제왕(男弟王)은 일본의 제26대 계체천황(繼體天皇)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무열천황(武烈天皇, 재위 499 ~ 506)이 아들이 없이 죽자 應神天皇의 五世孫 彦主人王의 아들 男大跡(오오도노기미)이 507년에 계체천황으로 즉위하였다.

고사기(古事記)에는 袁本抒命(오오도), 上宮記에는 乎富等王(오오도), 筑後風土記에는 雄大跡天皇(오오도)로 표기되어 있어 한자의 표기만 다른 것으로 계체천황은 시종 남제왕의 칭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사마는 백제 25대 무령왕의 諱라는 사실이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의 발굴로 확실해졌다

무령왕은 백제 개로왕의 아들 곤지(昆支)가 460년 왜국으로 갈 때 섬에서 태어난 분으로 개로왕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무령왕이 동성왕(재위 479 ~ 501)의 아들’

이라고 되어 있고 곤지도 477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왜국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학자들 중에는 곤지왕이 일본의 천황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곤지왕이 왜국에 도착했을 때 5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일본서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백제 동성왕이 되었고 왜국에서 태어난 사마가 무령왕(재위 501 ~ 523)이 된 것이다

飛鳥戶神社는 곤지왕을 모신 신사다. 인물화상경의 계미년은 503년으로 무령왕이 즉위한지 2년이 지난 해이며 계체천황이 河內國의 樟葉宮에서 즉위하기 4년 전이다. 즉위할 때 그의 춘주는 57세라고 하나 고사기에서는 22세라고 되어 있다.

계체천황의 세 번째 도읍지를 弟國(오다라)라고 했는데 이는 제왕의 나라로서 兄王의 나라 백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계체천황은 도읍을 자주 옮겼는데 자주 옮긴 이유는 왕궁을 지을 때에도 기둥을 땅에 박고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년 후 기둥이 썩어서 다른 곳으로 왕궁을 옮겼기 때문이다. 6세기 중반에 백제에서 불교가 도입되면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開中費直의 개증은 고대 河內(가와치)의 借音假名이므로 하내비직(河內費直)으로 읽을 수 있다.

비직의 직은 왕권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수장의 성(姓)으로 소왕국의 군주와 같았다고 한다. 따라서 개증비직인 今利州를 보내서 백동경 二百桿 분량을 만들게 한 것은 사마가 금리주를 자신의 신하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경(鏡)은 가장 중요한 통치도구와 같은 것이며 권위의 상징으로서 정치권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결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헌상하는 공물이 아니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여하는 신임의 표시인 것이었다. 일본황실의 삼중신기는 八咫鏡, 草薙劍과 八咫瓊曲玉이다.

대왕년 계미년 8월에 무령왕이 웅진에서 자신의 즉위를 弟王인 남제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알리

생활의 단상

울타리



문성길(의대 63) VA
워싱턴 DC동창회 전 회장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 우리 인간들은 부지불식간에 울타리를 치고 산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그래도 낫다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들과 자신을 구분하려 든다.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또 자연, 학연, 혈연 등 온갖 연줄로 울타리를 두른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물론 울타리를 두른다. 잘못된 종교와 사상에 갇힌 채 바깥 세계와 담장을 쌓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1950년대 후반 중고교 다닐 때, 서울 계동 골목 맨 끝자락에 있는 학교에 도달하려면 골목길에 있는 저택들을 지나야 했다. 고관대작이 아니면 재벌가의 집으

로 짐작되는 집들이었다. 이 집들은 하나같이 철문도 부족한지 높은 울타리(사실은 콘크리트 높은 담 벽) 위에 철창살, 갠 유리병으로 철통 방어벽을 치고 있었다. 어린 학생시절이었지만 이상하게 느껴졌다. 방어, 보호벽이라기보다 세상과의 절연(絶緣)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처럼 생각됐다.

아흔 아홉을 가진 부자들이 100을 채우기 위해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를 가진 약자들을 못살게 군다. 그러나 아흔 아홉을 가진 부류들이 정신적으로는 하나 밖에 가진 것이 없는 빈자(貧者)에 속할지도 모른다. 반대로 경제적 빈자들이 정신적으로 더 부유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보수, 진보 논쟁으로 시끄러웠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색깔 논쟁은 한층 더 가열됐다. 다른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려 들기보다 무조건 공격만 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웠다.

공격과 주장들에는 합리성 보다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가득하고 비판이라기보다는 모함에 가까운 주장들이 난무했다. 건전한 토론과 상식은 실종됐다.

보수든 진보든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좀 더 겸손하게 상대의 말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것이 더 요구된다. 울타리 밖 사람들의 어려운

짐을 함께 지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성취했건, 부모 등 타인의 힘이 작용했건 온전히 자신만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룬 성공이란 없다.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독선, 오만과 무례를 벗어나 겸손과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쉬운 시대다.

보수와 진보라는 울타리를 높이 높게 쌓고는 살벌하게 서로 적대시 하고 있는 이념 전쟁은 사실 지각있고 상식있는 사람들에게겐 안타깝고 한심스러울 뿐이다. 진보 없는 보수는 고인 물, 썩은 물이 되기 쉽고, 보수 없는 진보는 사상누각처럼 근본 없는 허상, 꿈에 머무를 수 있음을 알아야겠다.

근본이 있고 든든한 버팀목인 보수를 바탕으로 진취, 개혁 진보사상이 조화를 이룰 때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다.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보수가 바로 진보요, 진보가 바로 보수다. 보수와 진보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같다고 봐야 한다. ‘중용(中庸)’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보수와 진보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사회는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모범사회가 될 것이다. 새해에는 이런 한인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고 그들에 대한 변함없는 신임을 표시하는 뜻에서 백동경을 많이 만들어서 남제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명문에 남제왕의 장수를 바란 것이다.

따라서 소진철의 주장대로 명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계미년 대왕년 8월 10일 남제왕이 오시사가 궁에 있을 때 사마가 그의 장수를 생각해서 개증비직 예인 금리주와 두 사람에게 백동 200간을 취하여 이 거울을

만들었노라.’

따라서 일부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마염장이라는 신하가 남제왕(계체천황)에게 바친 거울이 아니라 백제 무령왕이 남제왕에게 하사한 것이다.

石渡信一郎은 곤지왕이 바로 應神天皇이고 계체는 곤지왕의 10년 연하의 弟로서 남제왕으로 불렸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渡邊光敏도 계체천황은 곤지왕의 弟로서 무령왕보다 10년 연상

이며 인물화상경은 무령왕이 계체에게 준 것이라고 본다.

계체천황의 황후는 手白香皇女로서 그 出自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무령왕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최근에는 TV 연속 방송극의 주인공으로도 나왔으나 그것까지 믿을 수는 없고 무령왕이 계체천황을 남제왕이라고 부른 사실은 인물화상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 칼럼

저소득·중산층 위한 새 은퇴연금계좌 ‘MyRA’



강호석(상대 81) CA
CPA

지난 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중 ‘MyRA’라는 은퇴연금계좌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빈부 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환으로 이야기한 이 연금계좌는 주로 고용주의 연금 지원을 받지 않는 피고용인들에 의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MyRA라는 이름은 기존 IRA에

서 파은 것이다. MyRA는 기존의 Roth IRA와 비슷한 방법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다소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yRA는 Roth IRA와 마찬가지로 조정 총소득액에 제한이 있다. 결혼한 경우에는 19만1천 달러 미혼은 12만 9천 달러가 넘지 않아야 한다.

Roth IRA는 개인당 연 5천500달러(50세가 넘을 경우 6천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지만 MyRA는 30년에 걸쳐 최고 1만 5천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Roth IRA와 마찬가지로 세금보고가 된 금액에서 불입을 해야 한다.

중도 회수시 벌금이나 추가세금은 없다. 하지만 이 회수금 중 연금계좌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수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MyRA계좌는 초기

불입금액이 25달러면 계좌를 열 수 있고 매년 급여에서 5달러씩만 불입을 해도 무방하다.

Roth IRA와는 달리 MyRA 계좌는 정부채권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은 절대 나지 않는 반면 수익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Roth IRA와는 달리 MyRA계좌엔 각종 비용(fee)이 붙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MyRA의 펀드는 연방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연금투자펀드와 비슷한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공무원 연금투자펀드 수익률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2.69%였다.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인들에게 MyRA계좌는 저축을 장려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30년간 최고 금액 1만5천 달러가 과연 충분한 액수인지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된다.

만약 1만 5천 달러를 계좌에 넣은 뒤 이를 수익률 2.69%로 30년간 유지한다면 30년 후엔 약 3만 3천200달러가 된다.

문의 (714)530-3630 ***

동문 및 동문단체 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김 숙(사회학과 70) 전 UN 대사

KOTRA·스탠포드대에서 강연

스탠포드대 산하 아태연구센터(APARC)에서 팬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숙(사회학 74) 전 UN대사가 지난 지난 1월 12일 실리콘밸리 KOTRA(관장 나창엽) K-Move센터가 마련한 자리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이어 2월 6일에는 스탠포드대에서 북한과 김정운의 행보에 관해 강연회를 실시했다.

먼저 1월 12일 KOTRA특강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해 서강대·연세대·울산대·포항공대·강원대·충북대 출신 70여 명의 동포 인재들이 참석했다.

김 전 대사는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변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 등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청년들은 창조와 혁신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고뇌를

←김 숙 전 UN대사가 KOTRA에서 강연하는 모습이다.

통해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6일 스탠포드대 엔시나 홀 3층 필리핀 컨퍼런스 룸에서는 북한과 김정운의 행보와 관련한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김 숙 전 대사는 ‘2015년 김정운의 행보’라는 주제로 새해 들어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태도와 김정일의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 전 대사는 김정운이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 사후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올라선 이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정운의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남북 대화는 실제로 재개할 수 있는 것인지, 6자 회담에 대한 6년의 공백기를 가진 북한이 다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김 숙 전 대사는 주미 1등서기관, 북미과장, 인사기획 담당관, 주토론토 총영사, 북미국장, 제주도 국제관계 자문대사,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국정원 제1차장, 주유엔대사 등을 역임했다.***



활동했다.***

허경욱(경영대 74) OECD 전 한국대사 스탠포드대 강연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주제로

스탠포드대 초청으로 북가주를 방문한 허경욱(경영대 7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한국대사(사진)가 지난 1월 30일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허경욱 전 대사는 이날 12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스탠포드대 엔시나홀 3층 필리핀스 컨퍼런스룸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The Korean Economy at a Crossroads)’를 주제로 한국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법을 제의했다. 허 전 대사는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 14위로 성장했지만 고령화 사회로 경제인구 감소, 복지지출 증대, 잠재성장률 감소, 불평등 악화, 일자리 축소 등 역동성을 잃어가는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는 정책들로 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쳐나갈 것을 피력했다.

모교 경영학과, 스탠포드 MBA 대학원을 졸업한 허 전 대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실 국책과제 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OECD 한국대사로

로광욱·전병구·신현규·정석인 동문

메릴랜드·버지니아북가주에서 작고

▶로광욱(치대 43졸) 박사 = 워싱턴 DC 한인회장을 지낸 로광욱 박사가 지난 해 11월 27일 메릴랜드 포트 워싱턴 자택에서 92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1922년 평안도 남포에서 출생한 로광욱 박사는 서울대 치대 전신인 경성 치과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 음악가 동맹 중앙위원과 서울대 치대 전임강사를 역임했다.

로 박사는 6.25 한국전쟁 중 도미, 뉴욕대 치과대학원과 살라바마대 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이와 별도로 커티스 음악원과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메릴랜드에서 치과 개업의로 활동하면서 1969년 제12대 워싱턴 지역 한인회장을 역임했다.

1986년 가곡집 ‘꽃 꺾어 그대 앞에’를 출간했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고려산천 내 사랑’을 작사, 작곡했다.

▶전병구(의대 46·사진) 워싱턴 DC 동창회 전 회장 = 워싱턴 DC 동창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한 전병구 박사가 지난 2월 1일 버지니아 맥클린 자택에서 작고했다.

전병구 전 회장은 1928년 4월 평북 선천에서 출생해 1952년 모교

의대를 졸업했다. 1954년 도미해 조지타운대 의대에서 학업을 계속한 후 이 대학에서 35년간 교수를 역임한 뒤 1990년 고국 한림대에 의과대학을 창설하기도 했다.

전병구 전 회장은 워싱턴 한인교회 창립 멤버로 60여년을 섬겨하며 은퇴 장로로서 신실한 믿음과 귀한 삶의 모범을 보여오신 것으로 이름나 있다.

▶정석인(법대 56졸) 동문 = 버지니아에 거주 중이던 정석인 동문이 지난 2월 작고해 2월 27일 맥클린의 와싱턴 한인교회(김영봉목사)에서 고별 예배를 드리고 28일 오전 10시 30분 Fairfax Memorial Park에서 장지 예배를 드렸다.

▶신현규 동문 = 북가주 총동창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신현규 동문이 지난 2월 16일 12시 30분 별세했다. 향년 81세. 고인에 대한 장례문상 예식은 지난 2월 19일 오클랜드 김대건 한인천주교회에서 거행됐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신점숙씨와 1녀 등이 있다.***

고병철(법대 55) 명예교수의 논설

국제정세지 Pacific Affairs 게재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명예교수인 고병철(법대 55) 박사의 논설 ‘North Korea and Its Quest for Autonomy’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국제정세 전문지 ‘Pacific Affairs’ 최근호에 게재됐다.

고병철 명예교수의 이 글은 북한의 자주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공산권의 국가 중에서 경제 발전이 비교적 양호한 대열에 서게 되었다. 경제력을 배경으로 북한은 자주성 추구에도 집념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주체’라는 구호가 집약해 주고 있다. 김일성 주석이 1955년 12월 28일 북한 노동당의 선전, 선동 일꾼들에게 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처음으



로 등장한 이 구호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최대 목표로 부각하였다.

주체성의 확립은 정치적 독립, 경제적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요구하는데 북한은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등을 통해서 자립경제 수립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독립의 원칙을 중소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는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중립은 불가능함으로 가끔 중국에 기우러지는 ‘중립’ 노선을 보여주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정권이 소련의 준 위성국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자주성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동석(음대 65) 동문 LA에서 국악강좌



남만의 아크로 인문산책 프로그램이 지난 2월 6일(금) 오후 6시30분 LA에서 제 22회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국악 산책’으로 우리 한인 동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전통 민속음악 국악에 대해서 동문 김동석(사진) 강사가 나섰다.

김동석 강사는 고교시절부터 국악을 시작해서 모교 서울대 음대에서 국악(65학번)을 전공하고 UCLA 다민족 음악과에서 오랜동안 국악을 널리 보급해 오고 있다.

그는 또한 남가주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수십년간 국악 전파에 앞서 왔다.

주소: 3727 W. 6th Street #310, LA CA. ***

신민식(미대 84) 동문 장남 신동진(고교 1년)

독립기념관 관람 감상문 공모 은상



신민식(미대 84) 동문의 장남 신동진(뉴욕 그레이트넥 사우스 고교 1년·사진)군이 지난 해 한국에서 열린 ‘제27회 독립기념관 관람감상문 공모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대회에서는 총 2천993점의 작품이 접수돼 엄정한 심사 에 의해 501점의 입상작이 결정되었는데 신 동문의 장남이 이같이 입상한 것이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13일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강당에서 거행됐다. ***



이정철(법대 졸) 교수 워싱턴 시민학교 강연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 주제

“미·중 갈등속 북 적극 활용해야” 오바마 아시아 정책 고찰

워싱턴 시민학교(교장 김광훈)가 지난 1월 18일 페어팩스의 윌리엄 조 평화센터에서 윌레강좌

를 갖고,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살펴봤다.

이 강좌에는 이정철 교수(법대 졸, 숭실대 교수)가 ‘오바마 외교 독트린과 아시아 중시정책 - 한반도에서의 의미’를 주제로

대를 졸업하고 제17회 외교고시에 합격해 1983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국제통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외교부에서도 신흥시장 과장 통상법무 과장 자유무역협정 정책국 심의관 다자통상국장 등을 역임한 국제통상 전문가다.

지난 2011년부터는 워싱턴 DC 주 미대사관에서 경제공사로 재임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행 한국인 전용 비자법안 추진 등의 핵심사업을 담당했다.

글로벌 지정학에 근거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 전개 과정과 특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오바마 독트린은 필요시 일방주의적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지만 국제법과 다자적 군사행동을 강조하며, 동맹과 파트너를 동원해 집단적 행동의 원칙을 강조하는 ‘제재와 동맹’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유일하게 민주, 공화 양당의 합의가 유지되는 분야로 안보와 경제의 두 가지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동아태 차관보 라인의 전횡이 심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중미 갈등 속 딜레마에 놓인 한국은 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일문제를 쟁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과 관련 해외에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주 동포의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다시금 재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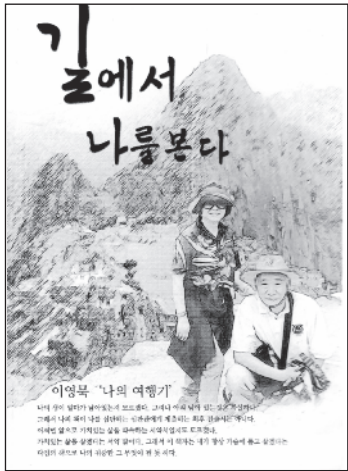


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옐로스카운티 순회영사 법률상담은 매달 세 번째 금요일, 샌디에고는 분기별 1회씩 진행 중이다. 또한 매달 두 번째 화요일 LA 법률보조재단에서는 한미합동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단, 무료로 진행되는 총영사관 법률상담은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는 (213)385-9300 내선 48번.***

이영목(공대 59)미주동창회 8대회장,현 상임교문

‘길에서 나를 본다’ 신간 출간



작가로 한국 소설가 협회 회원이며 워싱턴 문인회 회장, 미주 동창회 8대 회장을 역임한 이영목(공대 59) 동문이 신간 ‘길에서 나를 본다’를 새로 펴냈다.

국판 중 265면으로 구성된 이 신간에는 1. 여행기 2. 나의 가족 이야기 3. 나의 가족 모습들의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여행기 1편에는 에는 2010 중국 여행, 2012 봄 중국 문학여행, 인도 및 네팔여행, 일본여행, 2012서울여행, 2013 가을 한국 여행, 독일여행, 동지중해 크루즈, 파리를 거쳐 서지중해로,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 여행, 이태리 여행 등이 기록돼 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내가 나의

여행기들을 모아서 책자를 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할만큼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은 여행기를 담고 있다.

2편 나의 가족 이야기에서는 ‘제1장 결혼 50주년을 앞두고’부터 ‘제2장 한국에서 나의 삶, 제3장 미국에서의 삶, 제4장 처갓집 이야기, 제5장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제6장 글을 쓰게 된 이야기, ‘제7장 그곳에서도 나는 있었네’ 등 자신의 주변과 이민 생활의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마지막 ‘나의 가족들 모습’에서는 어린 시절 자신과 가족, 친척들에 대한 사진들을 모아 화보로 꾸미고 있다.

책의 표지에는 ‘나의 생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나의 책이 나를 심판하는 심판관에게 제출하는 최후 진술서는 아니다. 어쩌면 앞으로 가치있는 삶을 약속하는 서약서일지도 모르겠다. 가치있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 말이다. 그래서 이 책자는 내가 항상 가슴에 품고 살겠다는 다짐의 책으로 나의 귀중한 그 무엇이 될 듯 하다’고 증언하고 있듯이 심오한 뜻에서 출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정한(음대 87) 목사

시카고 중앙일보와 재능나눔 콘서트



함께 보고 듣고 부르는 음악잔치, 그 공감으로의 초대, 지난 1월 29일 시카고 중앙일보에서 재능나눔 콘서트로 실시

시카고 중앙일보에 칼럼 ‘음악 이야기’를 연재해 잘 알려진 김정한(음대 성악과 87·사진) 목사가 시카고 중앙일보에서 독자들과 직접 음악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지난 1월 29일 마련했다.

다음은 이 행사에 대한 시카고 중앙일보의 글이다.

‘음악은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듯 음악은 문자를 뛰어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서적 언어입니다.

시카고 중앙일보가 새해 첫 재능 나눔 콘서트를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강사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작한 칼럼 ‘음악 이야

기’로 5년째 중앙일보 애독자들과 만나고 있는 김정한(사진) 목사를 초빙했습니다.

클래식에서 팝, 가요까지 어떠한 음악장르도 김정한 목사의 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음악장르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음악이 탄생하기까지 숨어있던 이야기는 어느새 독자들로 하여금 바쁜 이민 생활을 핑계로 책장 구석에 꽂아뒀던 뽕양게 먼지 쌓인 음반을 꺼내게 만듭니다.

김정한 목사는 음악은 이론과 지식보다 ‘감’으로 먼저 와닿는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알고 듣고 배웠던 것에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감, 남이 가진 좋은 감을 주고받는 ‘공감’ 능력으로 리더쉽과 인간관계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전문가나 마니아가 아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재능 나눔 콘서트는 김정한 목사의 ‘음악, 그 공감으로의 초대’입니다. 김정한 목사는 서울대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함께 음악으로 우리의 공감대를 울려주며 한겨울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음악 토크 콘서트에 시카고 중앙일보가 독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영현(간호대 70) 동문

세계 기독교간호재단 총회장에 선출

‘간호 통해 전 세계에 복음 전한다’ 연변과기대 건강센터개설, 캄보디아·몽고 선교사 파송

세계기독교간호재단(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제8차 정기총회 및 영적 대각성을 위한 부흥집회가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알라메다의 그레이스 포인트 펠로십 교회(Grace Point Fellow Church)에서 열렸다. 북가주에서는 처음 총회를 개최한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은 15일 열린 총회에서 이영현(간호대 70) 국제본부 부회장을 새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영현 신임 총회장은 1974년 모교 간호대 졸업 후 서울대병원에서 25년 8개월 근무, 명예 퇴직후 간호재단이 중국 연변과과학기술대학에 파견한 1호 선교사

출신이다.

1998년 4월 18일 간호재단 창립 후 17년간 헌신봉사해 온 이송희 전 총회장(87)은 앞으로 재단 활동을 위해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세계기독교 간호재단은 간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꿈을 실현하고자 1998년 LA에서 원로 기독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됐다. 이 단체는 기독교간호사들의 은사와 자원을 도구로 삼아 지역 사회와 국가 및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 교육, 봉사에 목적을 두고있다. 간호재단은 복음전도와 국내외 선교활동, 긴급 구호와 의료 봉사, 세계 간호선교의 네트워크 구축, 선교사 양성 및 파송, 간호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또 기독교 간호사 지도자 육성, 간호대학 및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알라메다에서 열린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제8차 정기 총회 참석자들이 앞줄 왼쪽에서 9번째가 이영현(간호대 70) 신임 회장.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간호복지재단은 1999년 5월 연변과기대에 건강센터를 개설했다. 2002년에는 연변과기대내 연건평 2천평의 간호대학 건물을 완공했으며 선교사를 파송했다. 2005년 캄보디아 캄뽕짱 건강센터 준공과 선교사 파견, 2006년 캄보디아 라이프대학에 간호대학 개설 및 선교사 파송, 2010년 간호학 연구소 및 비전센터 준공, 2012년 캄보디아 캄뽕보보에 유치원 및 예배건축을 지원했다. 비전 126 중보기도 운동과 북한 동포 생명살리기 운동을 실시했다. 2013년 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에 간호학과장을 파송, 창립 15주년 기념감사 부흥회를 가졌다. 현재 중국·캄보디아·니제르·몽고·스와질랜드에 간호선교사를 파송, 후원하고 있다. 올해 총 55만2천 달러의 예산으로 북한동포 살리기, 선교사 후원, 장학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평양과기대 간호대 설립과 북한간호 재건사업(NKRF)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본부 주소: 1946 W.147 TH St.Gardena. CA 90249. (310)324-8620. CP(310)995-3013.한국지부 주소: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191 효성교회내 세계기독교간호재단. 82-108276-8620. www.wcnf.org***



홍선애(미대 62) LA미대 동창회 전 회장

‘LA아트쇼’ 출품 작품 큰 호평

지난 1월 14일 특별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LA 컨벤션 센터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LA 아트쇼가 18일 막을 내렸다. 홍선애(미대 62·사진) LA미대 동창회 전 회장은 이 아트쇼에 출품한 작품들이 큰 호평을 받았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이번 LA쇼에는 개막일에만 7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전 세계 22개국 120여 갤러리가 참가한 올 아트쇼에는 한국에서 8곳의 화랑과 미국의 다수 한인 갤러리가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현대화의 경향과 흐름을 소개하는 데 일조,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해냈다. 주최 측은 아트 쇼 기간 중 단색화 워크숍을 열고 한국어 투어를 마련해 주며 한국미술 홍보에 힘을 더해줬다. 뉴욕의 현 컨템포러리 갤러리

가 LA의 저명한 작가 홍선애 동문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LA 표 갤러리가 영화배우 하정우 등 독특한 작품 세계를 지닌 한국 작가들의 페인팅을 전시했다. 또한 이번 아트 쇼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화가 후원단체인 KAFA(Korea Arts Foundation of America:회장 김태웅)가 올해 KAFA상 수상자인 올가 나(Olga Lah)의 인스틸레이션을 설치,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화가를 대상으로 1만달러 상금의 미술상을 시상해 온 KAFA는 지속적으로 LA 아트쇼에 수상작가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올 LA 아트 쇼는 한국 이외에도 중국의 잉크 페인팅과 일본의 망가 갤러리를 하이라이트로 소개하는 등 아시아 국가의 미술을 크게 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부강(미대 61)동문

오하이오 개인전

유부강(미대 61년) 동문이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최근 개인전을 가졌다. 유부강 동문은 부군 김영근(의대 61) 동문과 함께 1970년 오하이오 신시내티로 이주했으며 40여 년 동안 살아온 그곳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것이다. 유 동문은 모교 미대 회화과를 65년에 졸업했고, 신시내티 주립대 미술대학원(Fine Art)을 1990년에 마쳤다. 과거 30여 차례의 개인전을 한국과 미국에서 가진 바 있다. 이번 개인전의 상세한 정보는



↑유부강 동문이 전시 중인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 중이다.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http://www.cincinnatiartmu-](http://www.cincinnatiartmuseum.org/art/exhibitions/current-exhibitions/details/838-bukang-kim-journey)

[seum.org/art/exhibitions/current-exhibitions/details/838-bukang-kim-journey](http://www.cincinnatiartmuseum.org/art/exhibitions/current-exhibitions/details/838-bukang-kim-journey) ***



많은 분과 만나 생명과 작품 창작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폭넓게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모교 미대 조소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안 교수는 12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현재는 서울시립대 예술체육대 환경조각학과 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중에도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

조각가 안병철(미대 조소과 82) 시립대 교수

LA에서 ‘작가와의 대화’ 열어

LA 아트 코어 갤러리에서 “생명과 예술 이야기 나누고 싶다”

“오랫동안 ‘씨앗’ 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해오면서 생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생명의 힘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도, 풀 수도 없는 무한대의 미스터리죠. 그 신비로움에 끌려 씨앗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참 미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기회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LA 아트 코어 갤러리에서 ‘작가와의 대화’ 를 개최한 조각가 안병철 교수(서울시립대·사진)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 표면을 고광택으로 처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흡수된 것처럼 투영된 안 교수의 조각 작품은 ‘생명 그 자체보다 생명을 둘러싼 현상과 반응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운 상징물’ 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어렵게 온 LA 방문이라 비록 작품 전체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정관(외교 77) 재외동포 영사 대사

시카고 한인단체장 초청 간담회



“조국 발전에 미주 우리 한인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

지난 1월 14일 시카고를 방문한 이정관(외교 77) 재외동포 영사 대사(사진)는 시카고 한인 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동포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시카고를 방문했다.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교 외교학과를 졸업(외무고시 15회)한 이 대사는 그동안 LA 부총영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재외동포 영사국장 등을 지냈으며 2013년 재외동포 영사대사에 임명됐다.

이 대사는 “우리 동포들의 현지 실정에 맞는 세계 5대 권역별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을 소개하고 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미주를 방문했다” 며 “시카고 한인 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차세대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5대 권역별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이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조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이 대사는 미주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주류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사는 “바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 통과, 소녀상 건립 등 국익을 위해 노력해주는 동포 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일부에서는 동포에 들어가는 예산이 크다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국민들의 인식도 서서히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타 커뮤니티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주류사회에 한인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특히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인 2세들이 한국어 공부를 통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를 희망한다.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수렴, 검토한 뒤 적극 지원하겠다” 고 덧붙였다.***



북가주 동창회

모교 벤처 경영학 재학생 위한 모임

지난 2014년 2월 한국 최초로 모교에 ‘벤처 경영학’ 연합 전공학과가 신설되었다.

경영대학이 주관하고 공대 컴퓨터학부, 인문대 철학, 정치외교 전공학부, 법대 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창업에 뜻을 둔 학생들이 복수전공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41명의 학생 중 32명이 유병준 교수 인솔하에 지난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세계 IT 산업의 메카인 Silicon Valley를 찾았다.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인 Silicon Valley를 찾아가 각 분야를 직접 돌아보면서 견문을 넓히고 또한 이곳에서 창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각자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해보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이들은 미국에 도착한 첫날인 9일 UC Berkeley를 방문하고 6시 San Jose에서 북가주 동문들과 한식 레스토랑인 산장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이곳에서 나름대로 크게 성공한 동문 선배 여섯분들의 경험담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 선배들은 각자 제한된 시간 10여분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각자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요약된 핵심을 진지하게 피력해주었다. 모두가 도전정신,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갖추기, 모든 분야에 대한 열정 등을 특히 강조했다.

동문 여섯분의 패널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강정수(문리대 61)·최왕욱(공대 69)·김종수(공대 74)·김범섭(공대 79) 동문, 벤처 캐피털 분야에서는 최승희(인문대 81)·윤필구(공대 93) 동문이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특히 김범섭 동문과 최승희 동

→오른쪽 사진 위부터. 성공사례를 발표한 동문들. 오른쪽부터 최왕욱(공대 69), 김종수(공대 74), 강정수(문리대 61), 김범섭(공대 79), 최승희(사회대 81), 윤필구(공대 93) 동문. 모교 재학생들을 인솔한 두 교수(오른쪽이 유병준 교수). 이수정 부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검정 상하의)이 최승희(사회대 81 가운데) 동문과 전술이(정치외교과 재학중) 등 재학생들과 함께.

문은 부부 동문으로 모두 UC Berkele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범섭 박사는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고국 카이스트(KAIST) 전자공학과에서 6년간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전자 제품과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Qualcomm 사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날 북가주 동창회에서는 박(임)희례(간호대 73) 회장을 비롯해 이장우(문리대 72) 전 회장, 이수정(간호대 89) 부회장, 오의미(간호대 73), 김대경(공대 92) 총무, 김경려(사대 64) 동문, 필자(홍경삼 이사장 문리대 61)가 참석했다.

10일 11시 반에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준비한 샌드위치로 점심을 하면서 정운호(인문대 82) 부총영사와 질의 응답, 한동만 총영사의 ‘창조경제와 Silicon Valley’ 강의를 경청했다. 오후부터 각자 전공별 4개 팀으로 편성된 계획에 따라 15일까지 Google, Plug & play, Twitter 등 대기업을 방문해 견문을 넓히고 아이디어를 얻는 등 15일까지는 단체행동이 이어졌다. 그 뒤 16일 해산해 각자 또 다른 미국의 면모를 찾아 나서는 행사를 가졌다.***

<글·사진 = 홍경삼(문리대 61) 동창회 이사장>

↑ 사진 앞줄 왼쪽부터 오의미(간호 73), 최승희(인문 81) 임희례(간호대 73), 홍경삼(문리대 61), 강정수(문리대 61), 김종수(공대 74), 최왕욱(공대 69). 두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김범섭(공대 79), 오른쪽 첫째 김대경(공대 92) 두번째 윤필구(공대 93) 동문.



총영사관도 방문해 특강과 질의 응답

모교 벤처 경영학 연합 전공학과 재학생들이 2월 10일 San

Francisco 총영사관을 방문해 정운호(인문대 82) 총영사와 질의

응답, ‘창조경제와 Silicon Valley’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 강의 전에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워싱턴주 동창회

Bellevue Hyatt에서 송년 총회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이원섭·농대 77)가 지난 해 12월 7일(일) Bellevue Hyatt에서 48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회를 가졌다.

제1부 행사에서는 총회 보고와 이원섭 동창회장의 인사, 동문회 동정, 본부 소식에 이어 하주홍(경영대 77) 동문의 회계보고, 김인배(수의대 59) 감사의 회계 감사 보고가 있었다. 또한 수석총무인 필자(임헌민 공대 84)의 사업보고, 영제너레이션 현황 보고, 2014 신규회원 보고, 새해 행사 안내 등이 이어졌다.

동창회를 위해 봉사해준 동문들에 대한 활동상 수상도 있었다. 동문 대외 수상은 시니어 클럽 김재훈(공대 72)회장과 변재준(의대 78) 동문 등이었다. 김재훈 회장은 시니어 클럽에 대한 활동 보고를 해주었다.

동창회 총회에서는 현안에 대해 토의하여 의결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장은 현 이원섭(농대 77)회장이 올 2015년도에도 회장으로 연임하며 다만 자기 회장 역할을 할 부회장 1인을 선임키로 한다.

▶회비 납부 = 회계감사가 동문회비 납부 명단을 e메일로 안내해 회비 납부를 독려하자고 제의, 가결.

▶송년회 = 내년부터 송년회 참가비를 현재의 1인당 60달러에서 70달러로 인상. 연 회비는 100달러 유지.

와인 건배는 건강문제로 오랫동안 나오신 이동립(의대 52)선배께서 “위하여”를 제창해주셨고, 특히 이날 필자(임헌민 총무)는 아들의 치대 입학 등 집안의 좋은 일로 와인 비용을 도네이션하였다. 또 이원섭 회장은 1천 달러를 도네이션 했다.

저녁만찬 후 제2부 여흥으로는 세가지 댄스와 게임을 했다. 세가지 댄스는 성당에서 활동하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무뚝뚝이 게임중 여성 동문이 붓으로 코를 간질이자 가까스로 웃음을 참고 있다. 양파링 과자 넘기기 게임에서 동문 부부들이 열심히 과자를 걸러내고 있다. 동문들이 연지 곤지 찌고 샤넬 백을 드는 등 여장을 하고 나서 심사위원들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있다.

는 민 마리안느 선생의 지도로, 탱고·왈츠·살사 세가지 댄스를 교습받았는데, 회원 모두 무대로 나와 한바탕 춤을 추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온 학생 동문들의 춤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엄청났으며, 최준한(농대 58)·김무웅(음대 64)·이정관(농대 83) 동문 부부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춤 실력을 뽐냈다.

세가지 게임 중 첫번째 게임은, 무뚝뚝이 웃기기 게임으로 남자 동문이 사진 액자처럼 만든 테두리 중앙에 얼굴을 내밀고 있으면 상대팀 여성이 붓으로 얼굴을 간지럽혀 웃게 만드는 것으로 가장 오래 웃음을 참는 팀이 우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콧구멍을 간지럽히고, 눈섭을 문질러도, 도무지 웃지 않았기에, 결국 게임은 싱겁게 끝나, 무승부가 되었다. 서울대는 모두 다 무뚝뚝이 남편들이었던 모양이다.

두번째는, 각팀에서 부부가 출연, 양파링 과자를 빨대에 끼워서 서로에게 넘기는 게임으로, 누가 많이 전달하느냐로 순위를 정하는 게임인데, 모두들 부부금실이 좋아서인지 성적들이 좋았다.



↑ 임헌민 수석총무(왼쪽)와 이원섭 동창회장. 동문과 가족들이 댄스 감사에 맞춰 댄스 연습 중이다.



세번째 게임이 가장 재미있었는데, 팀마다 남자 한 사람을 뽑아 여장을 시켜 얼마나 여성스럽게 꾸몄느냐에 따라 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게임이었다.

처음에는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는데 제한시간 5분이라는 압박 속에 한두분씩 자원해 여장을 시작했는데, 그 때부터 테이블마다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로 호텔이 떠나갈 정도였다.

급기야는 멋지게 장식한 여섯명이 무대로 나올 즈음 다른 팀 멤버를 보고 모두들 더 웃게 되었다. 여장 남자로 나온 분들은, 이명자(간호대 74) 부군, 윤태근(상대 69), 김성호(사대 56), 김인배(수의대 59), 오영호(공대 82), 송준(공대 55) 동문 등이다. 모두들 한껏 있는대로 멋을 부

려 샤넬, 구치 등 명품 핸드백은 기본으로 하나씩 들었고, 다이어 반지를 테이블에서 모아다가 다섯개나 끼고, 얼굴에 연지곤지 찌고, 입술에는 립스틱을 유혹적인 빨간색으로 짙게 바르고, 급조한 스카프도 머리를 두르고 테이블 보로 치마를 만들고 이날 받은 상품 포장에서 꽃을 떼어다가 머리핀 장식으로 갖다 붙이고 하여간, 가지 가지 아이디어와 재치가 만발하였다.

이러다 보니 청담동 아가씨도 나오고, 충청도 아줌마 모습에, 환자같이 칭칭 동여맨 팀도 나오고, 재미 만점이었다.

나중에 각 모델들의 런웨이 위킹을 하는 시연을 가졌는데, 평소에 점잖고 조용하기로 유명한 존경스러운 원로 선배들이, 이날

하루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망가져서 재미난 performance를 보여주었다.

특히 가장 인기는 이명자 부군께서, 마틸린 몬로 걸음걸이로 히프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팔도 하느적거리며 걷는 데다가 눈길마저 너무 유혹적이어서 보는 이들이 환성을 지르기도 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두들 의자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나와서 환호성을 치면서 웃는 통에 사진 촬영이 어려울 지경이었다. 요절복통, 박장대소로 너무 웃어 얼굴이 마비될 지경으로, 이렇게 1년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즐겁게 새 해를 맞이하는 송년회가 되었다.***

<글 = 임헌민(공대 84) 수석총무
사진 = 임현수(임 총무의 son)>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 총회 및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월 7일(토) 오후 5시 캘리포니아 Norwalk의 Double Tree Hotel에서 25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임하는 이서희(법대 70) 전임 회장과 취임하는 신임 박혜옥(간호대 69) 회장은 일찍 skdhk 참석하는 동문 한 분 한 분과 일일이 악수하며 아쉬움과 신임의 기대감으로 맞이했다. 특히 멀리 Washington DC에서 축하차 오인환(문리대 63) 미주 동창회 회장님께서 오셨다.

역시 이날 이임하는 김창신(사회과학대 75) 총무국장의 1부 개회 선언과 함께 이날 최고령 원로 선배와 최연소 동문이 함께 입장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최고 원로 선배는 지난 해 워싱턴 DC에서 남가주로 이주하신 박윤수(문리대 48) 미주 동창회 초대 회장이며 최연소 동문은 이윤종(미대 93)동문이었다.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동문간 단합의 연결이 되는 고리로 이어지는 뜻깊은 감정이 느껴졌다.

서영란(음대 75) 음대 동창회 회장과 방석훈(농대 55) 남가주 동창회 상임이사의 선창으로 미국 국가와 우리 애국가, 교가 제창이 박현정 동문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김창신 총무국장의 사업보고에서는 이서희 회장이 적극적으로 권장해 온 동문 동아리 모임에 대한 많은 후원으로 활발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소개됐다.

1월 이사회, 2월 총회 및 이취임식, 모교 재학생 6명 LA 방문, 3월 임원 상견례, 4월 정운찬 전 국무총리이며 서울대 총장과의 오찬, 5월 임원 수련회, 6월 춘계 골프 토너먼트, 발전기금 모임 및 감사만찬(노명호 남가주 동창회 상임이사의 모교 10만 달러 후원), 워싱턴 DC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 참가, 7월 남가주 동창회 상임이사 친목 골프대회,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행사(230명 참가), 8월 Mammoth 가족 Camping 행사, 9월 Mammoth 사진 감상회, 10월 단과대학 및 임원 회의, 제25회 중앙일보 동창회 대항 골프대회, 춘계 골프대회 11월 직전 및 차기 동창회장 회

의, 11월 공식 Homepage www.snua.net, www.snuasocal.org 출범, 창립 40주년 문화행사 및 송년회 Queen Mary 행사, 12월 IRS로부터 Tax Exempt Status 허가, 연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중앙지역 동아리 발대식(김병연 위원장)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가진 일정이 소개됐다.

박제환(문리대) 재무국장의 재무 보고에서는 많은 행사 후원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이 턱턱했다. 이서희 회장은 다음과 같이 이임인사를 했다.

“벌써 한 해가 지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4년 회기 동안 많은 선배님들이 동창회에 각별히 성원을 해주셔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신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같이 일을 한 임원 여러분, 광고 후원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그간 쌓아온 기반 위에서 더욱 더 남가주 총동창회가 체계화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Club에 더하여 LA를 중심으로 한 중앙지역 Club을 조직해 연대감과 더불어 동창회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왔으며, 동문들의 화합과 참여의식에 앞으로 더욱더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임원들의 열성과 지혜에 힘입어 여러 행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최대 인원참여 및 최상의 장소에서 행해진 Mammoth Lakes 가족 Camping, 공식 Homepage 개설, 회비의 제도화, 야유회를 겸한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개최, 춘계 추계 골프대회, 임원 수련회, 연말 Santa Clause 이웃돕기 행사, 처음 동문들의 문화적 측면을 소개한 Queen Mary 연말 문화행사 등 많은 행사를 기존의 행사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행사는 동문들의 미술·음악·사진·저서·서예·수석·조각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소개하는 행사로 많은 동문작가들이 참여 및 문화작품을 출품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

→남가주 동창회 신임 박혜옥 회장(간호대 69·왼쪽에서 두번째)이 이서희 전 회장(세번째)으로부터 남가주 동창회기를 넘겨받고 있다. 왼쪽은 신임 양민 총무국장, 오른쪽은 박창신 전 총무국장.

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선배님들께서 임원진들을 믿고 호응을 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새로운 임기로 시작하는 차기 회장단이 동창회를 잘 이끌 것입니다. 변함없는 애정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차기 회장단에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혜옥 신임 회장은 다음과 같이 취임 인사를 했다.

“남가주 총동창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동문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남가주 총동창회가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추천해주시고 선출해주신 이사님들과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오늘 이렇게 동창회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총동창회장직이 명예나 감투가 아닌 봉사직임을 명심하고 1년 임기 동안 총동창회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 동문들이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며 아끼는 마음과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 단합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창회를 이끌어 갈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전임 회장님들께서 추진하신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꾸준히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남가주 총동창회는 서로간 친목을 다지자는 의미도 있으나 한 발 더 나아가 모교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 참여,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선배님이 오셔서 격려해주심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축사에서 오인환 미주 동창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가주 동창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주 동창회는 25개 미주지역 동창회 가운데 제일 큰 동창회입니다. 우선 새로 출범하는 박혜옥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수고하신 이서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 동창회 운영을 하다보니 자연스



럽게 생각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25개 지역 동창회가 힘을 모으면 그 잠재력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과 우리 미주 동창회의 Group IQ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의 잠재력과 Group IQ를 힘껏 키워봅시다. 한국에서 제일가는 국립대 출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미국 유명 대학 IVY Leaguer들, 서부의 Stanford, Berkeley, USC, UCLA 동창회와 선의의 경쟁도 해야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와 동시에 개최한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에서는 Stanford 대학 역사학과 부교수인 문유미(외교 85) 동문이 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으로 단군 이래 5000년 역사는 실종되고 미국인 학자들과 서방 세계 석학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일본의 식민지 덕을 보았다든가 중국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23회 전국 평의원 회의에서는 미주 동문들로 구성된 SNUAA 산하에 한국학 연구 그룹을 만들고 지원해주자는 것이었으니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민(공대) 신임 총무국장의 2부 사회로 열린 Garcetti LA. 시장 공로상 수여식에서는 그동안 수고한 이서희 동창회장, 김병연(공대 68) 수석 부회장, 김창신 총무국장, 박제환 재무국장, 조무상 Web Master, 홍선례 문화부위원장 등에게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필자(백옥자·음대 71·미주 동창회 조직국장)는 이미 지난 10월 김진형 박사가 식을 통해 공로상을 받은 바 있다. 성의를 다한 노고가 이 순간에 흐뭇함으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이어 신임 회장단 임원진 발표와 인준에서는 어느 회장 때보다도 많은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임명됐다.

▶총무국장 = 양민(공대) ▶부총무국장 = 이상실(간호대) ▶재무국장 = 박제환(문리대) ▶부재무국장 = 이윤종(미대) ▶사업국장 = 홍성진(약대) ▶부사업국장 = 유혜연(음대) ▶행사위원장 = 김양희(음대) ▶부행사위원장 = 김영혜(문리대)·이완구(수의대) ▶문화위원장 = 홍선례(음대) ▶부문화위원장 = 양수진(간호대) ▶대회협력위원장 = 김인종(농대) ▶가족의 밤 위원장 = 안혜정(가정대)·염인숙(가정대) ▶관악연대장 = 고정범(법대) ▶자문위원 = 김동석(음대)·한귀희(미대)·김용상(공대)·한태호(문리대)·강호석(상대)·이의덕(대원) 동문 등이다.

작은 음악회로 Harp 윤희진 동문과 Flute 최혜성 동문의 축하연주 J. Massenet Meditation from Opera Thaïs 의 2곡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여성스런 두 악기의 조화가 환상으로 이끌며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빈 소개와 상임이사 및 단과대 동창회장 소개가 있었고, 특히 미주 동창회장을 역임한 3분 박윤수(초대 회장)·오홍조(7대 회장)·김은종(11대 회장)과 현임 오인환(12대 회장) 회장 소개도 있었다.

서울대 코럴 합창단의 남촌·송어 합창은 서울대의 위력감을 주었다. 다 함께 건배 후 제2부 순서에서는 사회를 맡은 임항균(사대)동문이 재미있는 게임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기차놀이가 흥미 있었다. 최광희(의대) 부부의 Tango Dance는 멋진 포즈로 Hall을 누볐으며, Carly Fries 연주는 모두 춤을 추게끔 이끌었다. 농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그룹 ‘Sand Pebbles’의 연주도 젊음을 만끽케 했다. 매년 만남이 세월의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 ***

<글 = 백옥자(음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사진 = 조무상(법대 70) 남가주 동창회 Web Master>



남가주 농생대 동창회

신년회 열고 정병혁 회장 유임

농업생명과학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정병혁·농공 70)가 지난 1월 31일 LA의 한식당 용궁에서 열렸다.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신년회에서 2014년도 사업 보고 및 재정보고를 인준했으며 동문 동정, 남가주 동창회 소식, 서울 동창회 소식을 전달했다.

특히 모교 농생대 동창회에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모집 중인 장학위원 선임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뜻있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권유했다.

또한 남가주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연례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9월 노동절 연휴에 있을 동문 가족의 날 행사(Mammoth 2박 3일)에 호응하여 함께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에서는 처음으로 Everest등정에 성공한 오용훈(농생대 97) 동문이 참석해 등

→ 'Sand Pebbles'가 농생대 신년회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반 대장으로서 활동과 등정준비부터 성공하기까지에 얹힌 생생한 경험담을 발표하였다.

이날 2015년도 회장으로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정병혁)를 재추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부 행사로 농생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인기 그룹사운드 'Sand Pebbles' 41기 멤버 남녀 6명이 참석해 특별한 공연을 선사했다. 70~80년대를 풍미하던 '나 어떡해,님은 먼 곳에, 여행을 떠나요'를 포함한 4곡을 불러 동문과 가족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동창회에서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이들은 남가주에 살고 있는 Sand Pebbles 선배 이상호·김인중·김영민·이학진 동문 4명이



전액 부담으로 10일간 미국에 초청, 유명대학 방문, 합동 공연, 관광 등 미주체험을 하는 중이었다. 모교 농생대 동창회에서도 출발시 격려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d Pebbles'는 이어 2월 6일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남가주 관악 연대의 인기 그룹인 '컬리 프라이즈' 공연에도 출연했다.

'Sand Pebbles'는 1970년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창단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대학 밴드로 현재 활동하는 재학생들은 41대

(2학년)와 42대(1학년) 멤버들이다. 이 그룹은 지난 1976년 6대 멤버들이 제1회 대학 가요제에 참가해 '나 어떡해'로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글·사진 = 정병혁 동창회장>



남가주文理대 동창회

신임회장으로 김충현 동문 선출

남가주文理대 동창회(회장 박정모)가 7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2015년 신년 모임 및 총회를 지난 1월 17일 LA의 로텍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文理대 동문들은 신임 회장으로 김충현(물리 72) 동문을 선출하고 올해의 행사를 계획하는 등 친목을 다졌다.

동문들은 이날 교양 강좌로 최근 평양과학기술대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귀섭 박사(전 JPL 연구원)의 보고회도 곁들여 열었다.*** <중앙일보>



남가주 동창회

↑ 오재인 박사의 유가족들.



↑ 지난 2월 14일 치러진 부친인 오재인 박사 하관식에서의 미주 동창회 오홍조(치대 56) 전 회장(제7대)과 부인 에바 오.

고(故) 오재인 박사 동창회 장(葬)

고 청운 오재인 박사의 추모 예배가 지난 2월 13일(금) 오후 6시 월서 연합감리교회 본당에서 남가주 총동창회 장(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정영희 목사님의 집례로 조문객 500여 명과 함께 장엄한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인은 2월 7일 새벽 103세로 타계하셨는데 100세가 넘어서도 절제와 강인함으로 건강을 유지해오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rgan Prelude 석기향 집사님의 Organ 연주는 가시는 고인의 길에 이별의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정영희 목사님의 The Word of Grace 말씀은 은혜로운 삶을 사신 고인의 일생입니다. 김진희 목사님의 기도, 백승배 목사님의 설교와 축도, 이활용 선생의 추모사, 백정현(음대) 동문의 조가(弔歌)와 외손자 박윤재, 수정, 박 앤드류의 추모연주 Trio는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김진진(문리대 62)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께서 고인의 약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고 오재인 박사는 1912년 3월 27일 의사 오명량님과 서복점 여사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1938년 3월 경성 치과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1941년 12월 만주 국립 의학원을 졸업하고 1943년 4월 경성대

학 의학부 제2회 과학교실에서 연구, 의학박사 박위를 받았습니다. 1946년부터 1969년 이민 오기 전까지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대한치과협회 평의원, 대한치과의사 협회 부회장, 대한악안면 성형외과 학회 초대회장, 일본 대학 및 동경외과 치과대학 연구, 재미 한인치과 의사회 및 서울대 치대 동창회 창립해서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미주 서울대 동창회가 창립된 뒤 2대 회장, 남가주 한인 거류민회(한인회 전신) 부회장, 재미 한인 축구협회 창립 초대 회장, 가주 한인 장학재단 이사장(향림회 초대 회장), 한국학 연구회 이사장, 한우회 이사, 청운 장학회 창립 이사장, 재미 한인 공제회 및 인수회, 춘추회 회장, 평화통일 정책 자문회 위원 위촉, 오재인 사회 공헌 기념 축구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또 치과의사 협회 창립으로 후배 미국 치과 면허 취득과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가주 한인의사회, 재미 의료인 연합회, 청운장학회, 축구협회 등 많은 단체를 직접 만드시며 한인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같은 공적으로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다수 공로상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은 2남 3녀로 장남 오홍조(치대 56) 서울대 미주 총동창

회 제7대 회장을 비롯해 장녀 오미영, 차남 오홍철, 차녀 오은영, 삼녀 오자영 과 19명의 손자손녀, 12명의 증손자로 4대의 의사를 대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14일 토요일 하관식은 집례 정영길 목사님과 기도 이도원 목사님, 윤목 목사님과 류문기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와 축도로 하관 예배를 드렸고, 남가주 박혜옥 회장이 장례위원장, 동창회 상임이사 동문들이 장례위원(이기준·오형원·방석훈·임낙균·김진진·김영·노명호·김지영·한종철·이서희·김병연)으로, 총무 양민 동문과 함께 크게 봉사해주었다.

장남인 오홍조 미주 동창회 전 회장은 13일 용수산과 14일 용궁에서 만난 조문객들과 식사를 나누며 다음과 같은 인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난 2월 7일 하나님 곁으로 가신 청운 오재인 박사의 장례에 이처럼 문상과 조의를 해 주셔서 은혜로운 장례의식을 가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동창회(회장 오인환)에서는 조화를 증명했다. ***

<글 = 백옥자(음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위원장. 사진 = 조무상·김지영·백옥자>



↑ 지난 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후배 축구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축구공을 들고 응원하고 있는 오재인 박사

오재인 박사 103세로 작고

초대 남가주 한인 치과의사 협회장, 초대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장, 최고령 치과의사, 4대 의사 집안, 일제시대 경평 축구선수 등 수많은 수직어를 달았던 LA 울드타이머 오재인 박사(치과의사)가 지난 2월 7일 새벽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만 103세다.

오재인 박사는 일제시대 유일한 조선 축구팀이었던 경성치과 의전(서울치대 전신) 축구단의 멤버로 이름을 날렸다.

1934년 9월 4일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 9회 전 일본 고등전문학교(대학)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12-0으로 이긴 기억을 임종 직전까지 자랑했던 축구광이었다. 당시 경성과 평양을 오가는 경평 축구대회 선수로도 활약했다.

한국 전쟁 중 인민군에 체포됐지만 재판관이 함께 뛰었던 평양측 선수여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일화는 유명하다.

오 박사는 도미 전 서울대 의대 교수와 대한 치과의사 협회 회장, 대한 악안면 구강 성형외과 협회 회장 등으로 재직했다.

1969년 LA로 이민 온 오 박사는 재미 한인 축구협회를 창설했으며 지난 해 월드컵에선 붉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할 정도였다. 도미 후 미국면허를 따지 못해 봉제공장 등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던 한국 치과의사들을 위해 재미 한인 치과의사 협회를 설립, 로비를 통해 미국 면허를 취득하는 길을 열었다. 당시 장기열·오수남·남정우씨 등 한국에서 온 15명의 치과의사들이 미국 면허를 취득했다.

오 박사는 치과의사 협회는 물론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가주 한인의사회, 재미 의료인 연합회, 청운 장학회 등 많은 단체를 직접 만들 정도로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오 박사는 2남 3녀를 두었는데 LA지역엔 장남 오홍조(치과의사) 미주 동창회 제7대 회장, 사회활동가인 차녀 오은영씨가 있으며 오홍조 전 회장의 아들이 의사인 것을 감안하면 오 박사의 선친을 포함해 4대째 의사직을 잇는 집안이기도 하다.***

<글 = 이원영(인문대 81) LA 중앙일보 편집국장>



남가주 동창회의 장례위원들



뉴잉글랜드 동창회

102세 동문 어머님께 모교 모자 전달

한층 추웠던 뉴잉글랜드의 지난 12월 ‘따스한 모자 스토리(?)’가 뉴 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음대 71)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지난 해 6월 워싱턴 DC의 평의원회의 때 필자(장수인)는 서울대 로고가 새겨진 기념 모자를 자비로 구입하여 수고하는 임원진과 새로 참여하는 동문들, 원로 선배들께 기쁘게 나누어드린 바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자를 한 개 더 구할 수 없겠는가 하는 긴급 요청을 받았다. 김인수(사대 55)·이춘순(사대 55) 선배 댁에 전달된 서울대 로고가 박힌 모자를 보고 102세의 신좌경 어머니

(권사)께서 너무 너무 욕심내시며 갖고 싶어하신다는 요지였다. 그 댁에 간 본인의 모자를 보신 뒤 한 개라도 가지실 수 있다면 너무 소중해서 꼭 간직하고 싶다고 하셨다.

어머님께선 “자녀(사위 포함) 8명(김춘순·김인순·이강필·이강림·김인수·이준식·김형범·신광순)이 서울대 동문인데 나도 이 모자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었다. 하지만 가진 모자는 동나고...

마침 뉴 잉글랜드 동창회의 연말 파티를 방문해주신 오인환 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결과 워싱턴으로 돌아가시자 마자 어렵게 모

↑ 모두 8명의 서울대 동문을 자녀 또는 사위로 둔 신좌경 어머니(권사)의 100세 백수 축하연 당시의 모습이다.

자 한 개를 구해 크리스마스에 때맞춰 보내주셨다.

급히 이 모자를 신좌경 어머님께 성탄절날 전달해드렸는데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지나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모자를 구해 속달로 보내주신 오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평생 서울대 졸업의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사신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동문의 어머님들도 같은 자부심과 기쁨으로 사셨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하다. 그 마음을 헤아려 따뜻한 수고를 해주신 오인환 회장님께 너무 감격했다. 오인환 회장님, 감사합니다.***

<글 = 장수인(음대 71) 회장>



↑타게하기 전의 최형철 동문이 토요타 자동차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된 부인을 휠체어에 태워 산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최형철 동문 안타깝게 타게

교통사고로 목 부위 이하가 전신마비된 부인을 18년 간 돌보며 거대 공룡기업 토요타와 법정싸움을 하던 보스턴의 최형철(공대 73) 동문이 쾌장암으로 지난 2월 8일 타게해 뉴잉글랜드 동문들은 물론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뉴 잉글랜드 동창회원들은 그동안 최형철 동문의 자택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부인을 대신해 취사를 해주는 등 봉사를 해왔다.<미주 동창회보 2월호 18면 참조>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이웃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향소심 신청을 했으나 돌연 찾아온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가족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됐다.

최형철 동문은 지난 1997년 부인 최혜연씨가 둘째(5살)와 셋째(3살)를 태우고 운전한 토요타 코롤라 승용차가 90번 도로에서 의문의 전복사고를 일으켰다. 구입한 지 1년 밖에 안된 차량이 외부 충격없이 돌연 지그재그로 달리며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척수를 다쳐 목 부위 이하 전신마비가 된 부인을 간호하며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수많은 실험을 거듭하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이같은 사연은 지난 2008년 한국의 모 TV방송으로도 크게 보도된 바 있다.

그러던 2002년 어느 날 토요타로부터 100만 달러의 합의금 제안이 들어왔다.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형철 동문은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토요타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토요타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최형철씨는 증거를 찾아 나섰다.

모교 공대 기계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리노이 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그는 직장을

휴직하고 수많은 실험을 했다. 차량의 흔적을 부위별로 계산하고 심지어 폐차 직전의 코롤라 차량을 구해서 사고 당시 차량과 똑같이 부숴놓고 사진을 찍어 다른 점을 찾아나갔다.

그러던 중 사고 후 11일 동안 견인장소에 보관했던 차량에서 의자를 고친 흔적 등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두 개의 증거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구해준 여자 경찰이 재판 전 진술에서 구출 당시 의자가 부서진 상태였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도 듣게 됐다. 그가 의문을 제기한 증거와 정확히 일치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 재판에서 이러한 조작 문제는 제시되지 않은 채 패소했다. 수만 달러의 조사비용을 들여 천신만고 끝에 찾은 증거를 제기하지 않은 변호사와 결별한 후 최 동문은 직접 향소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재판 때 토요타 측이 최 동문이 사고와 관련된 과학적 증언을 하는 것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변호사도 없이 최고의 로펌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였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최 동문이 근무하던 폴라로이드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생계의 위기까지 닥쳤다.

부인 최혜연씨는 “과거 합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바보라고 했다. 당시에도 우리 집 사정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그래도 받지 않았던 것은 운전 잘못이 아니라는 결백이 증명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재판은 끝났지만 최 동문은 포기하지 않았다. 끝없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요타측의 위증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증거조작 사실제기 시점에 대한 토요타측의 결정적 모순을 잡아낸 그는 지난해 7월 재심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다.***



테네시 동창회

오사카 레스토랑에서 모임 가져

테네시 동창회(회장 박재현 자연대 81)가 지난 해 4월 24일 Osaka 식당에서 2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함께 친목을 나누는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특히 정진근 동문은 ‘집 사고팔기’를 주제로, 백승준

동문은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을 주제로 교양 및 건강 강좌를 실시해주었다.

이 강좌를 맡아 준 동문들에 대해 “미주 사회의 이민 실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익한 presentation도 곁들여 해주어 동문들은 물론 가족들로부터 아주

↑테네시 동창회 회원과 가족들이 모임후 기념촬영을 했다.

실용있는 강좌였다”는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서울의 총동창회에서는 테네시 동창회에 지부 banner를 제작해 보내왔다.

테네시 동창회는 회원들 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연간 두차례에 걸쳐 이번과 같은 모임을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워 지금까지 친목 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

<글 = 박재현(자연대 81)회장>



관악세대/Acro광장

치매예방과 ‘뇌섹남’

**이원영(인문대 81) CA
LA 중앙일보 편집국장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한의학 박사**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31일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들 마모씨와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동반자살로 보고 있다. 이들 가족은 청소용역 사업을 해 오다 마씨의 80대 부친이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사업이 기울었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수개월 동안 마씨는 부친의 치매 간병에 매달리면서 무척 힘들어했다고 지인들은 전한다.

‘치매’의 한문 뜻을 보면 ‘치(癡)’자는 정신에 병이 들었다는 뜻이고 ‘매(呆)’는 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있는 형상문자로 어리석다는 뜻이다. 정신에 병이 들어 어린이가 같이 되어버린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치매가 오면 정상적인 지적·인지 기능을 잃어버린다. 인격에도 변화가 온다. 그 때문에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형클어진다. 평생 맺어온 친밀감이 절연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 가족의 마음이 오죽할까. 그래서 간병도중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종종 발생한다. 치매는 아직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데 발병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나이 들수록 자기 또는 가족 중에서 치매와 맞닥뜨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9.18%에서 치매 증상을 보였다. 10명 중 한 명이 치매란 얘기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증상은 2012년 54만명에서 15년 후인 2030년엔 1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80세 이상 노인의 20% 정도가 치매에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치매는 정작 걸린 본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지적 능력을 상실하기에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질 수도 있다. 문제는 가족들에게 말할할 심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이다. 기억력 저하, 동작 둔화, 적응력 감소, 의존성 심화, 고집 등은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보이는 행태들이다. 그 중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전조 증상은 ‘자기중심적인 완고함’이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우기는 그런 성격은 치매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치매를 불러오기 쉬운 노인의 ‘고집증’은 왜 생길까. 노인정신의학 전문의로 수천 명 노인의 뇌사진을 판독해 온 의사와다 히데키는 “뇌의 ‘전두엽’

‘감정바이러스’의 전염성

**한정민(농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지난 2013년 12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시작해 확산한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EVD)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지난 1월 13일 보고를 보면, 지금까지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 수는 8천371명에 이른다고 한다. 공기로 전염되지 않고 피나 땀, 침과 같은 체액의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된다 해도 워낙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도 90%가 넘기 때문에 각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대처 방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눈에 안 보이나 현미경으로 보면 엄연히 존재하는 미세한 바이러스의 위력이 실로 무섭고 공포스럽다. 반면, 존재하지 않아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지만 전염성을 가진 것들이 있다. 누군가 하품을 하면 잠시 후 교실 끝에 앉은 학생도 하품을 하는 현상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도 그 중 하나다. 사람의 감정도 감기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을 가지는데, ‘감정의 전염’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말투, 목소리, 자세 등을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고 자신과 일치시키면서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경향’을 뜻한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굳이 그 사람과 많은 말을 안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경험을 한다. 반

대로 밝고 환한 미소로 “잘 될거야” “우리는 잘 할 수 있어” 등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힘이 솟고 마음도 희망적으로 바뀐다. 이 같은 감정의 전염은 뇌 속에 있는 거울신경세포 때문에 일어난다. 이 세포는 남이 하는 행동을 마치 거울처럼 반영해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이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출근길에 웃는 표정의 동료들 만날 경우 함께 미소를 짓게 되고, 기분 좋은 동료를 만나면 자신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끼리 한 공간에 대화 없이 2분간 앉아서 얼굴을 마주 보고만 있어도 서로의 감정에 동화된다고 한다. 이처럼 모든 감정이 전염성을 가지는데, 시카고 대학의 카시오포(Cacioppo)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전염성이 높다고 한다. 그는 “공포,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은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감정보다 인간의 생존 본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감정 표출에 더 크게 나타나고, 주위 사람들도 자신의 생존 위협을 감지하며 부정적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이같은 감정의 전염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 친구의 친구, 이웃 등 3단계 건너까지 전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람이 외롭다고 느낄 경우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52%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직장 내에 부정적 감정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자신의 감정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감정을 함께 모니터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배우자나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이 눌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이 전염된다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글을 게시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부정적인 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다행이 SNS에서는 부정적인 글보다는 긍정적인 글의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이용자들이 SNS를 통해 좋은 감정 교류를 원하고 즐겁고 좋은 모습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나쁜 감정보다는 좋은 감정이 더 많이, 더 쉽게 전파된다고 한다. 겨울에는 날씨 때문에 집에 갇혀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기 쉽다. 또한 햇빛의 양이 적어져 우울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 때는 비극적인 영화나 슬픈 노래나 드라마를 피하고,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글을 일부러 찾아 읽고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코미디나 쇼 프로 등을 권한다. 또한,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격려와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 감정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전염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 계절이다. 혹시 우울함이 나를 감싸고 있다면 오늘은 서서히 다가오는 봄햇살을 향해 기지개를 펴고 밖으로 나가보자.<4monicalee@gmail.com> ***

이 파괴될수록 망령과 고집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전두엽은 대뇌의 앞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사고·의욕·감정·성격·이성을 담당한다. 완고한 영감 고집쟁이 노인이란 말은 전두엽이 파괴되기 시작한 노인이란 뜻이다.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해 새로운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유일한 잣대인 양 설교하는 사람도 전두엽 파괴형 인간이다. 결국 전두엽의 파괴가 계속되면 치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참고로 고혈압 등 약을 장기복용하는 것이 전두엽 파괴와 치매의 원인으로 보는 전문가도 많은데 필자도 그렇게 믿고 있다). 전두엽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속칭 ‘뇌섹남’이 되면 가능하다. ‘뇌가 섹시한 남자(사람)’란 뜻이다. 주관이 뚜렷해서 할 말은 하되 의견이 대립되면 유연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신문(책)을 많이 읽어 지식과 언변이 좋고 호기심과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을 지칭한다. 요즘 그런 ‘뇌섹남’이 인기다. 육체적인 섹시함을 지키는 건 한계가 있다. 뇌를 섹시하게 유지하는 것 치매 없이 건강하고 인기 있는 삶의 비결이 아닐까.***

나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소위 말하는 인문학이다. 30년 전, 그 때도 인문학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 진로가 한정되어 있고 취업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선택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배짱이었다. 그래도 시대를 잘 만난(?) 덕에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이, 졸업장 하나 달랑 들고도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 3년 뒤엔 신문사로 옮겼다. 기자가 된 뒤 비로소 전공 선택이 나쁘지 않았구나 생각했다. 역사 공부 방법론은 세상을 읽어 내고 분석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문제를 짚어 내고 대안을 찾기 위해 쟁론했던 경험도 큰 자산이었다. 지금까지 대학서 쓸모없는 공부를 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다. 그렇지만 지금 누군가가 인문학을 전공하겠다고 물어 오면 쉽게 그렇게 하라고 나설 자신이 없다. 작금의 '인문계 취업 대란' 사태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한다. 사실 요즘처럼 인문학을 많이 이야기하는 때는 없었다. 인문학 속에 길이 있다며 모두가 인문학을 들먹인다. 쏟아져 나오는 책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며, 모모 재벌 회장님이 그랬다며 너도 나도 인문학 공부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도 정작 인문학 전공 젊은이들은 울상이다. 취업이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 최고 명문이라는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조차도 순수 인문계 전공자는 절반도 취업을 못한다고 한다. '인문계 출신 구십 프로가 논다'는 '인구론'이라는 신조어는 그런 현실의 처절한 반영이다. 그래도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졸자가 너무 많아진 탓도 있고 경제가 안 좋아서이기도 하다지만 지금 상황은 분명 도를 넘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 대목에서 인문학의 본질을 한 번 더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인문학이 무엇인가. 문학, 역사, 철학 등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학문이다. 고고학, 언어

학, 종교학, 미학, 여성학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궁구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대중과는 거리가 멀었다. 입과 머리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소수의 리더들, 혹은 삶을 고뇌하는 일부 선각자들만 매달렸다. 동시에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교양으로 하는 '귀족 학문'이었다. 그런 용도는 물론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요즘 같은 인문학 대중화는 모순이다. 인문학 전공자의 취업난 또한 예고된 결과다. 이런 인문학의 속성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학과를 만들고 정원만 늘려온 대학은 그래서 가장 먼저 반성해야 한다. 또 인문학이 비실용 학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전공으로 선택한 본인들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다. 세태에 영합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당장 연구하고 생산하고 판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재를 고를 수밖에 없다. 관련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널렸는데 어떤 기업이 인문학 전공자를 먼저 뽑겠는가. 취업을 위해서라면 요즘 각광받는 '스텨م(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전공'이나 의약 분야에 도전하면 된다. 그럴 능력이 없거나 그 쪽은 도저히 내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굳이 인문학을 전공해야겠다고 대신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거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배고플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다. 금 숟가락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인문학도에게 지워진 사명이니 숙명이다.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물질 만능으로 바뀐다 해도 누군가는 여전히 실존을 고민하며 인간의 길을 찾아야 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인문학의 존재 이유이자 인문학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이래저래 인문학 전공자는 머리가 아프다.***

인문학 전공자가 사는 법

**이종호(인문대 81) CA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종호(인문대 81) CA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소위 말하는 인문학이다. 30년 전, 그 때도 인문학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 진로가 한정되어 있고 취업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선택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배짱이었다. 그래도 시대를 잘 만난(?) 덕에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이, 졸업장 하나 달랑 들고도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 3년 뒤엔 신문사로 옮겼다. 기자가 된 뒤 비로소 전공 선택이 나쁘지 않았구나 생각했다. 역사 공부 방법론은 세상을 읽어 내고 분석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문제를 짚어 내고 대안을 찾기 위해 쟁론했던 경험도 큰 자산이었다. 지금까지 대학서 쓸모없는 공부를 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다. 그렇지만 지금 누군가가 인문학을 전공하겠다고 물어 오면 쉽게 그렇게 하라고 나설 자신이 없다. 작금의 '인문계 취업 대란' 사태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한다. 사실 요즘처럼 인문학을 많이 이야기하는 때는 없었다. 인문학 속에 길이 있다며 모두가 인문학을 들먹인다. 쏟아져 나오는 책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며, 모모 재벌 회장님이 그랬다며 너도 나도 인문학 공부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도 정작 인문학 전공 젊은이들은 울상이다. 취업이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 최고 명문이라는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조차도 순수 인문계 전공자는 절반도 취업을 못한다고 한다. '인문계 출신 구십 프로가 논다'는 '인구론'이라는 신조어는 그런 현실의 처절한 반영이다. 그래도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졸자가 너무 많아진 탓도 있고 경제가 안 좋아서이기도 하다지만 지금 상황은 분명 도를 넘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 대목에서 인문학의 본질을 한 번 더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인문학이 무엇인가. 문학, 역사, 철학 등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학문이다. 고고학, 언어



관악세대/Acro광장

‘부자증세’ 라는 함정

민경훈(법대 78) 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 논설위원

미국이 평화시에 연방 소득세를 처음 징수하려 한 것은 1894년이다. 1860년대에도 직접세를 부과한 적은 있었지만 그 때는 남북전쟁이란 특수 상황이었고 전쟁이 끝나자 세금도 사라졌다.

연방 정부는 그 해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세금은 상위 2%를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고 세율도 2%로 매우 낮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연방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직접세를 부과할 때는 인구 비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헌법을 고쳐 연방 소득세를 걷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 결과 1913년 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연방 정부가 직접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정 헌법 16조가 통과되고 지금의 IRS가 생겨났다.

첫 세율은 개인의 경우 연 3천 달러(2010년 현재 가치로 7만 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 1%, 50만 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 7%로 지금에 비하면 턱없이 낮았다. 실제로 IRS가 생긴 지 여러 해 동안 세금을 낸 사람은 미국민의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부의 지출은 계속 늘어났고 세율과 과세 대상도 점점 늘어났다. 제2차 대전 때는 최고 세율이 94%까지 치솟았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미국 소득세율이 본격적으로 낮아진 것은 80년대 레이건이 집권하면서부터다. 레이건은 두 차례의 세제 개혁을 통해 70%의 세율을 50%로, 50%에서 다시 28%로 낮췄다.

세율은 낮아졌지만 80년대 연방 정부의 세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높은 세금으로 투자와 비즈니스 매매를 꺼리던 자본가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민의 실질 소득은 늘었고 실업률은 줄어들었다.

미국 경제는 지난 90년대 말과 2000년대 중반에도 고속 성장을 했지만 이 때 성장은 하이텍 버블과 부동산 버블 덕이었다. 지난 30년간 그나마 견실한 성장을 이룬 것은 80년대가 마지막인 것 같다.

미국인보다 ‘부자 증세’ 를 더 좋아하는 프랑스는 작년 말로 연 소득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해 부과하던 75%의 부유세를 조용히 폐지했다. 프랑스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유의 러시아 망명 등 고소득자의 탈 프랑스 러시도 이유였지만 이로 인한 2년간 세수가 4억 유로에 불과해 8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다가 전 세계 투자가들로부터 기피 대상국이 되는 불명예까지 안았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외국인 투자 기피와 국내 자본의 해외 탈출로 입은 손실은 부유세 수입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얼마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학자금 마련을 위한 529 면세 계좌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공화당의 반대도 반대지만 민주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이 계좌의 최대 수혜자가 부유층이라 보고 이를 없애 커뮤니티 등록금 지원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이 계좌 수혜자에 부유층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현행 누진세 아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에 혜택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계좌는 1천200만 명의 미국인이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얼마 전 고교 한국에서는 연말 정산 규정 변경을 통해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던 정부 계획이 백지화됐다.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음에도 다수 봉급생활자에게 추가 부담이 지워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들고 일어나 결사반대했기 때문이다. ‘부자 증세’ 에는 누구나 찬성하지만 중산층인 내가 내는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누가 부자고 누가 중산층이나를 결정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다. 증세의 첫 타겟은 부자지만 결국에 가서는 중산층 증세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부자는 적고 중산층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간의 역사와 최근 세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부자 증세’ 가 말처럼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건강의학 칼럼

고구려인 수명 30세, 현대인은 85세, 그 차이는 왜?

차민영(의대 76)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오늘 날 21세기에 태어난 우리는 참 행복하다. 갑자기 왜 행복타령이냐고 의아해 하실 것이다. 나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수명연장으로 누리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고구려·신라·백제인들은 평균 수명이 30세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인은 평균 수명이 85세가 된다. 즉 3배 가까이 더 살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구려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이 평균수명 30세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그때의 고구려인들이 지금 태어났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85세 장수를 즐길 것이다.

우리와 100% 같은 사람인데 우리만 3배 더 살게 되었다. 그 차이는 왜 생겼을까?

우리는 왜 그 시대 사람보다 3배 넘게 살게 되었을까? 그 답은 현대의학 때문이다. 즉 항생제, 고혈압 약, 당뇨 약, 항암제의 덕택인 것이다. 그 외에도 마취

약, 각종 수술법의 개발 등의 덕택이다.

간단히 맹장염(충수염)으로만 생각해보자. 만약 여러분이 고구려 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태어나 맹장염에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간단한 수술로 금방 치료가 된다. 하지만 옛날 같으면 맹장염을 며칠 앓다가 터져서 복막염으로 발전돼 열이 104° F로 며칠간 오르내리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또, 유명한 문인들도 감기에 걸렸다가 폐렴으로 발전하여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경우가 많다. 그것은 왕자나 공주로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단순한 감염질환으로 일찌감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먹는 항생제에 감사하시길 바란다.

또 고혈압 약, 당뇨 약을 생각해 보자. 만약 여러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 약들이 없었다면 몇 년 안에 중풍(뇌졸중)이나 심장마비(심근경색)에 걸려 팔다리도 못 쓰고, 눈이 안 보인다든가 전신 마비에 걸려 삶을 원망하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크다.

많은 분들이 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주면, “나는 약 먹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드시는 분들이 많다. 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생각이 든다. ‘뇌졸중에 걸리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데, 이것을 막아주는 생명 약이 바로 이 고혈압 약, 당뇨 약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뇌졸중(중풍) 간접 경험을 하고 싶으면, 밧줄로 몸을 의자에 묶고 세시간 정도만 있어보라. 그러면 약간 경험을 할 것이다. 이것을 5-10년 켜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고혈압 약, 당뇨 약이 조금 고맙게 생각되는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아니, 그러면 약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약을 복용하지 않고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50-60세에 돌아가시거나, 약을 먹고 80-9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든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약은 잘 쓰면 생명 약이고 보약이지, 독약이 아닙니다. 약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약을 무조건 싫어하고 먹지 않는다면, 지금 태어났어도, 고구려 시대에 태어난 것과 같이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살다가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봄, 정치의 봄

노재원(인문대 82)CH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立春)이 훨씬 지났지만 시카고의 봄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겨울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은 커녕 엄동설한이다.

지난 2월 초 시카고엔 기상 관측 사상 다섯번째로 많은 19.3인치의 폭설이 쏟아졌다. 북서부 교외 도시 강설량은 최대 22인치에 달했다. 그 달 주초에 또 다시 2인치의 눈이 더 내린 시카고는 말 그대로 ‘겨울왕국’이었다. 보행자를 위한 길은 제설차량들이 밀어놓은 눈이 허리께까지 쌓여 기능을 상실했다. 도로는 제설제로 범벅된 거무튀튀한 눈길로 질척거렸다.

지난 겨울보다 덜 춥다고는 하지만 시카고의 겨울을 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다. 연초 독감이 기승을 부리더니 최근엔 지난 연말 디즈니랜드에서 시작된 홍역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다. 전염성이 강한 홍역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보다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과 보건당국은 “홍역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을 꼭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홍역 백신이 자폐증과 연관성 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은 강요할 일이 아니



다. 개인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반박했다. 홍역 백신은 자폐증 등과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일반적이지만 국민 건강을 볼 모 삼은 정치권의 입씨름은 불쌍사나이다.

미국에서 살면서 다양성과 개성의 경계를 생각할 때가 많다.

홍역 백신 접종 문제만 해도 그렇다. 종교적이나 의학적인 이유로 특정인이 이를 거부할 때 사회가 강요할 수 있는가. 홍역 같은 질병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 제대로 된 정의인가.

문득 작년 가을 에볼라에 감염된 동부 지역의 한 간호사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 ‘호위 아닌 호위’를 하던 보건 당국 관계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불편하고 복잡한 데다 이렇다 할 장점을 느낄 수 없는 오바마케어는 지금도 누군가의 치적이나 치부를 위한 제도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수퍼보울이 열린 지난 2월 초 주말 저녁 폭설이 한창일 때 신문 제작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도

로가 엉망이었다. 편도 3차선 고속도로는 겨우 한 개의 차선만 뚫려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은 거의 눈이 치워지지 않고 있었다. 눈속에 처박혀 오도 가도 못하는 자동차도 종종 눈에 띄었고 미끄러운 도로에서 접촉사고로 서 있는 차량들과 운전자들도 이따금 보였다. 차량 통행이 적은 일요일 밤, 게다가 눈까지 계속 오는 상황에서 제설 작업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과 개인의 휴식 또는 자유의 소중함, 효율성 등이 머리 속에서 분분한 눈처럼 날렸다.

겨울은 밤이 일찍 찾아오고 추위와 눈 때문에 야외 대신 실내에 머무를 때가 잦다. 불편하긴 하지만 덕분에 책 읽을 시간이 더 생기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 좋다.

가끔은 쓸 데 없는 공상이나 뒤죽박죽 망상에 빠지지만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때때로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에 밀려오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떠올리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먹빚처럼 까만 겨울 밤하늘, 총총히 박힌 별빛 사이로 아릿한 추억들이 눈꽃처럼 피어난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가슴이 시려 오기도 하고 답답하고 허무한 기억도 찾아온다. 여러 겨울 햇살에도 이내 사라질 겨울밤의 풍경이지만 사유는 인간을 성장하게 만들고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눈부시게 차가운 겨울 눈발 아래 어디엔가 봄은 작은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봄은 더 가까워진다. 새봄을 기다리는 성마름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날들이다.***



영화 이야기

아바타(Avatar)



이건일(의대 62) CA

나는 몇년 전에 나온 이 영화를 3D로 보았는데 옛날 입체 영화적 보다 더 발전되어 아주 현실감이 많아 좋았다.

뉴욕 타임스 영화 평론가인 마놀라 다지스(Manohla Dargis)에 의하면,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은 최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적으로는 아주 발전된 기법을 이용하여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는 본질적으로는 아주 고전주의에 속하는 영화작가라고 말하고 있다.

▶**영화의 줄거리** = 가까운 미래에 에너지 고갈 문제로 멸망해가는 지구.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주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마지막 목표는 ‘이익’이라 강조하는 대기업체에서 과전환자들이 지구생존에 꼭 필요한 ‘가질 수 없는 물질(Unobtainium)’을 채굴하기 위해 용병들을 앞세워 머나먼 행성 판도라(역시 그리스 신화에서 인 용해 희망을 나타냄)를 침공하러 떠난다.

‘Unobtainium’,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름인가. 감독의 신랄한 비꼬는 느껴진다. 하지만 판도라의 독성을 지닌 대기(大氣)로 채굴 작업이 어렵자 회사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게 된다.

즉 판도라의 토착민 ‘Na’vi족’의 외형에 인간의 의식을 주입, 원격 조종이 가능한 새로운 생명체 ‘Avatar’를 탄생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 용병들을 태운 우주선이 판도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함부로 총을 쏘아대는(trigger happy) 아주 악질인 용병 지휘자가 부하들에게 “You are not in Kansas anymore!”라고 외치는 것은 감독이 ‘Wizard of Oz’에 보내는 인사라고 하였다. 이 나비족들은 동물을 죽여도 “내가 살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너를 죽이지만 참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기도하는 환경 친화적(Eco-friendly)이며, 자연에 순응해 살면서 자연의 혜택을 고마워 할 줄 아는 종족이다. 실제 아메리칸 인디언(요즈음은 Native American)들이 그렇

게 생활했다고 한다.

한편,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 설리(Jake Sully, Sam Worthington 분)는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제안받아 판도라로 향한다. 그 곳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된 ‘제이크’는 자원 채굴을 막으려는 ‘나비족’에 침투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임무 수행 중 ‘나비’의 여전사 네이티리(Neytiri, Zoe Saldana 분)를 만난 ‘제이크’는 그녀와 함께 다채로운 모험을 경험하면서 ‘네이티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간다.

그러나 용병들과 나비족 사이에 행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규모 전투가 시작되면서 ‘제이크’는 최후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처음부터 짐작하던 대로 사랑의 힘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만들고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이 이야기는 마치 미국 개척사에 나오는 Pocahontas(c.1595 - March 21, 1617. 현재 Virginia 주에 살았던 인디안 공주, 영국인 이주자 John Rolfe와 결혼) 이야기와 흡사하다.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와 사랑에 빠지는 공주와 결국은 원주민에 동화되게 되는 침입자의 이야기 말이다.

▶**최첨단 그래픽 영상의 작품** = 이 영화의 매력은 아주 첨단 Computer Graphic Technic을 이용한 아름다운 화면으로 사람들의 주의력을 2시간 46분 동안 붙잡아 놓을 수 있었다는 것과 또 영화 속에 녹아 있는 신화 때문이다.

‘아바타’ 속에는 ‘판도라’라는 행성의 이름에서 보듯이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아바타로 대표되는 인도의 신화, 그리고 나비로 표현되는 장자의 꿈까지 다양한 신화의 세계가 중층무진으로 엮여져 있다. 영화 속에 복선처럼 깔려 있는 신화의 세계를 살펴보면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세계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꼭 극장에 가서 큰 스크린(3D)으로 보아야만 되는 몇 안되는 그런 영화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주> 인도 신화의 ‘아바타’ = 인도 인구보다 많다는 인도의 신(神). 그 신들은 주신이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하강한다. 이렇게 신이 인간이나 동물형상으로 하강하는 것을 ‘화신(化身)’ 혹은 ‘Avatar’라 한다. 이를테면 힌두교의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 신(Vishnu : 커다란 금시조(金翅鳥)를 타고 다

A Fish called Wanda



박준창(인문대 79) CA 변호사

4명의 도둑과 이들 때문에 애꿎게 당하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을 맞는 순진한 변호사와 도둑의 얼굴을 본 할머니 증인의 이야기로 유쾌한 영국영화다.

▶**영화의 줄거리** = 런던의 사기꾼이며 도둑인 George는 다이아몬드 강탈을 위해 부하인 말더듬이 Ken 외에 미국에서 와다 Wanda와 Otto까지 끌어들인다. 와다는 조지 애인인데 실제 그녀의 애인은 오토(와다 역은 Jamie Lee Curtis가 맡았는데, Arnold Schwazenegger와 공연한 영화 True Lies에서처럼 또 한번 진지한 척하면서 너무나 웃긴다). 와다는 그냥 애인인 척해 주는 것 뿐이고, 와다와 오토는 다이아몬드 강탈 후 조지를 내쳐버릴 심산이다.

2천만불짜리 다이아몬드 강도짓은 잘 끝난다. 단 하나 문제라면 요크셔테리어 3마리를 끌고 산책하던 할머니가 조지를 본 것. 와다와 오토는 조지를 경찰에 고발, 조지는 체포된다. 그런데 와다와 오토가 다이아몬드를 가지려 하니 조지는 이미 다이아몬드를 다른 데로 옮겨버린 후다. 악당들은 이래서 다질이 좋지 않다. 모두 배신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숨겨진 곳의 열쇠는 켄에게 준다.

조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켄에게 자신의 얼굴을 본 할머니 살해를 지시한다. 켄은 강도지만 동물을 끔찍이 사랑하는 줌모자라는 순진한 인물이다. 어항에 고기를 키우면서 가장 아끼는 고기에게 와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성스럽게 보살핀다. 켄은 조지에게서 받은 열쇠를 상자에 넣어 어항 속에 두고 맹견으로 할머니를 살해하려다 자신만 맹견에게 물리고 요크셔테리어만 죽는다. 개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린 켄은 자동차로 할머니를 죽이려다 또 실패, 개 한 마리를 또 죽인다.

한편 와다는 켄이 열쇠를 보관하는 걸 훑쳐보고 열쇠를 꺼낸 다음 자신의 펜던트 목걸이 안에 보관한다. 조지는 다이아몬

드를 어디에 두었는지 와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결국 와다는 조지의 변호사에게 접근, 다이아몬드를 알아내고자 한다. 조지의 변호사 아치는 증인과 얘기하면 안 된다며 와다를 피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에, 매력 있는 와다가 자꾸 접근해 오니 물리칠 수가 없다.

와다는 실상 오토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토는 니체의 철학 서적을 읽는 지식인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벨기에 사람으로 알고 있는 엉터리 지식인. 그리고 엉터리 이태리어를 마구 지껄여 대는데, 이는 와다가 이태리어나 러시아어 같은 외국어를 남자가 하는 걸 들으면 그냥 오르가즘이 느껴지는 탓이다. 오토는 영국인의 지성이나 우월함을 참지 못한다. 성질은 급하고 못돼먹어 아무데서나 총을 꺼낸다. 그가 제일 참지 못하는 말은 “어리석다, 바보다(stupid)”라고 불릴 때. 그런 말을 한 상대는 오토에게 단단히 욕을 본다. 그러면서 본인은 자신이 잘못해도 미안하다는 말이 도저히 안나오는 불한당이다. 와다는 실제로 오토를 배신하고 다이아몬드를 혼자 가질 계획인데, 질투가 심한 오토가 매번 나타나 와다와 아치의 데이트를 훼방 놓는다.

아치는 와다와 밀회를 위한 노력하는데 눈물겹다. 집으로 찾아 온 와다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가 했더니 오토가 방해하지, 갑자기 아내와 딸이 들이닥치지 않나, 와다가 급히 나가느라 빠뜨린 목걸이(중요한 열쇠가 된 목걸이)를, 돌려대느라 선물로 아내에게 주고 만다.

아치는 휴가 간 친구 집을 빌려 와다와 밀회를 다시 계획하는데 오토가 또 나타나 방해한다. 오토는 아치가 그를 stupid라 했다고 아치를 거꾸로 창밖에 매달아 사과를 요구한다. 그런데 사과가 참 변호사답다.

“저는 아끼지 않고 사과합니다. 저는 그 말의 완전하고 완벽한 취소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시사는 사실에 있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으며, 결코 정당한 말이 아니었고 순전히 악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내 말로 인해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끼쳤을 고통에 대해 심히 후회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그러한 중상모략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I apologize unreservedly. I offer a complete and utter retraction.

The imputation was totally without basis in fact and was in no way fair comment and was motivated purely by malice and I deeply regret any distress that my comments may have caused you or your family and I hereby undertake not to repeat any such slander at any time in the future.)”

그런데 와다는 목걸이를 되찾아야 하니 목걸이 없이는 아치와 안 만나겠다고 한다. 아치가 목걸이를 잘못 준 거라고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 왈 선물이라곤 변변히 받은 게 없으니 기어코 자기가 가지겠다고는 것 아닌가. 진퇴양난에 빠진 아치. 결국 도둑으로 가장하고 자신의 집을 털다. 목적은 물론 목걸이를 와다에게 주기 위한 것. 그런데 와다의 요구 때문에 오토는 어쩔 수 없이 아치를 거꾸로 매단데 대해 사과해야만 한다. 사과하러 아치 집에 간 오토는 도둑으로 변장한 아치를 못 알아보고 아치를 때려 기절시키고 두 손을 묶어 둔다. 이때 집에 돌아온 아내. 정신이 든 아치는 목걸이를 입으로 주워 아내에게 들통 날 위기를 모면한다.

목걸이를 주게 된 아치는 와다와 다시 밀회 중 그 집에서 살게 될 가족들이 들이닥쳐 그 집 꼬마는 아치의 그 부분을 흥미롭게 들여다보고, 개망신 당한 아치는 와다를 포기한다.

오토는 아치에게 총을 겨누고 사과가 필요없다는데도 기어코 사과한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아내가 목격, 오토가 와다와 관계를 언급하는 바람에 아치의 바람 행각을 알게 된다. 그 사이 켄은 또 실수로 남은 요크셔테리어가 죽고 충격받은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숨진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와다는 조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조지가 강도 현장에 없었고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해야 하는데 반대로 증언한 것. 당황한 아치는 와다를 “달링”으로 부른다 아내로부터 이혼선언을 듣는다. 이제 잃을 것 없는 아치는 와다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남미로 튀기로 한다. 우여곡절 끝에 아치는 와다가 탄 비행기에 타고 켄은 사랑하는 물고기 와다를 오토가 삼킨데 대한 복수로 오토를 시멘트 고르는 중기로 눌러 버린다. 복수가 하도 통쾌해 말다듬증이 고쳐져 버린다. 모든 것은 해피엔딩. 와다와 아치는 결혼해서 17명의 애를 낳고 켄은 London Sea World의 사회자가 되며 오토는 남아공의 법무장관이 된다—고 마지막에 자막으로 나온다.

유쾌한 코미디. 안 보면 후회할 영화다.***

니며 악을 제거하고 정의의 회복을 유지하는 신으로 평화의 신)의 화신은 10개(The ten avatars of Vishnu)인데, 마츠야(Matsya, 물고기), 쿠르마(거북이), 바라하(뱀뱀지), 느리싱하(반인반사자), 바마나(난장이), 파라슈라마(용사), 라마(푸른색 피부를 가진 물의 신), 크리슈나(Krishna), 붓다(Buddha, 석가, BC 563~483), 칼키 등이다. 인도 그림이나 조각을 볼 때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각양각색의 동물이

나 신들이 모두 ‘아바타’다. 오늘날 인터넷 상에서 아바타는 게임, 채팅, 메일 쓸 때 사용자의 캐릭터를 대신하는 그래픽 아이콘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미 이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쓰였다.

Written and directed by James Cameron; director of photography, Mauro Fiore; edited by Mr. Cameron, John Refoua and Stephen Rivkin; music by James Horner; visual effects supervisor, Joe Letteri; 20th Century Fox. Run-

ning time: 2 hours 46 minutes. WITH: Sam Worthington (Jake Sully), Zoë Saldana (Neytiri), Sigourney Weaver (Dr. Grace Augustine), Stephen Lang (Col. Miles Quaritch), Michelle Rodriguez (Trudy Chacon), Giovanni Ribisi (Carter Selfridge), Joel David Moore (Norm), C C H Pounder (Mo’at), Wes Studi (Eytukan) and Laz Alonso (Tsu’Tey). Zoë Saldana and Sam Worthington. ***

아메리칸 드림 50년<20>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웅장한 건축규모는 밖에서 느낀 바와 같이 안에서도 훌륭한 조각 장식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건축물 색상은 퇴화했지만 찬란한 신과 제사장 왕의 영접 장면을 상상해보면 인류역사 당시의 과학과 예술과 종교의 삼위일체를 이루었음을 감개무량하게 체험할 수 있다. 해가 지는 오후 호수에 비치는 앙코르왓 서쪽 전경은 처음 프랑스 파리에 들렀을 때 에펠탑이 강물에 비치는 것을 보고 느꼈던 것처럼 지구를 떠나 멀리 어느 별나라에 온 느낌이었다.

▶크메르 제국의 황금기 = 자야바르만 7세(1181AD)에 앙코르톰 사원과 궁전들이 건축되었다. 자야바르만 6세의 앙코르왓 건설을 보면서 자라난 자야바르만 7세는 대규모의 앙코르톰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크메르 제국역사의 황금기를 이룬다. 앙코르톰 성곽도시 동쪽과 서쪽에 거대한 인공호수를 건설해 매년 겪는 건조기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물을 저장했고 발굴된 흙은 건축기반에 사용했다.

호수 한복판에 수장제를 행하는 메본사원을 지었다. 정방형의 앙코르톰 성곽도시는 앙코르왓의 10배 되는 면적을 차지, 베이온 사원을 정중앙에 세웠다. 남쪽 성문 앞에 9개의 머리를 가진 코브라 뱀의 몸을 허리에 끼고 앉아 있는 108명의 장사 신상들이 양쪽에 배열돼 장관을 이룬다.

성문에 이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건축 기법인 코벨 아취 아래 성문이 있고 성문 위에 4개의 커다란 얼굴이 동서남북을 향하는 조각이 있다. 네 모퉁이에 각각 세 마리의 코끼리 얼굴과 세 개의 코끼리 코는 기둥모양으로 얼굴을 받쳤다.

베이온 사원 동북쪽 코끼리 테라스는 전쟁에서 승리, 개신자를 부르며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던 곳으로 벽의 조각물들은 왕의 위용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나는 왕이 일어서서 손을 흔드는 자리를 찾아가 그곳에서 손을 허공에 저어 보았다. 귀에 우레같은 함성이 광장을 메우는 듯 들리고 웅장한 음악과 찬란한 색깔들이 분위기를 흔들고 비둘기떼가 하늘로 나는 느낌이었다.

앙코르톰 도시성곽의 정 중앙에 위치한 베이온 사원은 3층의 사각평면 위에 천신층 중앙부분을 원형평면으로 가장 큰 탑을 두었는데 우리나라 석굴암이 전방후원 평면으로 방형은 인간세계, 원형은 신의 세계로 정의하는 개념과 공통성을 본다.

37개의 탑이 서 있고 모든 탑들은 부처의 얼굴이 동서남북으로 향했다. 원래 탑들은 49개 혹은 앙코르톰 입구에 다리 교량에 앉은 54신과 같은 개수였다고 한다. 탑으로 이루어진 밀림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울 만큼 좁고 얼굴들이 많아 신들의 얼굴로 둘러싸인 신비스런 느낌이었다.

외곽 전체는 회랑으로 지어 앙코르왓처럼 조각 벽으로 전체사찰을 둘러쌌다. 조각물의 내용은 앙코르왓에 조각물 내용과 유사하지만 베이온 사원의 조각은 외부 조각 벽과 내부 조각 벽으로 이루어진 이중 조각물이라 그 내용이 더욱 풍만하다. 대부분의 조각내용은 전쟁양상이었고 그 안에 머리모양이 다르고 귀가 짧은 중국군들이 참전했으며 궁실 내부에도 중국인들이 나타났음은 우리나라 역사에 신라시대 당나라 군인들, 고려시대 원나라 군인들이 왔었음을 상기시켰다.

창과 방패로 무장한 보병들이 대다수이고 지휘하는 왕이나 장군은 코끼리 위에 앉은 대형안장위에 있다. 지휘 장교는 뱀허영화에서 보듯 말이 끄는 채리엣(전차)을 타고 전쟁 지휘를 하는 중 말 위에 체구가 작은 마부가 말고삐를 잡고 있음은 특이한 점이었다. 군인들이 진격하거나 행군할 때 가축들도 가끔 섞여 있고 적을 살생하는 실전의 모습도 보였다. 배를 탄 해군들의 모습이 있고 배 머리가 용머리로 조각되었음은 우리나라 이조시대 전라감사 이순신의 거북선 머리와 같은 모양이다.

“승례문은 내 청춘을 바친 건축 인생의 시작이었고 미국에서 현대 건축가로 40여 년을 활동한 다음, 다시 승례문 복구공사에 참여한 나의 건축 인생의 마지막 행사였다”

북쪽 벽에는 궁궐 내에 비쉬누와 쉬바 신들이 보이고 자연의 경치를 보이며 왕과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쪽 벽 남부에서 시작된 조각 내용은 건물 전체를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그 내용이 진행되었다가 동쪽 벽 북부에 이르러 왕의 장례식으로 끝을 맺었다. 조각물의 내용은 앙코르왓 조각 벽과 함께 역사를 실감하는 배경으로 세계 유일의 역사기록을 한 조각의 진수다.

제국의 왕이 돼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에 겪는 고충을 느낄 수 있다. 가물어 흉년들면 굶는 백성들이 이웃나라에서 곡식을 빼앗아 와야 산다. 이웃나라에 빼앗겨도 죽기에 있어도 전쟁, 없어도 전쟁이었다. 내부에 정적은 항상 주위에서 맴돌며 기회를 찾고 충신과 간신들간 끊임없이 싸우고 사랑 뒤에는 질투가 따르며 만족 뒤에는 불만이 따랐다. 그러기에 왕은 천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거다.

▶동아시아의 종교 = 앙코르톰 도시의 북쪽 성문을 나가면 프레아칸 사원이 있다. 자야바르만 7세는 남문 밖에 앙코르왓 사원이 이미 세워져 있어 북문 밖에 프레아칸 사원을 세웠다. 거대한 불교사원이며 한 때 1천명 이상의 승려들이 수도하고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불교대학이었다.

동아시아의 자연종교인 도교는 과학적인 천체종교로 성장해 지구의 자전과 태양계 공전을 연구했고 미 대륙 마야문명에까지 전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앙코르왓 사원.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08년 2월 10일 어느 몰지각한 방화범에 의해 불길에 휩싸여 끝내 완전히 불타버리고 만 우리 승례문의 당시 진화작업 모습이다.



해졌지만, 남아시아의 자연종교인 힌두교는 자연의 창조, 유지, 변화의 3대개념에 머물렀기에 새롭게 발전하지 못하고 대승불교는 자야바르만 7세에게 국교로 추진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많은 조각물 중 앙코르톰 안에 코끼리 테라스에서 보았던 귀면 얼굴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짐승발을 가진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들이 하늘을 떠받고 사찰 구조물을 떠받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눈에 뜨인다. 춤추는 무희들이 건물을 떠받는 모습으로 사원이 천국에 세워진 듯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네발을 가진 용의 몸위에 비쉬누가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은 불교 사원에 누워 있는 부처의 모습과 같아 힌두교와 불교의 융합된 모습이다. 우리나라

모양으로 건조된 배는 제주도의 옛 풍습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짚 배’라고도 부른다. 중남미의 마야문화와 남미의 잉카문화의 해변생활에서도 볼 수 있기에 세계역사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한때 침몰하지 않는 짚 배로 대륙이 가깝게 교류되었음을 다시 느꼈다. 동아시아의 송나라 이후 건축물들은 모두 목조건축물들이라 그 유물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였다. 동남아시아 문화에 관한 연구가 결핍되어 유럽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보다 앞서서 발달한 것처럼 보는 현대인들의 세계사 교육에 잘못이 있다. 필자는 세계역사 속에 동양과 서양을 균등하게 다시 조명하여 공정하게 연구해야 함을 강조하

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크메르 제국의 문화 탐방기를 여기에서 마친다.

▶내 청춘 바친 건축인생의 시작 = 승례문은 내 청춘을 바친 건축 인생의 시작이었고 미국에서 현대 건축가로 40여년을 활동한 다음, 다시 승례문 복구공사에 참여한 나의 건축 인생의 마지막 행사였다.

지난 2008년 2월 10일 일요일 오전(한국시간 일요일 밤) 8시 TV의 YTN 24시간 방송을 켜둘 때 본 승례문 불길은 우리 민족의 혼이 어두운 서울 하늘에 핏불처럼 크게 타고 있었던 모습이었다. 600년 도읍을 지켜온 수문장이 제 몸을 불사르고 잠들려는 우리의 문화의식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아침 교회에 가려던 나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길이 없어 TV에 엉겨붙어 있던 중 평소리와 함께 터지는 산소 절단재 투척에 검은 연기는 한 순간에 흰 연기로 바뀌고 화면이 보여주는 마지막 하얀 연기 속에서 내 마음은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1961년 7월 공대 건축과 졸업논문 심사에서 나의 ‘한국 건축양식에 관한 발표’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 문화를 공부하는 일이 금지되었기에 당시 우리 세대에 선구적인 노력으로 교수님들의 주목을 받았다.

일제 강점기 일본 건축학자 관야정의 조선건축 책자와 고유섭 선생의 고고학 자료를 연구하며 준비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동기

생들은 4월에 이미 졸업하였고 나는 군복무기간이 끼어서 9월에 졸업하게 되었다.

김형길 건축학과장이 심사하였고 졸업반 김정수 주임교수는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승례문 복원공사의 건축 자문위원장이었다. 나는 곧 7월에 시작되는 현장사무소에 출근하여 서울대·한양대·홍익대 전배들과 승례문 실측에 종사하였다.

한편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석수들을 지휘하는 조원재 도편수는 전통건축의 살아 있는 증인으로 현장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를 보조하는 이광규 목수 부편수와 김천석 석수 부편수가 한국에 실존하는 최고의 전통건축 기술진을 이루고 있었다.

승례문은 이성계가 고려의 국사에 중지부를 찍고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서울)으로 옮겨 사방에 4대문을 지어 성곽을 두르고 궁궐을 세우는 과정에서 태조 5년(1396)에 승례문을 도읍의 관문 곧 이조 왕국의 정문으로 건립하여 2년 후 완성한 것이다.

세종 29년(1447)에 보수되었음이 실록에 기록되었으나 성종 10년(1479)에 보수된 기록은 공사도중 발견된 기록에 의해 알게 되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고종 때 보수했음이 논의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직전(1907) 문루 양쪽 성곽을 헐어내 큰 길을 냈을 때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보존됐으나 6.25 한국전쟁 때 포탄을 맞아 부분적인 손상이 있었다가 문루와 석축의 노화현상이 심하여 군사정부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결단하여 1961년에 중수공사를 감행하였다.

우리나라 건축양식은 성곽건축과 사찰건축에 가장 잘 보존되었으며 한옥의 건축전통도 궁궐건축에 잘 보존되어 있다. 목조건축양식의 변화는 중국의 당송시대의 영향을 받아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전기양식이 있고 고려 때 원나라와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후기양식으로 나누어진다.

현존 목조 건축물들 중에 전기양식은 백제에서 일본에 건너간 대부분의 백제문화 건축물과 중국 산서성에 도교사찰 진사의 건축물과 당나라의 도읍 서안에 산재한다. 우리나라 전기 목조건축양식은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볼 수 있으며 부분적인 양식이 사찰건축에 산재한다.

승례문 건축양식은 우리나라 후기 목조건축 양식 중에 가장 웅장하고 궁궐과 성곽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전통양식이다.

<다음 호에 계속>



문화기행<1>

Air and Space Museum

이영목(공대 59) DC
미주 동창회 상임고문

오늘따라 주차에 꽤나 애를 먹었다. 박물관 앞에서 30분 이상을 빈 주차 공간을 찾으려 빙빙 돌고 돌다 결국에는 몇 불럭 떨어진 랑팡 프라자에 주차했다. 그러면서 흥용식 선배가 오늘 안 오시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았다. 나의 고교, 공과대학까지 선배인 홍 선배에게 내가 Air and Space 박물관에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오셨으면 연로하신 분이 꽤나 먼 거리를 걸어야 했으니 말이다.

홍 선배는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보잉 항공사에서 가스 터빈 설계를, 또 에어로 스페이스사에서 우주 발사체와 우주 비행선 설계에 참여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요청으로 귀국,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로켓과 항공기 담당 부소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한국의 미사일과 항공기 개발의 주역이었다. 한 마디로 로켓과 우주발사에 대해 한국 최고의 권위자였다.

마침 은퇴하신 후 이곳에 거주하시어 내가 자주 만나는 분이랄까 같이 이곳을 찾으려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 같이 못간다며 참고 하라고 하면서 그분의 저서와 그분의 아들이자 미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로봇의 다빈치’로 알려진 대니스 홍의 책만 전해 받았다. 동행했으면 좋은 설명을 많이 들을 수 있었을 터인데 좀 아쉬운 마음이다.

주차를 한 뒤 꽤나 긴 거리를 걸어 박물관 앞에 섰다. 나는 건물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미국 외에는 꿈도 못꿀 박물관 = 이곳 스미소니안 박물관에는 여러 개의 또다른 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이 박물관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기 나름대로 경쟁적으로 자료,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이외에는 도저히 이러한 박물관을 갖겠다는 것을 꿈도 못 꿀 박물관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Air & Space 박물관 일 것이다. 어느 나라가 라이트 형제가 있어 첫 비행을 시도했

으며,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가 있었으며, 나아가 어느 나라가 달나라에 가서 돌맹이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라이트 형제와 린드버그 = 입구에 들어서니 개인 또는 단체로 보이는 어린 학생들이 꽤나 많이 온 것 같다. 역시 미국은 기회의 땅이란 말보다 먼저 도전의 땅이요, 그 도전정신을 어린 학생들

이 이곳에서 영감을 얻을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문에 들어서서 검색대를 지나자 조그마한 스탠드가 있고 달에서 가져온 돌이 전시돼 있다. 누구나 만져볼 수 있게 돼 있다. 왠지떨 떨어대며 어린 학생들이 만지고 있었지만 나는 내가 이 돌을 만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또 믿어지지도 않았다.

꽤나 높은 인공위성 발사체들을 진열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었지만 초기 비행기로부터 오늘의 우주비행 시대까지 발달해 온 순서대로 진열이 불가능했기에 진열이 시대의 발전과 연계돼 있지 않고 속된 말로 뒤죽박죽이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진열방부터 관람을 하기로 했다. 먼저 Air를 돌아보고 나서 다음에 Space를 보겠다는 말이다.

라이트 형제의 첫 성공 비행기 홀라이어 1호가 보인다. 1903년 인류 최초로 852 피트 높이를 59초 동안 날았다는 기록도 보인다. 몇 년간 글라이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엔진을 부착하여 비행에 성공한 것이다.

그동안 그 성과에 대해 스미소니안 박물관과 불편한 관계가 있어 영국 박물관에 있다가 1948년 1달러에 사는 형식으로 이곳에 오게 됐다고 한다. 참고로 버지니아 주 대서양 연안에 몇 개의 섬으로 된 Outer Bank에 있는 Kitty hawk에 라이트 형제가 인

↑박물관에는 그동안 개발된 각종 로켓들이 전시돼 있다.

류 최초의 유인비행을 한 현장이 보존돼 있다.

그 옆에는 뉴욕에서 파리까지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비행한 린드버그의 사진과 비행기가 있다. 옛날 명배우 제임스 스튜어드가 주연한 영화 ‘저것이 파리의 등불이다’가 생각나다가, 바로 제임스 스튜어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 위문공연을 가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그랜밀러 스토리’가 생각나기도 했다. 미국 영화에는 비행기를 소재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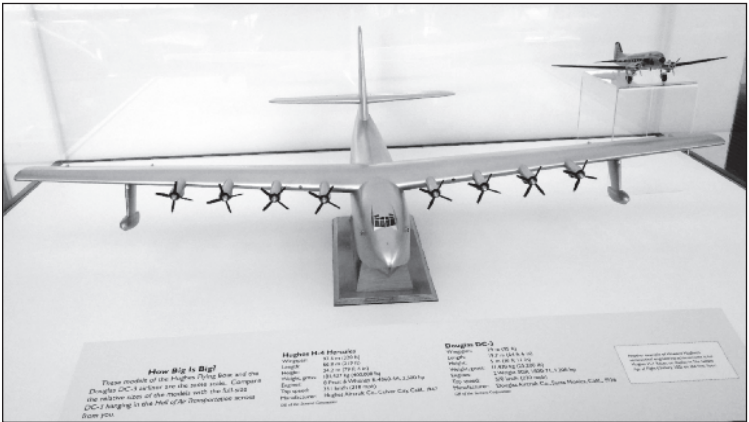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새삼 생각났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밖에 최초 미 대륙 횡단 비행기 등 여러 자료가 진열되어 있어 미국인의 도전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어 꽤나 감격적이었다.

다음의 세계 1차 대전의 방에 들어서자 나는 한 독일 비행사 사진 앞에 서면서 30~40년 전의 한 영화를 상기하면서 숨이 멎는 듯 했다. 바로 앞에 있는 주인공 Fed Knight의 칭호를 받은 Richtofen을 주제로 한 영화 ‘Blue Max(철탄함장)’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영화가 실제와 얼마만큼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세계 1차대전 중 독일군 보병으로 참전했던 주인공이 참호 속에서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폭탄 투척을 하는 것을 보며 비행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당시는 중세시대 기사처럼 상류층 신분만이 비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주인공은 출세를 위해, 또 신분 상승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그래서 비행사가 돼 연합군 비행기를 100여대나 격추시키는 성과로 최고의 훈장 ‘Blue Max’를 받고 어찌고 하는 영화로 기억된다. 냉혈한 미남 역으로 조지 페퍼드가 주연했다. 영화 속 공중전 장면이 기억이 새롭다.

방을 나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시관으로 가는 복도에 자그마한 유리로 덮인 비행 모델이 보인다. 프로펠라가 8개다. 그리고



↑(윗 사진)미국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 있어서 소련에 뒤졌다. 그러나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다. 아랫사진은 휴즈의 날으는 배 모형

‘하워드 휴즈의 Flying boat’라고 설명이 쓰여져 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그가 초대형 비행기를 제작했으나 중전되고도 2년 후애나 완성됐고, 단 20초를 난 것이 전부라는, 비행기로서는

투어디스 모집공고 안내에 끌려가고 있었다. 헤어스타일, 구두, 옷, 하다못해 손톱까지 꽤나 까다로운 것 같았다. 초창기 꼭 집실 같은 의자와 탁자를 보니 확실히 부자나 탈 수 있었던 같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간다. 미국 인공위성의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방이다. 층계를 올라가면서 먼저 기억도 새로운 것이 미국의 첫 발사에 실패한 뱀가드 위성발사이야기 말이다.

▶인류 첫 인공위성의 굴욕 = 소련의 후루시초프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고 나서,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구두를 벗어 탁탁 치면서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 케이프 케나베럴에서 첫번째 인공위성 발사가 단 2초 후에 실패했다.

여 기자가 떨어진 인공위성이 빙빙 돌자 기자 신분을 망각하고 “저 빙빙 도는 인공위성 좀 멈추게 하라”고 울부짖는 모습이 Time지에 난 것이다. 내가 고교 2년 때인가 싶다.

이렇게 미국이 소련과 인공위성 경쟁에서 밀리는 듯 하다가 달에 착륙해서 깡충깡충 뛰는 것을 TV로 보았을 때의 감격이란...

방에 들어서니 머큐리 계획, 제미니 계획, 아폴로 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놓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공위성 발사체, 우주여행 초기 캡슐부터 아폴로 우주선, 달에 착륙해서 헤집고 다녔던 탐색차(Rover), 화성에서의 기계차 등 모두 다 설명할 수 없는 우주시대의 첨단 제품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Air시대의 사람이자 Space시대 사람은 아닌 듯 했다. 우주에 관한 전시물은 나에게 흥미와 관심보다는 경외와 두려움과 아니, 어쩌면 신의 세계로만 생각됐고, Air세계에서 느꼈던 흥분은 없는 듯 했다. 역시 나는 공기가 있는, 아니 공기로 포장되어 있는 지구촌 인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박물관을 나섰다.***

작가 수상(隨想)

서신 11월



박상희(문리대 52) NY
시인·작가

몹시도 투명했던 지난해 11월 어느 아침, 누가 시를 보내왔다. 전화로 그 시에 대해 이야기하자 내 속에 차 있던(아니, 끓주려 있던, 이 말이 오히려 맞으리라) 간절함이 시를 불려왔다.

시는 가끔 그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온다. 시가 그리울 때, 시가 갈급할 때 그 때가 내 속에서 시의 꼭지가 떨어질 때다.

어느 이름있는 시인은 “시가 거리에서 손짓하며 온다”고 했다. 그는 그것으로 시가 우리의 삶의 바탕에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길거리라는 은유를 통해 표현했으리라.

거리, 거리를 떠나 내 속에서 움틀거리며 일어나는 감정의 굴절 등을 타고 오는 감정과 생각들에서 시의 열매를 따려고 애쓰는 시를 쓰려는 사람들, 진짜 시는 결코 그렇게 오지 않는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나의 삶의 ‘거리’가 내 속에 경험적으로 쌓여 있을 때, 많은 길거리에서 하나의 거리를 선택할 때다.

지난 번에는 꽃을 소재로 시의 길을 따라가 보았다. 꽃이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이유도 그 꽃이 시인의 삶과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가 준비되었을 때다. (아차! 내가 또 험들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용서하시라!)

쉽게 말하자,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작은 수술 후,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성화에 마냥 게으름을 피웠다. 그 게으른 나태함이 나의 감성과 지성도 맥을 못추도록 하고 굳어져 버렸다.

시가 그러웠다. 시는 나의 생기다. 시가 그리운 것은 내가 그리운 것, 나를 상실한 무감(무아가 아닌)의 상태, 나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의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시간도 사람도 굳어져 차츰 생기를 놓쳐버린다. (대중들은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산다)

그 때 그 아침 작은 봉창 문을 열고 시의 해바람이 불어온 것이다. 거리에서 내 이름을 불며 사랑스런 생명의 입김 한 줄 내 딱딱하게 굳어버린 방으로 들어온 것이다.

<투명한 11월 그 때>

자분거리며 새벽이 터 온다
잠자던 뽀족 새 한 마리 깨어나
풀피리 소리 뽀족 뽀족 온다

먼 수평선에서 찰랑찰랑

노 저어온
거북이 한 마리
물소리의 옥타브 한줄 파도에
올려 놓는다

하늘 끝자락 움칫 놀라
게으른 별 하나
하얀 수레를 타고 투신한다

빛깔 있는 동양화 하나
완성하는 황금빛 거북이

어제 밤 바위를 치며 부서지던
바람의 곡소리도 지금은
멈칫 멈칫 등 돌리는 등대 근처

하얀 배꽃 무리 아침을 연다.

<11월 어느 바닷가 묘사>

상기 필자의 시를 들여다 보며 꽃의 소재를 바탕으로 엮어나간 지난 달 시의 길과 다른 시안으로 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서신에서는 길을 가다가 만난 꽃이 여는 의미를 따라 시를 쓰는 방법, 물론 기승전결을 쫓아갔다. 이번에도 그 점은 동일하다. 길가의 꽃이 아니고 11월 투명한 어느 날의 투명한 시간의 화폭이 그려 있다.

화자는 1월 어느 아침 창 밖이 몹시도 투명하고 따사로운 평안을 느꼈을 것이다. 그 때 마침 누군가 시를 갈망하는 시인 지망생이 시를 보내왔다.

그 시가 ऐसा롭지 않다. 정돈은 되어 있지 않으나 투명한 사색이 펼쳐져 있다. 그것을 가지고 그와 대화를 한다. 그 때 화자의 가슴에도 한 폭의 그림이 열려진다. 화자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린다. 표상적인 투명함에서 좀더 깊이 들어가 자신의 깊은 심안을 열고 들어간다.

거기 자분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오고 한 마리 뽀족 새 우는 울음소리도 들려온다. 그리고 바닷가가 열려 있다. 바닷가가 이제 화폭의 배경이다.

1연에서 독자는 ‘새벽이 자분거리며 온다’는 표현으로 바다를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다. 뽀족 새의 풀피리 울음소리가 대입된 것은 11월 그 아침의 생기 있는 울동의 모습을 보여주지 위함이다.

11월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화자는 바다를 선택했다. 잠시 쉬는 ‘행간’을 지나 자연히 등장하는 것이 거북이고 보면 바닷가의 배경의 확대를 위하여 먼 수평선에서 거북이 한 마리 찰랑찰랑 노 저어 와(그 모습이 참 평화롭다. 무슨 아름다운 소식, 복음 같은 것을 전달하려고 오는 평화의 전령사, 우체부 같이) 모래 벌에 상륙한다.

거북이의 움직임으로 물소리는 한 줄 더 높은 옥타브를 올린다. 그러나 그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미물의 동작이라도 생명이 움직이는 한 우주의 혈맥은 그만큼 꿈틀거리고 그 때까지 부동으로 있던 별마저 놀라 수레를 타고 투신한다. 지상으로, 하

생활의 단상

설날 새벽에 부치는 편지



박평일(농대 69) VA
미주동창회 감사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제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래요, 나의 설날은 오늘이군요. 창 밖은 아직 칠흙처럼 어두워요. 찬란한 햇살을 기다리며. 밝음은 늘 어둠 뒤에 오거든요. 생각해보니 나의 행복도 늘 그랬어요. 고통과 아픔을 참고 기다리면 찾아오곤 했지요.

까치는 기쁜 소식(Good News)을 미리 전해주는 전령이지요. 기쁜 소식이 오기 전 대문 밖에서 미리 울어주었으니까.

어제 까지 설날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 기쁜 소식을 나누웠지요. 서로 안녕하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보다 기쁜 소식은 없지요. 나의 하나님께 나에게 묻는 질문도 늘 “너 안녕하니?”였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잊곤 했지요. 나는 사랑에 빚진 거지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안녕치만은 않았어요.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생활고에 허덕이는 분들도 있었지요. 마음이 몹시 아팠지요. 가장 가까운 친척들 간에 오해와 반목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나를 슬프게 했지요.

나는 알고 있어요. 원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는 가족은 원수라고 했고 불가에서는 부부는 전생애 원수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수레를 타고.

그 때 거북이는 빛깔있는 동양화의 완성을 위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지금 바닷가 모든 것은 잔잔한 아침의 평화를 예측한다. 불빛이 필요 없는 등대, 하얀 배꽃무리 파도가 아침을 열고. 이제 바다는 평화로운 아침이 열리고 바닷가는 한없이 평화롭다.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11월 투명한 바닷가 한 때의 전경은 마무리 된다.

시인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예감하며 의도적으로 투영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일어난 그림의 질서와 울동을 시적 질서를 염두에 두고 수채화 한 폭을 그린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수채화라는 표현은 그 날 아침 창밖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투명했기에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감성적인 사실적 수채화.

문학은 인간성 회복을 위해 존

사랑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지요.

나는 또 알고 있어요. 사랑은 증오의 불꽃이라는 역설도. 증오할 수록 사랑의 불꽃은 더 크게 타오르지요. 가슴에 조용히 손은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리워 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역설이지요.

오랫 동안 섭섭해 하고 미워하는 벗들에게도 설날까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화해와 평화는 정말 나의 진심이거든요.

그 분들 중 갑작스런 나의 전화에 깜짝 놀라 반가워 하는 벗들도 있었고, 아직도 섭섭함을 풀지 못하고 시큰둥 하는 분들도 있었지요.

아주 미안했어요. 그러나 나는 실망은 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진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무관심이거든요.

나는 또, 알고 있어요. 기쁜 소식(Good News)은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사실도. 선물을 받고 안받고는 그 사람의 자유 선택이지요.

받지 않는 선물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지요.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오고, 미움을 주면 미움이 돌아오지요. 선물은 기도처럼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선물은 씨앗이지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떨어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는 이 설날 새벽에 한 편의 시를 읽었지요.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하고 후회를 하고 있지요.

“아, 나는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하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을 잊어 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더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마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추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

<김벌리 커보거>



속에 어떤 관념이나 사상은 얼씬하지 않는다. 감성적 사실주의 작가 Steve Hanks (1949 -)의 어느 바닷가의 수채화가 연상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11월의 영상하나 만들어 보자. 구태여 상기의 시를 따를 필요는 없다. 관념적인 내용, 슬픔이, 해가 감에 오는 아쉬움이 주는 비감이 바탕이 된, 그러나 하나의 대상물을 선택하자, 관념의 구체화를 위해. 아, 가슴 아프다! 아아, 빠른 세월.

이런 낭만시대 테니슨의 관념적 표현보다는(우리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morden, post morden 시대에 살고 있다) 물체나 살아 움직이는 대상, 자연물 등을 선택함이 좋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도록 하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려 서둘지 말자.

시 앞에 염치를 차려라! 설명이 아니고 묘사로. 당신은 숨어버려라! 잠시라도 말이다! (이젠 여러분에게 11월의 숙제를 남긴다) 아듀! ***

<여행기>

산티아고 순례길 낙수<3>



이강홍(상대 60) NY
Manhattan Woods Golf Club
CEO

▶제6신 = 이른 아침(?). 스페인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여 영국보다 해가 늦게 뜨는 땅인데도 표준시간을 독일, 프랑스와 함께 쓰고 있어서 시간에 견주어 늦게까지 어둡더군.

샤워를 하려니 발바닥이 쓰리고 아프다. 왼쪽은 네 곳의 물집이 군웅할거 중이고 오른쪽은 이미 터져서 속살이 드러났네. 강행군을 했다가는 상처가 커질 것 같아 고된 끝에 오늘은 하루 쉬고 발치치를 해야겠다.

순례자 숙소는 오전 8시까지는 비워줘야 한다. 처량한 마음으로 짐을 챙겨 밖으로 나서는 소리 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구나. 길을 못 떠나 무거웠던 마음이 다소 가벼워지더군.

불편한 발을 끌고 광장으로 나서니, 이곳 Pamplona가 바로 작가 헤밍웨이가 나름의 뜻을 품고 스페인 내전 때 공화군 쪽에 가담하였다가 패퇴하여 여기 고원지대에 웅거하면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집필한 곳이 아니던가.

고원이라 하지만 눈을 덮어쓴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거대한 발농사 구릉지로 물산이 풍성하니 일찍이 문화가 창달하였으리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성당과 박물관, 갤러리와 투우장이 있고, 우리에게도 낯익은 그 투우용 숫소들을 화를 돋구어 질주시키고 도망 다니는 길(Estafate Calle)도 여기 있지 않은가! 좁은 골목길을 아픈 발로 힘들게 걸어 보았지요.

나도 영감을 얻을까 싶어, Hemingway가 먹고 마시고 글쓰던 카페(Cafe Iruna in Plaza del Castillo)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크게 쓰여 있는 자양천막 밑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그리운 이들에게 post cards를 쓰고 있자니 관광객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영감을 죄다 좇아 버리고 시끄럽다.

고개를 들어 광장 건너편을 바라보니, 아 거기에는 유대축담의 글귀 -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고 진다 - 가 적힌 커다란 차양막이 익살스럽게 눈에 들어온다. 아마도 왕당파측 사람이 연 곳일까? 여유로운 모습이다.

갑자기 옆 테이블에 두 여인이 자리를 잡더니 내게 작가냐고 묻는다. 글 쓰던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선지 아니면 내 인상이 고뇌(?)하는 모습이던가. 배짱으로 그렇다하니, 일본 작가 ‘누구’를 아느냐 묻는데, 발음이 이상

해 되물으니 자기들끼리 서로 교정해주며 시끄러운 수다를 떠다. 그럴 때는 화장실이 최고다. 내 짐을 그 여인들에게 바달라 부탁하고, 노기도 없는데 화장실로 들어가 셀폰으로 검색을 하고는 돌아와서 정확한 일본 발음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아니냐고 거명하니 크게 탄성을 지른다.

오래 끌면 봉변 당하겠다 싶어 이별장(계산서)을 달라고 고개를 돌리니 남자직원이 재빠르게 갖고와 여인들 테이블을 몸으로 막고선 검지 손가락을 좌우로 저으며 “I kept watching your belongings” 라고 말하네.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안 좋은 이 웃이었구나!

‘그래, 신을 믿으라, 하지만 네 낙타는 꼭 묶어 두도록. 후우!’ 병원을 찾아 발을 보이니 상처 보다는 적혀 있는 내 나이를 묻곤 또 되물으며 놀란 표정이다. 스페인어로 말하니 뜻을 알 길 없지만, 이 길을 가기에는 너무 늙었다거나 나이답지 않게 젊어 보인다고 아니겠다. 췌장 곳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적외선 자외선 모두 쬐이고는 연고에 봉대도 감아주면서 20유로만 청구하더군. 순례자의 특별대접이라 생각했지. 고맙소, 스페인 친구들이여!

“사과를 뱅뱅 돌리며 껍질을 깎는데 한순간 침묵이 이상해 보니 내 숨씨에 감탄해 박수를 친다. 벨지움 여성은 껍을 껍질을 길이대로 팔을 벌려 재보고 사진을 찍는다”

오늘 저녁은 숙소를 2인1실의 호스텔로 격상하고, 모든 무게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지. 우선 배낭의 필요 없는 끈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겹옷을 위아래 3개씩만 챙기고 혁대도 길이를 구멍 두 개만 사용가능한 길이로 자르고, 긴 칫솔도 절반으로 자르고 치약 받은 짜버렸지. 아끼던 스위스제 칼은 분해하여 스폰·포크·칼 기능 3쪽만 남기고.

이렇게 꺾어짜니 약 2kg이 줄더군. 그 포기한 물품을 우체국에서 서울로 소포 발송하는데 순간 나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아련한 서울쪽 하늘을 바라보며 젖어드는 눈을 한참 참았구나.

이들 자잘한 서술은, 혹시 다음에 순례길을 떠나려는 초심자에게 처음부터 인색하게 떠나라는 도움말을 드리려고. 본인처럼 탈이 난 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날 먹을 물과 주스, 과일 한 개, 견과류 약간, 그리고 점심용 빵과 얇은 생선 통조림 한 통을 사 넣고 흥가분한 마음으로 저녁을 맞이했지요.

그래도 오늘은 얻은 것이 아주 많았던 날이었지. 하루 종일 비에서 진눈개비로 오락가락 번덕 부리는 날씨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자위가 되누나. ‘새옹지마’라 하였지? 발의 탈 때문에 오히려 건질 것이 많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네. 이 곳은 날 내쳐 걸어간 그 얼굴들 위에 연민의 정

→옛 사진은 순례자 숙소(Albergue)의 인자한 수녀와 함께. 아래는 헤밍웨이가 패퇴하여 은거하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집필한 IRUNA HOTEL + CAFE

이 겹쳐지더라.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제7신 = 모처럼 청량한 하늘 밑을 걷고 있다. 10월 중순인데 귀와 코, 손가락이 시리다. 지난밤을 보낸 ‘로스 아르코스’를 나서서 교외로 빠지니 오르막 땅 좌우가 온통 비석과 십자가로 뒤덮인 오래된 묘지다.

먼 발치 앞서서 걸던 순례객 몇몇이 미동도 않고 한 무덤의 비석을 보고 있다. 나도 다달아 비문을 보니, “당신은 나의 옛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 되리라”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더군.

말 없이 서로들 묵시적 동감을 눈으로 교환하며 발걸음을 돌리는데 이상하게도 움직임이 무겁다. 저 고흔, 가엽게도 이 길을 끝내지도 못하고 48세로 생을 마감했구나. 그에게도, 돌아올 그를 기다리는 정든 가족도 있었을 텐데...

언뜻 황지우 시인의 ‘두고 온

것들’의 몇 구절이 떠오르네.

‘... (전략) ...부끄러워 해야 할 것들, 지켰어야 했던 것들과 갇아야 할 것들, /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상에다가 그냥 두고 왔을꼬! / 어느 날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를 삶이여 / 좀 더 곁에 있어줬어야 할 사람, 이별을 깨끗하게 못해준 사람, /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기대를 했을 사람을 그냥 두고 온 / 거기, 부고도 닿을 수 없는 그곳에 ... (후략) ...’

가만히 생각하니, 걸어온 이 길 주변에 온통 죽음이 산재해 있던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걸어왔네. 프랑스길 주변에만 무덤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수가 7천여 기가 넘는다니!

사인도 갖가지로 추락사에, 병마에, 한파로, 몸이 쇠진하여, 심지어 좋아 보이는 가족 샌달을 빼앗으려는 강도한테 번을 당하기도 하였다니... 싸늘한 천기에 마음도 서늘해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갔지.

사방은 온통 주황색과 흑회색이 뒤섞인 구릉지로 추수 끝난 밭뿐이고, 나락을 줍는 새 떼가 군무를 이루며 오르내린다.

고개를 돌려 떠나는 쪽을 바라보니, 먼 동쪽 지평선의 낮은 구름이 마악 떠오르는 해로 영롱한 빛을 띄고 있네. 빛의 고장인 남불과 산맥으로 갈렸어도 역시 빛의 고장이구나 싶도록 아름다워



아침에 무덤에서 느꼈던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시더군.

내가 걸어가는 길은 서쪽으로 아득히 먼 곳, 긴 그림자가 발걸음을 선도하며 재촉하는구나. 아득한 지평선 너다섯은 넘어야 피로한 몸이 쉴 숙소가 있겠지. 저 멀리 성당의 쌍 종탑이 지평선을

게 드러낸 채 침묵...

“Korean?”

그제서야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Japan!” 한다. 우선 하얗게 짙은 사과를 반 잘라 권하고, “어떻게 반대로?”

6개월 장기휴가를 얻어 일본에서 로마로 날아가 이탈리아에서 오는 순례길을 끝내고 프랑스길을 역으로 가, 프랑스 관광 후에는 로마로 간다네.

그 의지가 대단하다. 다부진 체격에 구리빛 얼굴과 목덜미를 살피다 배낭 끈 밑의 사과리 셔츠와 흰 내복이 헤어져 살이 드러나 보인다. 비록 흰 옷이지만 셔츠 한 벌을 주고 싶어 말 없이 배낭을 당기는데, 왜 하필 그 때 ‘독도’가 떠오르던지... 슬며시 없던 일로 제스처를 부리며 “BUEN CAMINO!”라 호기있게 외쳤지. 하! 그 일이 이 길 끝날 때까지 어쩌나 후회되던지...

문득 김수환 추기경님의 “내 인생길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길이 가장 긴 여로였다”는 말씀이 떠오르더군. 그래 다음 여행의 코스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먹었지.

오늘은 내내 그 미네소타 부부와 함께 걸으며 서로의 속내를 털어 놓았다고. 그들은 5년 전에 이혼을 하고(그동안 후회와 반성을 반복했겠지.) 이번에 재결합을 하여, 재혼여행을 이 길로 택했단다.

신선한 충격이란 이런 것 아니겠다. 더욱 놀래킨 것은 저 뒤에 16살 먹은 아들이 따라오고 있단다. 기타를 등에 멘 남자가 보이면 자기 아들이라고. 아침잠이 많아 늦게 출발하지만 발이 재서 저녁 숙소는 그 애가 먼저 정해 놓는다고.

우리의 숙담을 얘기해주었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루를 살아도 움직임이 많으면 생각의 폭과 마음의 깊이가 더욱 크고 깊어진다는 스스로의 경험을 재확인할 수 있었지. 그리고 저들 아름답고 멋진 풍광의 선물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 호에 계속>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2014.7.1 ~ 2015.3.3)

동창회비

▶Alabama
서안희(간호 63)
오신중(의대 54)
유성무(상대 66)

▶Alaska
윤제중(농대 55)
하인환(공대 56)

▶Arizona
김영철(공대 55)
박양세(약대 48)
지영환(의대 59)
최선희(자연 93)

▶California
강동순(법대 59)
강명식(의대 61)
강영호(의대 58)
강재호(상대 57)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천호(사대 58)
강홍제(상대 53)
계지영(문리 60)
고석규(치대 65)
고영순(음대 59)
고재천(공대 57)
권영달(문리 50)
권영덕(공대 54)
권영재(의대 57)
권오형(사대 61)
김강수(문리 59)
김건진(문리 62)
김경수(상대 58)
김경욱(미대 61)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교복(농대 63)
김군빈(법대 56)
김기태(의대 54)
김낙구(상대 67)
김난영(공대 53)
김동산(법대 59)
김동석(음대 64)
김동호(농대 58)
김명환(문리 67)
김병근(공대 58)
김병연(공대 68)
김병완(공대 58)
김병호(상대 57)
김석두(농대 58)
김석홍(법대 59)
김선기(법대 59)
김수영(사대 57)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김영덕(법대 58)
김영석(상대 62)
김영희(사대 56)
김옥경(음대 69)
김완기(사대 50)
김원경(약대 59)
김원탁(공대 65)
김원호(약대 63)
김윤범(의대 54)
김의신(의대 60)
김익창(의대 48)
김일영(의대 65)
김 정(치대 59)
김정민(상대 58)
김정복(사대 55)
김정애(간호 69)
김정희(음대 56)
김종태(상대 58)
김준일(공대 62)
김진형(문리 55)
김창무(음대 53)
김태윤(법대 53)
김현왕(공대 64)
김현철(의대 57)
김혜숙(약대 77)
김희재(사대 66)
나두섭(의대 66)
나승욱(문리 59)

이정근(사대 60)
이정옥(공대 52)
이종묘(간호 69)
이중희(공대 53)
이채진(문리 55)
이해영(공대 56)
이현숙(사대 62)
이홍기(공대 62)
이홍표(의대 58)
이희충(공대 68)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대 58)
임옥기(법대 57)
임정란(음대 76)
임창희(공대 73)
임춘수(의대 57)
임화식(치대 59)
임희영(치대 67)
장동석(문리 66)
장 준(인문 85)
장진성(약대 66)
전명선(약대 46)
전범수(농대 71)
전상옥(사대 52)
정규남(공대 52)
정규희(의대 64)
정동구(공대 57)
정동주(가정 72)
정수만(의대 66)
정예현(상대 63)
정재훈(공대 64)
정정순(사대 56)
정진수(공대 56)
정태무(사대 44)
정현진(간호 68)
제영혜(가정 71)
조관상(의대 60)
조동준(의대 57)
조성윤(법대 46)
조정시(공대 60)
조태준(문리 59)
주정래(상대 65)
지종근(농대 56)
진성호(공대 64)
차민영(의대 76)
차재철(의대 62)
차종환(사대 54)
최경선(농대 65)
최덕순(간호 59)
최상집(치대 65)
최영순(간호 69)
최용완(공대 57)
최종권(문리 59)
탁은숙(문리 54)
탁혜숙(음대 67)
하선호(치대 81)
한민철(치대 62)
한상봉(수의 67)
한종철(치대 62)

▶Carolina
김건일(상대)
김정희(약대 56)
마동일(의대 57)
신두식(의대 58)
이달호(사대 46)
이범세(의대 56)
한광수(의대 59)
홍 훈(자연)

▶Chicago
강수상(의대 48)
강영국(수의 67)
강화영(문리 50)
고병철(법대 55)
구경희(의대 59)
김갑중(의대 57)
김갑조(간호 51)
김계균(공대 60)
김규호(의대 58)
김동희(공대 66)
김병윤(문리 65)
김사직(상대 59)
김연화(음대 68)
김 영(문리 66)
김일훈(의대 51)
김재관(의대 62)
림영신(의대 54)
민영기(공대 65)
박영규(농대 57)
박용순(의대 53)
배영섭(의대 54)
서상현(의대 65)
소진문(치대 58)
송재현(의대 46)
송진웅(농대 53)
신석균(문리 54)
신태수(의대 88)
안은식(문리 55)
오상현(의대 65)
유태중(공대 50)
이덕수(문리 58)
이상오(문리 61)
이소희(의대 61)
이소희(간호 68)
이승자(사대 60)
이승훈(공대 66)
이시영(상대 46)
이영철(공대 60)

이용락(공대 48)
이윤모(농대 57)
이정일(농대 57)
이종일(의대 71)
이태영()
임근식(문리 56)
임현재(의대 59)
장세곤(의대 57)
장시경(약대 58)
장윤일(공대 60)
장 홍(문리 61)
전경철(공대 55)
전현일(농대 62)
정승훈(공대 60)
정영숙(사대 59)
제환수(사대 61)
조봉완(법대 53)
조형원(약대 50)
천양곡(의대 63)
최대한(의대 53)
최혜숙(의대 53)
최희수(문리 67)
한상봉(수의 67)
한의일(공대 62)
한호택(공대 60)
함성택(문리 55)
홍 진(의대 64)
홍병익(공대 68)

▶Las Vegas
김영중(치대 66)
김택수(의대 57)
이 관(공대 55)
박정우(의대 54)
최영식(법대 59)
최창식(의대 61)
홍수웅(의대 59)

▶Florida
김재석(의대 66)
김택희(문리 55)
나수섭(의대 50)
박창익(농대 64)
송용덕(의대 57)
신창재(수의 59)
안창현(의대 55)
전영자(미대 58)
정진목(의대 50)
한기빈(공대 52)
한성수(의대 54)
황현상(의대 55)
홍순호(수의 74)

▶Georgia
강창석(의대 73)
김순옥(의대 54)
김영서(상대 54)
김용건(문리 48)
김태형(의대 57)
방창모(문리 49)
백낙영(상대 61)
손중수(의대 50)
신동현(농대 49)
안승덕(상대 51)
오경호(수의 60)
이영진(공대 76)
임수암(공대 62)
임한웅(공대 60)
정광호(공대 60)

▶Minnesota
권학주(치대 59)
김영남(사대 53)
남세현(공대 67)
박정선(농대 60)
변우진(인문 81)
성옥진(치대 87)
송창원(문리 53)
왕규현(의대 56)
이창재(문리 56)

▶New England
김만옥(약대 56)
김명자(문리 62)
김문소(수의 61)
김선형(약대 59)
김신형(의대 51)
김은태(의대 48)
김제호(상대 56)
노인규(의대 52)
윤상래(수의 62)
윤원길(의대 59)
이금하(문리 69)
정정옥(의대 60)
주창준(의대 56)

▶NY & NJ
강충무(사대 60)
게동휘(치대 67)
고승정(간호 69)
곽노섭(문리 49)
곽상준(약대 55)
곽선섭(공대 61)
권문웅(미대 61)
권영국(상대 60)
권용구(상대 61)
금동용(문리 58)
김경애(간호 54)
김광현(미대 57)
김광호(의대 66)
김규화(상대 63)
김기훈(상대 52)
김동진(약대 56)
김명철(공대 60)
김문경(약대 61)
김병권(문리 63)
김병석(의대 53)
김병술(약대 52)
김봉련(54)
김석식(의대 58)
김석자(음대 61)
김수일(약대 62)
김순자(약대 59)
김영봉(의대 83)
김영애(사대 56)
김영일(약대 58)
김영철(의대 55)
김원주(의대 54)
김용술(상대 56)
김용연(문리 63)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김용호(약대 69)
김우신(의대 60)
김재석(의대 61)
김정화(음대 56)
김희주(의대 62)
남성희(의대 58)
문경웅(의대 61)
박용화(의대 52)
박준환(의대 55)
서영일(의대 62)
신동화(문리 55)
유효명(의대 58)
이상철(의대 52)
이상일(의대 54)
이성길(의대 65)
임병훈(의대 54)
조문희(공대 56)
조병권(공대 64)
차대양(공대 55)
채무원(의대 59)
최병두(의대 52)
하계현(공대 64)

미주 동창회 대도약을 위한 후원		
▶조형원(약대 50)	500	
▶최지원(의대 55)	500	
▶이희덕(농대 58)	500	
▶문광재(의대 68)	500	
▶백옥자(음대 71)	500	
▶김길평(상대 62)	501	
▶이충호(의대 63)	501	
▶방은호(약대 43)	600	
▶신창민(법대 60)	1,000	
▶곽노섭(수학 53)	1,000	
▶권기현(사대 53)	1,000	
▶정재훈(공대 64)	1,000	
▶조순자(문리 53)	1,000	
▶한재은(의대 59)	1,000	
▶최 철(의대 62)	1,000	
▶권철수(의대 68)	1,000	
▶이명선(상대 58)	1,125	
▶이준행(공대 48)	2,000	
▶차재철(의대 62)	3,000	
▶강신호(의대 51)	3,000	
▶이상강(의대 70)	5,000	
▶고광선(공대 57)	5,000	
▶손재욱(가정 77)	10,000	
▶이병준(상대 55)	10,000	
Total \$ 51,227		

양순우(법대 67)	이국진(사대 57)
엄종열(미대 61)	이능석(의대 57)
우관혜(음대 63)	이대린(농대 67)
우상영(상대 55)	이만석(공대 58)
유재용(공대 58)	이문자(간호 66)
원인순(문리 71)	이상복(의대 56)
유재섭(공대 65)	이성수(공대 56)
유택상(문리 58)	이시진(문리 54)
유영호(의대 52)	이영숙(간호 56)
윤봉균(사대 54)	이운순(의대 52)
윤영섭(의대 57)	이유찬(의대 58)
윤인숙(간호 63)	이은미(음대 77)
윤현남(공대 64)	
이강홍(상대 60)	<29면에 계속>
이경태(공대 63)	

회비 3회 이상 납부

▶California 김경욱(미대 61) 김동호(농대 58) 최용완(공대 57)	▶NY & NJ 김문경(약대 61) 박순영(법대 56) 이강홍(상대 60)	▶Utah 김인기(문리 58)
▶Chicago 조봉완(법대 53)	▶Rocky Mt. 송요준(의대 64)	▶DC 권철수(의대 68)
▶Michigan 최병두(의대 52)	▶Texas 신철영(문리 64)	(* 미주 동창회 제12대의 2년간 회비와 후원금을 3회 이상 낸 동문들 명단임)

✂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비 및 후원금 (회계연도 2014년 7월 ~ 2015년 6월)

✂

성명 : 한글		영문		단과대학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주소 :				전 주소			
업소 이름 :				업소 주소			
전화 : (B)		(H)		(C)		(Fax)	
e-Mail :							
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포함)		업소록 광고비(6개월)		일반광고비(1회)	
연 \$200 ☐		2014.7~2015.6 \$75 ☐		2015.1~2015.6 \$120 ☐		명함크기(3.5" x 2") \$120 ☐	
연 \$500 ☐						1/6면 (5" x 4.5") \$200 ☐	
연 \$1,000 ☐						1/3면 (10" x 4.5") \$400 ☐	
기타 \$ ☐						1/2면 (10" x 6.7")\$600 ☐	
						전면 (10" x 13.5")\$1000 ☐	
						전면(Back 10" x13.5")\$1500 ☐	
보낼 곳 : 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Tel(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703-462-9083>로() Check No.()			
Card No. :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L 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의료/ 약국/ 치과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213-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의대 65)

Diana Kim MD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치과병원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69) 213-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Michael Kim, CEO
김기형(상대 75)

3435 Wilshire Blvd, #2820 LA.CA 90010
213-505-8102(0) 626-722-7836
e-mail Michaelk@UnitedProjects.US
www.UnitedProjects.US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O Box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HAAN Kenneth T.HAAN & Associates
한태호 변호사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클리닉/ 교외

Teamspirit Investment & Dev.
Jennie Lee(간호대 69)Realtor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lee@gmail.com jennielee.mytsr.com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비영리법인 애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재정/ 보험/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ton OR.97007

TX 텍사스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c@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NY-NJ 뉴욕/뉴저지

공인외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건축/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MD·VA·워싱턴 DC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Gaithersburg MD 20877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Drivetech, Inc
엄달용(공대 69)
703-327-279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A 20152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0)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6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27면서 계속>

이재진(의대 59)
이재원(법대 60)
이전구(농대 60)
이정은(의대 58)
이종환(법대 51)
이준행(공대 48)
이충준(공대 56)
이충호(의대 63)
이태성(음대 65)
임공세(의대 63)
장태옥(의대 57)
정계봉(의대 60)
정순기(문리 69)
정창동(간호 45)
조규용(의대 59)
조대영(공대 61)
조숙자(간호 59)
조아미(음대 61)
조종수(공대 64)
조황환(치대 65)
조희재(음대 58)
진봉일(공대 50)
차국만(상대 56)
최수강(의대 65)
최영태(문리 67)
최영혜(간호 64)
최일단(미대 55)
최종진(의대 55)
최준희(의대 58)
최한용(농대 58)
최형무(법대 69)
최 호(문리 61)
한기현(의대 57)
한성호(약대 60)
한영수(의대 61)
한인수(사대 73)
한태진(의대 58)
함종금(간호 66)
허경열(의대 73)
허병열(사대 42)
허선행(의대 58)
현영수(음대 61)
홍선경(의대 58)

▶Ohio
명인재(자연 75)
박 철(사대 55)
송용재(의대 63)
여준구(의대 64)
이명진(공대 61)
이영웅(의대 56)
최인갑(공대 57)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대 67)
이은설(문리 53)
정태훈(공대 68)
최동근(문리 50)
한국남(공대 57)
한영준(사대 60)

▶Philadelphia
강영배(수의 59)
강준철(사대 59)
권기상(경영 72)
고영자(치대 63)
김국간(치대 64)
김무형(약대 63)
김순주(치대 95)
김영남(의대 61)
김영우(공대 55)
김재술(약대 58)
김정현(공대 68)
문대옥(의대 67)
민홍식(수의 60)
박호현(의대 52)
손재옥(가정 77)
송성균(공대 50)
송영두(의대 56)
신선자(사대 60)
신성식(공대 56)
안세현(의대 62)
양운택(의대 58)
염극용(의대 54)
원종민(약대 57)
윤정숙(문리 59)
윤정나(음대 57)
이규호(공대 56)
이병인(수의 69)
이성숙(가정 74)
전무식(수의 61)
전방남(상대 73)
전희근(의대 54)
정덕준(상대 63)
정용남(문리 60)
정정수(의대 56)
정태광(공대 74)
정홍택(상대 61)
제갈은(문리 59)
조영호(음대 56)
조화연(음대 64)
주기목(수의 68)
지흥민(수의 61)
차호순(문리 60)
최종무(상대 63)
한용오(보원 70)

▶Rocky Mt.
김낙제(농대 56)
송요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최근녕(법대 63)
표한승(치대 5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김동수(의대 60)
김태훈(공대 57)
김한섭(의대 53)
김환영(공대 61)
김훈목(사대 58)
박석규(간호 59)
박유미(약대 62)
박준섭(약대 63)
신달수(공대 50)
신철영(문리 64)
양덕주(문리 66)
유한창(공대 69)
유 황(농대 56)
이규진(약대 60)
이길영(문리 59)
이동성(의대 51)
이영재(상대 58)
이주희(음대 89)
이찬주(문리 63)
이희덕(농대 68)
전중희(공대 56)
조진태(문리 57)
진기주(상대 60)
최관일(공대 54)
최광수(상대 58)
최용천(문리 53)
탁순덕(사대 57)
황명규()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Wa.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강웅조(문리 56)
강창욱(의대 55)
강필원(공대 51)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응환(치대 88)
김정식(농대 85)
김진문(의대 46)
김진수(의대 60)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남춘일(사대 69)
문성길(의대 63)
박경훈(상대 50)
박동수(의대 65)
박용걸(약대 56)
박인영(의대 69)
박일영(문리 59)
박홍우(문리 61)
방정화(의대 61)
백 순(법대 58)
변만식(사대 49)
서윤석(의대 62)
서진석(의대 62)
서희열(의대 55)
석균범(문리 61)
송병준(약대 68)
신구용(공대 59)
신용계(의대 62)
안승건(문리 55)
안인옥(간호 71)
양인창(공대 73)
윤태근(상대 69)
오광동(공대 52)
유태영(공대 57)
유재풍(법대 60)
윤경의(공대 57)
윤용준(공대 63)

이경상(농대 80)
이규양(문리 62)
이내원(사대 58)
이문항(공대 46)
이연주(치대 88)
이영덕(사대 61)
이영수(공대 59)
이수안(공대 54)
이유세(사대 72)
이윤주(상대 63)
이재승(의대 55)
이종두(의대 57)
이주경(경제 82)
이준영(치대 74)
임창주(공대 55)
임청규(공대 62)
임필순(의대 54)
장수영(공대 57)
장윤희(사대 54)
정기순(간호 67)

정세근(자연 82)
정원자(농대 62)
정평희(공대 71)
조정윤(공대 57)
조화유(문리 61)
최경수(문리 54)
최규식(상대 64)
최완열(상대 56)
최정미(사대 45)
최준호(공대 60)
한성업(의대 55)
한의생(수의 60)
한인섭(문리 55)
한정민(농대 87)
홍영석(공대 58)
홍용식(공대 51)
홍윤기(공대 61)
황보한(공대 56)

▶Wa.States
고광선(공대 57)
김무웅(음대 64)
김석민(사대 55)
김선호(사대 59)
김영창(공대 64)
김재훈(공대 72)
박진수(의대 56)
박찬형(의대 66)
박희주(약대 83)
변중혜(법대 58)
윤재명(문리 65)
윤태근(상대 69)
이길송(상대 57)
이동립(의대 52)
이희백(의대 55)
최준한(농대 58)
홍계인(음대 60)

후원금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경수(치대 58) 50
김광은(음대 56)125
김동호(농대 58)200
김영석(상대 62)200
김윤범(의대 54)200
김인국(문리 50)3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정모(문리 66) 25

박종수(수의 58)1225
백옥자(음대 71)200
염동해(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범식(공대 61)200
이원택(의대 65) 25
이재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전명선(공대 46)125
정균희(의대 64)105
최용환(공대 57)195

▶Chicago
강수상(의대 48)200
서상헌(의대 65)250
오상현(의대 65)200
이용락(공대 48)500
전경철(공대 55)200
조봉완(법대 53)200

▶Georgia
정량수(의대 60) 25

▶Hawaii
김승태(의대 57)200
김창원(공대 49)200

▶New England
김제호(상대 56)100
윤상래(수의 62)200
윤원길(의대 59)200
정정옥(의대 60)100

▶N.Carolina
이달호(사대 46) 25
한광수(의대 59)200

▶NY & NJ
곽선섭(공대 61)225
권영국(상대 60)200
김기훈(상대 52)200
김정순(법대 57)200
김정환(문리 60)200
노용면(의대 49)200
윤현남(공대 64)200
이강홍(상대 60)500
이운순(의대 52)125
이은미(음대 77)200
이준행(공대)48)1000
정길현(문리 60)200
정창동(간호 45) 50
조아미(음대 61)200
최한용(농대 58)200
허선행(의대 58)200

▶Ohio
송용재(의대 63)200

▶Oregon
한영준(사대 60) 25

▶Philadelphia
김국간(치대 64)200
손재옥(가정 77)500
송성균(공대 50)200
송영두(의대 56)200
윤정숙(문리 59)200
정정수(의대 56)200
정태광(공대 74)100
지흥민(수의 61)200

▶Texas
김동수(의대 60)125
김환영(공대 61)225
이희택(농대 68)200
진기주(상대 60)200

▶DC.
강길중(약대 69)200
강연식(사대 57)125
공순옥(간호 66)100
권철수(의대 68)200
김동훈(법대 56)200
김부근(의대 54)300
김진수(의대 60) 50
박용걸(약대 56)425
백 순(법대 58)200
서윤석(의대 62)200
석균범(문리 61)200
유재풍(법대 60)200
윤경의(공대 57)200
이영수(공대 59)200
이윤주(상대 63) 25
이재승(의대 55)200
임필순(의대 54)100
장수영(공대 57)200
정평희(공대 71)200
한성업(의대 55)200
홍윤기(공대 61)124

▶Wa.States
고광선(공대 57)500
김무웅(음대 64)225

기타후원

강필원(공대 51)125
서윤석(의대 62)200

종신이사회비
오세경(약대 61)3000

한국학 후원

김해암(의대 53)1000
나영은(가정 86)100
조봉완(법대 53)200

한국내 동문 후원

신창민(법대 60)1000
신헌명(상대 62)300

비회원 후원
강철은(외대전회장)
75

모교 후원
윤현남(공대 64)200

광고 및
업소록

김병연(공대 68)400
김영도(공대 67)300
김원탁(공대 65)200
김일영(의대 65)120
김창수(약대 64)120
김혜정(문리 82)2800
노명호(공대 61)1000
박희진(농대 78)120
서동영(사대 60)240
손재옥(가정 77)1120
이전구(농대 60)1000
이준영(치대 74)120
이영진(공대 76)120
이종묘(간호 69)120
장 준(인문 85)200
정균희(의대 64)120
정재훈(공대 64)120
정진수(공대 56)120
탁은숙(문리 54)200
하선희(치대 81)120
한상봉(수의 67)120
서울대병원 1000
Wilshire Bank 1000
Ace Travel 400

2차년도 지역 동
창회분담금납부

(괄호안은 서울
2014.7 ~ 2015.6)

<완남동창회>
▶NY 3000(3000)

“서울대학교 역사자료를 찾습니다”

1. 수집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2)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마감기일 연기)
3. 수집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담당자 : 김진현 대리
핸드폰 : 010-7224-075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 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제공사 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흥조(치) · 이영목(공) · 이전구(농) · 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중(상)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옥(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채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상임고문 : 박윤수(문) · 이영목(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옥(가정)

회보 임원

발 행 인 : 오인환(문)
주 필 : 백 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 · 서윤석(의) · 이운주(상) · 이해덕(상)
정평희(공) · 김정식(농) · 진학송(약) · 함은선(음)
이나래(경)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Homepage Webmaster : 김원영(미대 82)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 · 고병철(법) · 조동준(의) · 이채진(문)
최용완(공) · 정홍택(상) · 윤상래(수의) · 김창수(약)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용현(경) · 유재풍(법)
장석정(법) · 하용출(사) · 민경훈(법) · 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 한재은(의)
위 원 = 서종민(공) · 이민언(법) · 윤상래(수의)
김지영(사) · 신응남(농) · 함은선(음)

감 사 : 박평일(농) · 주기목(수의)

*사진·취재·편집·레이아웃 디자인 =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alkj@gmail.com. snu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박혜옥(간호대 69) 818-952-2871 jennypaek2@gmail.com	회계년도 Feb-Feb
	차기회장		
북가주	회장	박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부회장		
뉴욕	회장	곽승용(의대 65) 347-506-0478 syngkwak@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45@gmai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Jan-Dec
	부회장		
시카고	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msn.com	Jan-Dec
	부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77) daehyunbaek@hot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intl.com	
	수석총무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부회장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an-Dec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yxy23yoo@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캐로라이나	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성낙길(해양 77)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7)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부회장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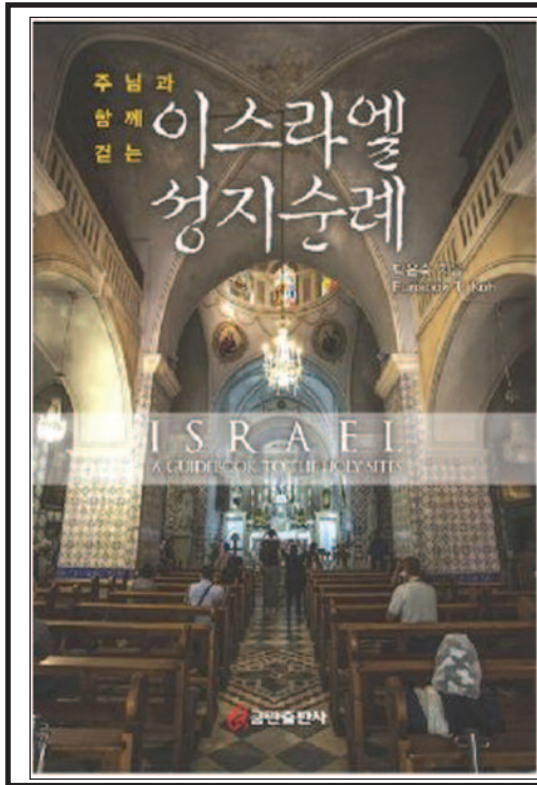
Dish Pizza Salads Soups Sushi

USDA ORGANIC

Seas Gift
SUSHI NORI
가비경 / 가비리

대표 이승훈(상대 74)

Jayone 562-633-7400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Koreanfoodmart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A GUIDEBOOK TO THE HOLY SITES

탁은숙(문리대 54)
Tel. 650-968-4078
408-805-0294
590 Sullivan Dr.
Mountain View CA 94041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해정(82入,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배려형 커플매니저: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저희 한스관광의 목적은 질 높은 내용으로 더 알차면서 여유있는 여행 패키지를 여러분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스 관광에서 단독으로 진행 되는 모든 맞춤 여행 패키지들은 여행 첫 날부터 끝나는날까지 직접 한스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가고 호텔과 식사 모두다 upgrade 된 고품격 패키지입니다.한스관광이 각 패키지 투어마다 엄선하여 제공해 드리는 편안한 잠자리, 여유 있는 일정, 그리고 현지 최고 가이드 안내로 평생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지들



1차 2007년 이집트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이집트와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내몽골 인도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페루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필리핀 9개국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8차 2014년 베네룩스 3국 투어

SNU GROUP TOUR - Journey Along the Silk Road Uzbekistan

현지 8박9일 Deluxe Tour \$2490 per person + 항공
출발일: 4월 27일-5월 6일
일정: 타슈켄트-사마리칸트-부하라-키질롬사막-히바 *24분 한정 모객

2014년 베네룩스 3국과 노르망디 여행에 이어 2015년 4월 28일부터 8박9일 동안 서울대 여행 동아리와 함께 하는 우즈베키스탄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0년 전 카라반들이 동서양을 왕래하면서 걸었던 Silk Road를 직접 밟아보는 감동의 여정을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문화와 역사의 요람으로, 또한 알렉산더 대왕과 티무르 왕국, 칭기스칸과 터키에 이르기까지 고대왕국들의 패권 다툼의 무대가 되었던 사마리칸트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인 타슈켄트, 아름다운 성으로 싸인 도시 히바, 고대 이슬람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과거의 도시 부하라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HANS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HANS TRAVEL 2015 TOU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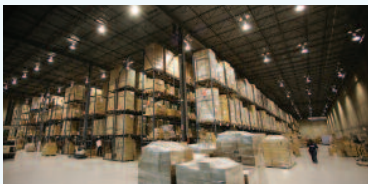
- 4월 17일-4월 26일: 봄의 활차가 들려오는 아미데우스 동유럽투어 9박10일
- 4월 26일-5월 8일: PORTUGAL&SPAIN 12박13일 초고속 열차, 럭셔리 일정
- 4월 26일-5월 9일: GREECE&TURKEY 13박14일 도시항공이동으로 편안하게
- 4월 27일-5월 6일: JOURNEY ALONG THE SILK ROAD 우즈베키스탄
- 5월 15일-5월 20일: 정통발칸 7개국(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 5월 19일-5월 30일: 스페인 북부여행+아름다운 명상의 길, 산티아고 순례길
- 5월 25일-6월 11일: PORTUGAL&THE BEST OF SPAIN 17박18일
- 6월 8일-6월 15일: LAST FRONTIER 알래스카 달라스 인랜드 투어 7박8일
- 7월 27일-8월 9일(1차), 8월 10일-8월 23일(2차): 러시아/북유럽 13박14일
- 9월 10일-9월 21일: TASTE OF SPAIN+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은 맛있다!
- 9월 13일-9월 22일: BOHEMIAN EASTERN EUROPE 9박10일
- 9월 21일-10월 4일: SPAIN, PORTUGAL, MOROCCO 13박14일
- 9월 23일-9월 30일: HOLIDAY IN CROATIA+ALPS TOWN, SLOVENIA
- 9월 29일-10월 7일: 맛따라 맛따라 2차 고국일주 물릉도, 독도, 바다기차

*원하시는 날짜와 일정에 맞춰 맞춤 패키지 만들어 드립니다(10분 이상)

“성장하는 기업”

25년간 세계 정상의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KISS
여러분과 함께 자녀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SS®



김광호 (62) 신규천 (73) 한규상 (84) 김영훈 (93)

KISS®

KISS PRODUCTS, INC.,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